

여리춘남 리 논 램

제3권 제4호 (통권10호)
1997 겨울

The Chungnam Review

특집 · 백제문화권 개발과 21세기 충남의 미래

특 집 · 백제문화권 개발과 21세기 충남의 미래

백제문화 연구와 개발의 현주소/ 서정석

백제문화권 개발의 현황과 과제/ 이강승

백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신형식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연구현황과 과제/ 이남석

백제문화권 개발과 관광충남/ 여정태

정 책논단

지역개발수준의 변화패턴과 지역균형개발 방향/ 엄수원

충남 농어촌지역사회 유형화에 관한 연구/ 송두범

시 사칼럼

충남의 문화재 사업과 그 성과/ 유상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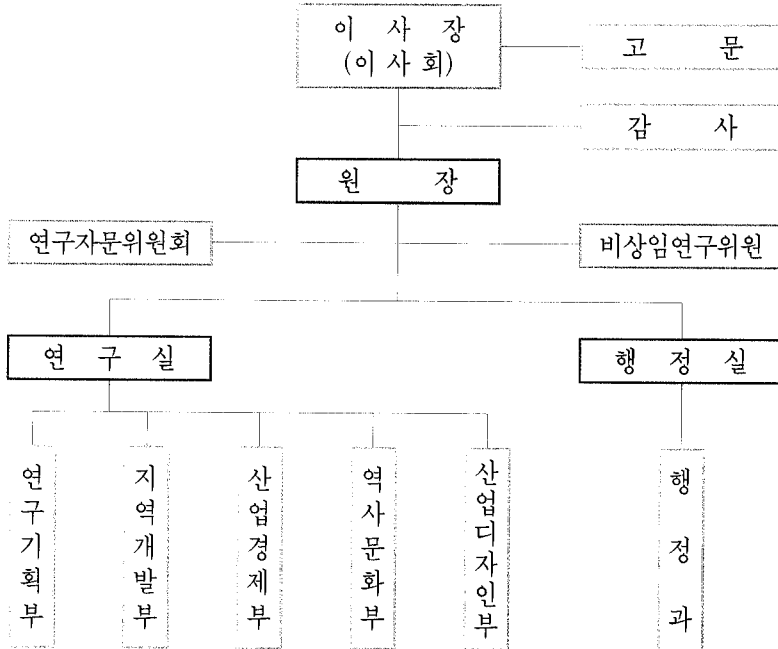
플라톤의 이데아와 21세기 정책방향/ 최민호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와 도내 각 시·군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연구기관으로서
세계속의 충남을 열어가는 최고의 전문 연구기관을 지향합니다.



연구기획부

연구사업의 기획·조정·총괄
각종 연구계획 수립
도·시·군정 주요 현안과제 연구

지역개발부

도·시·군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
농촌·도시개발계획 및 정책연구
사회복지 관련연구

산업경제부

지역경제·산업개발연구
지역의 환경계획 수립·정책연구
농·어촌 현안문제의 장·단기 대책연구

역사문화부

역사문화의 조사·연구
문화재 발굴·보전·관리방안 연구
문화행사 및 이벤트 관련연구

산업디자인부

중소기업의 발전방안 연구
산업디자인 개발 및 홍보·지원방안 연구
도·시·군 홍보표지판 디자인 연구

행정과

연구사업 지원
인사·예산 및 일반행정업무
자료실 관리 및 안내
각종 행사계획 수립

여리춘남

The Chungnam Review

목차 CONTENTS

특 집 백제문화권 개발과 21세기 충남의 미래

- ❶ 백제문화 연구와 개발의 현주소 서정석
- ❷ 백제문화권 개발의 현황과 과제 이강승
- ❸ 백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신형식
- ❹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연구현황과 과제 이남석
- ❺ 백제문화권 개발과 관광충남 여정태

정 책 논 단

- ❶ 지역개발수준의 변화패턴과 지역균형개발 방향 엄수원
- ❷ 충남 농어촌지역사회 유형화에 관한 연구 송두범

시 사 칼 럼

- ❶ 충남의 문화재 사업과 그 성과 유상곤
- ❷ 플라톤의 이데아와 21세기 정책방향 최민호

연구원소식

- ❶ 연구원사업
- ❷ 원장동정
- ❸ 연구원활동

특 집

백제문화권 개발과 21세기 충남의 미래

백제문화 연구와 개발의 현주소 / 서정석

백제문화권 개발의 현황과 과제 / 이강승

백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 신형식

충남시의 백제유적의 연구현황과 과제 / 이남석

백제문화권 개발과 관광충남 / 여정태



백제문화 연구와 개발의 현주소

서 정 석
(徐程錫)

충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부 연구원



I. 머리말

II. 백제사의 현황

III. 백제유적 조사의 현황

IV. 백제문화권 개발의 현황

V. 맺음말

I. 머리말

다 아는 바와 같이 삼국시대의 문화는 우리의 민족문화의 틀이 형성되던 시기의 문화다. 삼국시대를 통해서 민족문화의 공간과 범위가 정해지고, 이어서 통일신라와 고려, 조선 등 통일왕조가 이

어지면서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우리 민족 고유의 민족문화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백제문화는 신라문화와 더불어 우리의 민족문화를 형성한 두 축이라 할 수 있으며, 진정한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은 신라문화 뿐만 아니라 백제문화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새롭게 일기 시작하는 백제문화권 개발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진정한 민족문화의 원형을 찾고, 그를 통해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달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껍이나 다행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신라문화권 개발사업이 끝나는 1977년경부터 시작되었다. 1977년부터 3개 년간에 걸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그 시작이다. 그러나, 신라문화권 개발사업과는 달리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처음부터 문화권의 범위, 개발사업의 방향 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채 출발하였다. 따라서, 처음에는 서울, 공주, 부여, 익산 등지를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진행시키 고자 계획되어 있었으나, 86아시아게임과 88서울올림 픽을 위해서 서울지구가 古都整備事業이라는 이



름으로 집중 투자된데 비해 나머지 지역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그 후 88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는 반대로 서울을 제외한 공주·부여 중심의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리적으로나 역사적 사실로 볼 때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서울은 이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아주 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추진되어 온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어떠한 성격의 것이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사실이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백제사 내지는 백제문화가 신라사나 신라문화와는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라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했던 그 틀, 그 방향을 그대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적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백제문화권의 설정과 개발방향은 정확한 백제사 내지는 백제문화의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문화권의 설정과 개발은 다른 사업과 달리 그 문화의 실체를 통해서 다가오는 시기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다지는 것이 기본 목적이자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처음 공시된 1970년대까지는 백제역사에 대한 대체적인 이해도 결여되어 있었고, 또 백제문화의 실체에 대해서도 전혀 파악되지 않은 시기였다. 따라서, 이러한 배

경하에 출발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범위와 방향은 신라문화권 개발사업의 재판일 뿐 다른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백제의 역사나 백제의 문화는 신라사의 전개과정, 그리고 신라의 문화와는 서로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이 훨씬 더 많아서 양자의 문화를 서로 동일한 잣대로 간주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¹⁾ 예를 들어, 신라는 건국에서 멸망까지 수도가 줄곧 경주에 위치해 있었지만 백제는 한성에서 웅진, 그리고 다시 웅진에서 사비 등 두 번이나 수도를 옮겼고, 존속 기간도 신라는 약 1,000년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 백제는 약 700년간에 불과하다. 신라는 백제 역사의 절반 정도를 더 존속한 셈이다. 더구나 신라가 더 존속한 이 300년간은 단순한 300년이 아니고 신라문화와 백제문화, 그리고 고구려문화가 합쳐진 시기, 즉 신라문화라기 보다는 삼국문화라고 부르는 쪽이 타당한 문화가 형성된 시기다.

실제로 현재 남아 있는 신라문화의 대부분은 바로 이 통일신라시기에 형성된 것이다. 또한 백제는 삼국의 치열한 통일전쟁 과정에서 패망한 나라이다. 신라 역시 패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문화적 전통만큼은 뒤이어 건국된 고려 왕조에 그대로 이어진 반면 백제는 완전히 패망되어 문화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였다. 백제 멸망 후 300여 년이 지난 고려초에 백제계 양식의 석탑이 백제 故地에

1) 윤용혁, “백제문화권개발과 충남발전”, 열린충남, 창간호, 1995, pp.75-76.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쪽이 아닌 백제와 신라의 역사를 비교해 보면 좀 더 뚜렷이 드러난다.

이처럼 양국은 역사의 전개 과정이나 문화배경에 있어 많은 부분 서로 차이가 있다. 양국 사이의 역사 전개과정이나 문화배경이 상당부분 서로 상이하다는 사실은 백제문화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사실을 암시해 준다. 이러한 차이는 곧바로 문화권의 설정 범위와 개발사업의 추진 방향에 있어 백제문화권은 신라문화권과 서로 차이가 있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신라문화권의 재관으로써의 백제문화권 개발은 실제 백제의 역사나 문화와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고, 사업 자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단순한 신라문화권 개발사업의 연장이거나 재관이 아닌 백제의 역사와 문화에 부합되는 개발사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개발사업은 정확한 백제사, 백제문화의 실체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시행된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발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백제문화권의 범위와 사업의 방향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정을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본원에서 개최한 포럼 내용을 중심으로 백제사와 백제문화의 연구 현황, 그리고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백제사 연구의 현황

고구려사나 신라사에 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근대적인 연구방법에 의한 백제사의 연구는 일제시대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백제사에 대한 연구는 연구의 폭과 깊이를 날로 심화시켜 왔다. 그러나, 분단 후 남쪽에서는 신라사 위주의 삼국시대 연구가 진행되고, 북쪽에서는 반대로 고구려사 위주의 역사 연구가 진행되면서 백제사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고구려사나 신라사에 비해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초기에 연구를 진행한 일본인 학자들이 백제사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으로 백제에 대해서 기록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별다른 이유없이 불신한다든가, 혹은 ‘백제사라는 것은 임나일본부의 지배하에서 타율적으로 유지된 역사’라고 이해함으로써 올바른 百濟史像을 정립하는데 이중의 부담을 안겨 주었다.²⁾ 이러한 百濟史像은 일제시대 초기에 형성된 이후³⁾ 약간씩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오늘날까지도 일본인 학자들의 백제사 인식에 대한 기본 틀로 작용하고 있다.⁴⁾

2) 申澄植, “日本學界의 研究成果와 問題點”, 百濟史, 梨花女大出版部, 1992.

3) ① 津田左右吉, “百濟に關する日本書紀の記載”,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8輯, 1921, pp.128-132.

② 今西龍, 百濟史研究, 國書刊行會, 1934.

따라서, 해방 후 우리 학계에 주어진 과제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왜곡된 백제의 역사를 시정하고, 다른 하나는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百濟史像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었다.

먼저, 김원룡은 서울시 강동구 풍납동에 남아 있는 풍납동 토성의 발굴 결과를 토대로 종래에 일본인 학자들이 주장해 온 것과는 달리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신빙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⁴⁾ 이러한 견해는 그 때까지 일본인 학자들이 규정해 놓은 틀 안에서 백제사를 연구해 오던 우리 학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새로운 관점에서 백제사를 연구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되었다. 특히, 이 견해가 제시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71년에 발견된 무령왕릉 출토 지석을 통해서 다시한번 「삼국사기」 기록의 정확성이 입증됨에 따라 「삼국사기」의 기록은 이제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되기에 이르렀다. 천관우와 이종욱의 연구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서 얻어진 수확이었다.⁵⁾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여러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일제 皇國史觀의 관념적 무기였던 임나일본부 자체의 허구성도 밝혀지게 되었다. 즉, 임나일본부란 가야지방에 파견된 백제의 군사령부와 같은 성격의 기구였다는 주장이나⁶⁾ 임나일본부란 백제가 설치한 機關이나 그곳에 파견된 官人이 일본계 백제관료로써 大和政權의 氏姓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日本府가 되었다는 주장⁷⁾ 등이 그것이다.

해방 후 전개된 백제사에 대한 연구 결과 이와 같이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구축된 百濟史像이 왜곡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 발 더 나아가 올바른 百濟史像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도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백제의 건국신화를 재해석하기도 하고,⁸⁾ 백제의 국가발전문제⁹⁾와 백제 성립의

4) ① 井上秀雄, 任那日本府と倭, 1978.

② 鬼頭清明, 任那日本府の検討, 1976.

5) 金元龍, “三國時代 開始에 關한 一考察”, 東亞文化, 7輯, 1967.

6) ① 천관우, “삼한의 국가형성(하)”, 한국학보, 3집, 1976.

② 이종욱, “백제 초기사 연구자료의 성격”, 백제연구, 17집,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86.

7) 千寛宇, “復元 加耶史(下)”, 文學과 知性, 9-1, 1977, pp.110~117.

8) 金鉉球, 大和政權の對外關係研究, 1985, pp.96~194.

9) ① 金杜珍, “百濟 建國神話의 復元試圖”, 國史館論叢, 13輯, 1990.

② 盧明鎬, “百濟 建國神話의 原型과 成立背景”, 百濟史의 理解, 1991.

10) ① 李鍾旭, “百濟의 國家形成”, 大邱史學, 11輯, 1976.

② 盧重國, “百濟國의 成立과 發展”, 震檀學報, 60輯, 1985.

③ 李道學, “百濟의 起源과 國家形成에 關한 再檢討”, 韓國古代國家의 形成, 1990.

④ 李基東, “百濟建國史의 2·3問題”, 百濟研究, 21輯, 1990.

역사적 배경,¹¹⁾ 그리고 백제와 마한과의 관계¹²⁾ 등이 체계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백제 왕실의 왕위계승문제의 의문이 풀리게 되었고,¹³⁾ 한성에서 웅진으로, 다시 웅진에서 사비로 수도가 이동함에 따라 정치체제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웅진시대의 지배세력¹⁴⁾과 사비시대 지배세력의 실체가 밝혀지게 되었다.¹⁵⁾

아울러,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백제의 권력구조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어 좌평제에 대한 연구¹⁶⁾와 지방제도의 변천에 대한 연구¹⁷⁾가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백제의 건국과 성장, 그

리고 왕권의 專制化에 이르는 일련의 백제의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밝힌 것이라는 점에서 올바른 백제사상의 확립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제 백제사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제 분야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백제의 대외관계¹⁸⁾와 불교사상¹⁹⁾에 대한 연구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리고, 한 동안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었던 白江轉役²⁰⁾과 周留城의 위치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²¹⁾

그러나, 아직도 백제사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사항들도 많이 남아 있다. 그 중

11) ① 金元龍, “百濟 建國地로서의 漢江下流地域”, 百濟文化, 7·8合輯,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1975.

② 申澄植, “韓國古代史에 있어서의 漢江流域의 政治·軍事的 性格”, 鄉土서울, 41號, 1983.

12) ① 盧重國, “馬韓의 成立과 變遷”, 馬韓·百濟文化, 10輯, 1987.

② 李基東, “馬韓領域에서의 百濟의 成長”, 馬韓·百濟文化, 10輯, 1987.

13) ① 李基白, “百濟 王位繼承考”, 歷史學보, 11輯, 1959.

② 李基東, “百濟 王室의 交代論에 대하여”, 百濟研究, 12輯, 1981.

③ 盧重國, “解氏과 扶餘氏의 王室交替와 初期 百濟의 成長”, 金哲培博士華甲 紀念論叢, 1985.

④ 李道學, “漢城末 熊津時代 百濟王系 檢討”, 韓國史研究, 45輯, 1984.

14) ① 李基白, “熊津時代 百濟의 貴族勢力”, 百濟研究, 9輯, 1978.

② 梁起錫, “熊津時代 百濟 支配층 研究”, 史學志, 14輯, 1980.

15) 盧重國, “四世紀時代 百濟 支配體制的 變遷”, 韓浩勛博士停年紀念論叢, 1981.

16) 李鍾旭, “百濟의 佐平”, 震檀學報, 45輯, 1978.

17) ① 盧重國, “漢城時代 百濟의 地方統治體制”, 邊太燮博士華甲論叢, 1985.

② 權五榮, “4世紀 百濟의 地方統制方式 一例”, 韓國史論, 18輯,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8.

③ 金英心, “5~6世紀 百濟의 地方統治體制”, 韓國史論, 22輯,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0.

④ 朴賢淑, “百濟 初期의 地方 統治體制研究”, 百濟文化, 20輯, 1990.

⑤ 金周成, “百濟 地方統治組織의 變化와 地方社會의 再編”, 國史館論叢, 35輯, 1992.

18) ① 金庠基, “百濟의 遼西經略에 대하여”, 白山學報, 3號, 1967.

② 方善柱, “百濟軍의 華北進出과 그 背景”, 白山學報, 11號, 1971.

③ 李明揆, “百濟의 對外關係에 관한 試論”, 史學研究, 37號, 1983.

④ 俞元載, “百濟略有遼西 記事의 分析”, 百濟研究, 20輯, 1989.

가장 절실한 문제는 부족한 문헌기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고고학적 연구 성과와의 접목인데, 그러한 문제 이외에도 백제 초기 都城의 위치 문제를 비롯하여 백제와 百支國과의 관계, 大成 8族의 성격, 중앙과 지방관계,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 益山別都問題, 周留城의 위치 등이 미해결의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백제사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해서도, 그리고 백제문화권의 설정과 개발방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다.

III. 백제유적 조사의 현황

백제사에 연구와 마찬가지로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도 일제시대부터 시작되었다. 물론, 이 때의 조사라는 것은 지금과 같은 순수한 학술적인 목적에서가 아니라 일본 고대문화의 원류를 찾고, 나아가 문헌사 연구에서 획득한 한국사의 타율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유적이나 유물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방과 무령왕릉의 발

견이라는 획기적인 역사적 사건을 기준으로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일제시대의 조사는 일본인들이 독점하였는데,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는 부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때 능산리 고분군과 부소산성, 나성, 성흥산성 등이 조사되었는데, 능산리 고분군에 대해서만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 성곽유적에 대해서는 간단한 설명에 그치고 있다.²⁰⁾ 이처럼, 이 때 조사된 유적들은 모두가 백제고분이나 백제 성곽 연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유적이었지만 조사 당시에는 조사 자체가 극히 일부만에 그쳤기 때문에 유적의 확인에 그쳤을 뿐 별다른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들어서서 조사의 대상과 조사 지역이 확대되면서 백제유적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그 중 1927년부터 조사가 이루어진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 대한 조사는 1932년에 있었던 송산리 6호분에 대한 조사로 절정을 맞이하게 되고, 이러한 조사 내용을 바탕을

19) ① 金煥泰, “百濟의 觀音思想”, 馬韓·百濟文化, 2輯, 1978.

② 安啓賢, “百濟 佛敎에 관한 諸問題”, 百濟研究, 8輯, 1977.

③ 洪潤植, “百濟 帝釋信仰考”, 馬韓·百濟文化, 2輯, 1978.

④ 柳南相, “百濟思想의 研究”, 百濟研究, 特輯號, 1982.

⑤ 金三龍, “百濟의 彌勒信仰”, 韓國彌勒信仰의 研究, 1983.

20) ① 卞麟錫, “7世紀 中葉 白江口戰을 둘러싼 東아시아의 國際情勢”, 人文論叢, 4호, 1993.

② _____, “白江口戰爭을 통해서 본 古代 韓日關係의 接點”, 東洋學, 24輯, 1994.

21) ① 全榮來, 周留城·白江 位置 比定에 關한 研究, 부안군, 1976.

② 朴聖興, 洪州 周留城考, 1994.

③ 金在鵬, 百濟 周留城의 研究, 연기군, 1995.

22) 谷井濟一, “扶餘郡古蹟調査略報告”,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1920.

마침내 체계적인 백제고분 연구에까지 이르게 된다.²³⁾ 이때 이루어진 백제고분에 대한 연구는 해방 후 우리 학자들의 고분 연구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²⁴⁾ 별다른 수정없이 현재까지도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²⁵⁾

비슷한 시기에 백제 寺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었다. 백제 사지에 대한 조사는 부여 군수리 사지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되었는데,²⁶⁾ 당시에는 간단한 조사에 그쳐 전체적인 가람배치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후 동남리 사지, 서북사지, 정림사지 등 백제사지 발굴 조사의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백제 寺址연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유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렇게 일제시대의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는 고분, 성곽, 사지 등 역사시대 핵심유적 전반에 걸친 것이기는 하였지만 지역적으로 볼 때 공주와 부여에 편중된 것이 사실이며, 이것이 오히려 백제문화를 이해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해방 후 50년대와 60년대의 백제유적 조사는 매우 빈약한 수준이었다. 해방과 전쟁이라는 정치적

인 혼란속에서 유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다만, 1966년에 있었던 공주 시목동 고분조사²⁷⁾와 1969년에 있었던 서산 명지부락 고분조사²⁸⁾ 등은 이 시기에 조사된 유적 중에서 특기할 만한 것이었다. 이들 조사는 종래에 알고 있었던 백제고분의 유형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고분이 더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백제유적의 조사 범위를 종래의 공주·부여에서 그 밖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백제문화의 참모습을 살피는데 실제로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시사를 줌과 동시에 백제문화권 설정의 여러 전제 조건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1970년대는 무령왕릉의 발굴로 시작되었다. 무령왕릉의 발견은 그 때까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던 백제사의 연구에 큰 자극제가 되었으며, 백제유적의 조사도 새로운 轉機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무령왕릉 발견 이후 70년대에 이렇다 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충남 이외의 지역에서는 활발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었

23) ① 輕部慈恩, “公州における百濟古墳”, 考古學雜誌, 24-3, 1934.

② _____, 百濟遺蹟の研究, 1971.

24) ① 安承周, “百濟古墳의 研究”, 百濟文化, 7·8合輯, 1975.

② 姜仁求, 百濟古墳研究, 一志社, 1977.

25) ① 小田富士雄, “百濟古墳の系譜”, 馬韓·百濟文化, 7輯, 1984.

② 李南奭, 百濟石室墳研究, 學研文化社, 1995.

26) 石田茂作, “扶餘軍守里寺址發掘調査”, 昭和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 1936.

27) 安承周, “公州 百濟古墳 樣式의 一例”, 百濟文化, 1輯, 1967.

28) 金永培·韓炳三, “大山面 百濟土墳墓 發掘報告”, 考古學, 2輯, 1969.

다. 서울 잠실지구 백제유적의 조사, 1974년부터 시작된 익산 미륵사지 동탑지의 조사, 김제 벽골제에 대한 조사 등 오히려 충남 이외의 지역에서 조사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런데, 197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분위기가 크게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부터 국토개발이 크게 활기를 띠면서 개발지역에 대한 대규모의 구제발굴이 뒤따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 시기부터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백제유적에 대한 장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공주의 경우 공산성에 대한 조사가 이후 약 10년 동안 이루어졌고,²⁹⁾ 부여에서는 부소산성³⁰⁾과 추정 왕궁지를 대상으로 연차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어서 논산 표정리 고분군과 두곡리 고분군에 대한 학술조사가 이어졌고, 이는 논산 육곡리, 서천 칠지리, 홍성 성호리, 공주 송학리·남산리, 그리고 공주시내에 자리하고 있던 웅진동 보통골, 신기동·금학동 고분군에 대한 조사에까지 전개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종래의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가 안고 있던 지역적인 편중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구제발굴에서와 같이 시간에 쫓기면서 성급하게 조사를 마무리짓는 것이 아니라 계획했던 조사를 진행시킴으로써 필

요한 정보를 최대한 얻어내게 되었다는 점에서 백제유적의 조사활동에 있어서 새로운 획을 그을 만한 것이었다.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국토개발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도 대상과 범위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증가된 범위와 대상을 통해서 백제문화의 실체에 한발 더 다가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예를 들어 1993년에 발견되어 학계의 주목을 한 눈에 받았던 백제금동대향로의 경우, 주차장이 들어설 자리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며, 향로가 발견된 지점에서 동쪽으로 약 2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새롭게 확인된 능산리 고분군은 공설운동장이 들어설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이다. 그런가 하면, 서천 오석리 유적은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확인된 유적이며, 공주 정지산 유적과 분강 저석리 고분군은 백제큰길 공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고, 대전 월평동 산성은 정수장이 들어설 지역에 대한 지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유적이다. 이처럼, 198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유적의 조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며, 유적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발견되는 백제유적의 종류도 다양해지

29) ① 安承周, 公山城, 公州師大 百濟文化研究所, 1982.

② 安承周·李南奭, 公山城推定王宮址發掘調查報告書, 公州師大博物館, 1988.

③ _____, 公山城 城址發掘調查報告書, 公州師大博物館, 1990.

④ _____, 公山城 建物址, 1995.

30) ① 扶餘文化財研究所, 扶蘇山城發掘中間報告書, 1994.

② 문화재연구소, 扶蘇山城發掘調查報告書, 1996.

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고분 위주의 조사, 고분 위주의 연구만 진행되어 온 종래의 조사·연구에서 벗어나 조사·연구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우선적인 의의를 둘 수 있다.

다음에는 이러한 다양한 유적의 존재를 통해서 백제문화의 실체에 좀더 가깝게 접근했다는데 또 다른 의의를 둘 수 있다.

이처럼 조사가 거듭될수록 백제유적의 종류와 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백제문화권 설정과 개발의 방향에 많은 사실을 시사해 준다. 지금까지 백제유적이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조사 여하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많은 유적, 다양한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적의 조사수가 증가하면서 부족했던 백제유적이 양적으로 팽창함과 동시에 종래에 불완전한 이해에 그쳤던 것들에 대해서도 이해의 폭을 넓고 깊게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백제문화권 개발시 항상 제기되고 있는 유적의 빈약성, 고증의 어려움, 자료의 한계 등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특정 분야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월등히 많으며, 조사에 참여할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유적이나 유물을 통해 밝혀진 사실을 실제 백제사의 연구에 접목시킬 수 없다는 단점도 엄연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IV. 백제문화권 개발의 현황

백제문화권이라는 용어가 생겨난 것은 대체로

1970년대 후반이었다. 70년대 초반에 경주를 집중적으로 개발하자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은 호남지방에서 개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신라문화권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백제문화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출발이 이렇다 보니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백제문화권의 범위와 개발의 방향이 전혀 정리되지 못한채 개발사업은 진행되고 말았다.

백제는 신라와 달리 지역이나 시대적인 한계가 뚜렷하지도 못하고, 또 역사나 문화배경에서 차이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신라문화권 개발사업을 그대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출발부터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여기 저기에서 더 많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다.

원래 백제문화권 개발 계획은 서울, 공주, 부여, 익산 등의 4지역을 중심으로 79~88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65개의 문화재를 정비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치루기 위해서는 서울의 문화재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정부에서는 서울지역만을 따로 분리해서 1985년부터 실시된 古都民族文化遺蹟 綜合復元計劃에 따라 서울지역 위주의 조사와 정비사업을 벌여 나갔다. 즉, 공주, 부여, 익산지역과는 달리 백제유적의 조사와 정비를 위한 예산안이 새롭게 정해졌고, 이 때문에 공주, 부여, 익산 등지는 계획된 조사, 계획된 정비·복원 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러다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 끝나고 나

서는 이제 정반대로 공주, 부여, 익산 등지의 백제 유적에 대해서만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조사와 복원이 이루어질 뿐 서울지역에서는 이렇다할 조사와 정비·복원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백제문화권은 당초의 계획과 달리 공주, 부여, 익산 등지로 범위가 좁혀지고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서울지역은 제외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권의 범위와 개발방향에 대한 뚜렷한 계획 없이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문화권의 범위와 개발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정부가 백제문화권을 실제로 개발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불신감만 조장할 뿐이며, 개발사업의 결과가 어떨 것이라는 예측까지 가능케 하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문화권 개발이라는 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의 내용과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유적 주변을 정화·정비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업비 중 유적 주변의 사유지 매입과 시설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유적 조사비용이다. 결국 사업의 주제는 광역의 문화권 정비 또는 개발이지만 실제 내용은 문화재의 정비가 대부분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권 개발과는 거리가 먼 부분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문화권 개발과 거리가 먼 부분에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백제문화권을 어느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일정한 계획이 서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백제문화 전반에 대한 종합 개발 계획은 물론이고, 개별 유적에 대한 정비·개발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송산리 고분군과 능산리 고분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공산성이나 부소산성은 또 어떻게 정비·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방침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사업이 실시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백제문화권 전반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개개 유적의 활용방안도 강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결코 순탄하게 진행되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듯하다.

V. 맺 음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제사의 연구와 백제유적의 조사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백제사 인식체계가 수립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목표와 방법은 아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개발사업의 범위와 방향이 확고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개발사업의 범위와 방향은 서로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따라 개발사업의 범위는 정해질 수 밖에 없고, 반대로 개발사업의 범위를 정하면 자연히 개발사업의 방향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양자는 서로 뿔래야 뿔 수 없는 관계인데,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야만 쓸데없는 예산의 낭비를 막고 예정한 기간내에 효과적으로 사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백제사 및 백제문화에 대한 자료의 축적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첫번째 제안 내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백제사 혹은 백제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만 백제문화권의 범위와 개발 방향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백제사, 혹은 백제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요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그러한 요소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장점이 최대한으로 살려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신라문화권 개발사업의 재판으로써의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크다고 보여진다.

양국은 각각 독특한 역사와 독자적인 문화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에 맞는 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신라문화권의 유적들은 경주를 중심으로 한 일대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데 비해 백제문화권의 유적들은 충남 도내 전체에 걸쳐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백제는 신라에 비해 문화유적의 집중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중 문화유적이 많은 일부지역만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진행시킨다든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한군데로 유적이거나 유물을 모아 놓는다든가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할 것 같다. 신라문화권의 문화유적이 경주에 집중해 있는 것이나 백제문화권의 문화유적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것은 바로 신라와 백제의 역사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적이 좀 빈약해 보인다고 해서, 시선을 끌 만한 것이 없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이합집산을 하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백제사, 혹은 백제문화의 특징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신라문화권 개발사업이 경주라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었다고 하여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역시 공주, 부여 등과 같이 당시의 수도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진행시키기 보다는 백제유적이 분포하는 충남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라문화권과 다른 백제문화권의 역사적 사실이나 문화적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제한된 예산과 제한된 기간 동안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정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바람직한 것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서울지역의 백제유적은 86년과 88년을 앞두고 단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공주나 부여보다도 앞서는 개발효과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충남지역에서도 공주나 부여와 같이 제한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그렇게 한다면 치더라도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정

부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공주나 부여에 버금가는 투자를 통해서 도내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에 대한 고른 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충남도내의 균형잡힌 발전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당시까지 밝혀진 백제사 내지는 백제문화의 실체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어디까지나 백제문화의 재현이 본래의 의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번 개발사업의 범위, 추진방침, 목표 등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백제사 내지는 백제문화의 실체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백제사 내지 백제문화의 실체라는 것은 개발사업처럼 그렇게 짧은 기간내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거기에 부합되는 개발의 목표와 추진방침이 수정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제사나 백제문화의 실체를 찾는 작업이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할 터인데, 이런 작업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발굴 조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에는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문화유산은 우리 민족 공동의 자산이기 때문에 훌륭히 보존되어 후손들에게까지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문화유산이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구현해 주기 때문인데, 그러한 가치구현은 그 자

체로써 보다는 일정한 개발을 전제로 한다.

물론, 개발의 정도가 지나치면 문화재 본래의 성격이 변질되어 정신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혐오감을 안겨줄 수도 있다. 따라서 개발과 보존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선을 긋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그런 점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개발사업을 주변에 있는 다른 자원과 연계시키는 것이 어떨까 한다. 즉, 공주와 부여가 역사문화의 도시라고 한다면 인접한 계룡산지역은 생태환경지역이며, 서산, 태안지역은 해양관광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관광도시로의 개발이라고 해서 꼭 그 안에서의 개발과 보존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에 있는 이러한 관광자원을 폭넓게 활용하여 개발과 보존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개발사업에 의해 빚어질 지도 모르는 지역적인 편중성을 해소하고 충남도내 전체가 하나의 단위로 연결되는 관광인프라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열린충남**



백제문화권 개발의 현황과 과제

이 강 승 (李康承)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 I. 머리 말
- II. 기간의 사업 현황
- III. 문제점과 전망
- IV. 맺 음 말

I. 머리말

백제문화권이라는 말은 공간적으로 백제의 문화가 영향을 미친 영역을 말한다. 시간적으로는 백제가 개국하여 멸망할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백제문화권이라는 용어는 명확한 개념을 가진 말이 아니다. 왜냐 하면 시

간에 따라 영역의 범위가 달랐지만 문화적으로는 백제의 범위속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 백제가 멸망한 후라도 백제의 문화전통이 남아 있어서 왕조의 구분으로 문화의 특징을 가릴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유로 충남지역에서 쓰는 이 말이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제문화권 개발이라는 사업이다. 이 내용을 보면 때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영역이 달라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백제역사속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한성시대는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있지 않거나, 또 백제왕조의 시간적 범위를 벗어나는 통일신라나 고려시대의 유적도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용어가 가지는 뜻을 그대로 쓴다면 모순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이 용어는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충남지방의 백제문화를 중심으로 하되 백제문화의 바탕이 되는 선사시대의 문화에서부터 백제문화의 전통이 남아 있는 후대의 유적유물을 포함하고, 지역적으로는 웅진·

사비시대의 문화터전인 충남지방과 익산지방을 말한다. 후기에 백제의 영역안에 들어온 호남의 일부지역(영산강유역)은 당연히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지만 따로 영산강 문화권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뜻으로 용어정리를 하고 그간의 개발사업 추진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 글을 준비하는 도중에 윤용혁 교수의 글을 접하게 되었다. 윤교수의 글이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종합개발 기본계획서를 중심으로 쓴 글이지만 백제문화권에 관해서 다루어야 할 모든 문제점들을 거론하고 있기에 윤교수의 글¹⁾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다.

II. 그간의 사업현황

이 용어가 생겨나게 된 것은 1970년대 후반으로 생각된다. 70년대 초반에 경주를 집중적으로 개발하자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은 호남지방에서 개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자 신라문화권에 대한 상대적인 용어로 막연하게 백제문화권이라는 용어가 생겨난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이 용어는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문화권에 대해서 지역이나 시대적인 한계가 명료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시대와 지역의 한계가 분명한 경주에 비

하여 지역이 넓을 뿐 아니라 시대에 따라 백제의 영역이 다양하게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백제문화권 개발에 대한 사업은 77년부터 시행되었다. 경주개발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정부는 제1차 문화재 보수계획을 세우고 이제까지 산발적으로 시행해 오던 보수사업을 지역의 문화권으로 묶고 주제별로 정리하여 사업을 계획하였다.

이 계획을 보면 호국위인유적·충효선현유적·중요국방유적·중요문화권·중요사적지·중요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천연기념물·고궁과 능원·지방지정문화재 및 기타 향토자료 등 10개의 주제로 나누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중요문화권사업에 경주문화권, 제주문화권, 가야문화권과 같이 편성하였다. 이 기간동안의 예산투자내역을 보면 <표 1> 및 <표 3>과 같다.

이 기간에 투자한 액수를 보면 4개 문화권에 73개 사업에 58억4819만원을 들여 보수하였는데, 백제문화권에는 7건에 10억6250만원을 들었다. 이것은 건수로는 전체의 9.5%이며 금액으로는 전체 예산의 18%에 달한다. 그 내용을 보면 송산리 고분군, 부여박물관, 부소산성, 정림사지, 미륵사지 등 5개 사업이다(연차사업을 건수로 계산하였으므로 실제 사업건수와 총 사업수와는 차이가 난다).

그 후로 80년대에 들어와서 문화재 정비방향을 단위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그치지 않고 주변의 환경까지도 포함하여 문화재를 정비하는 쪽으로 방

1) 윤용혁, "백제문화권 개발과 충남발전", 열린충남, 창간호, 충남발전연구원, 1995, pp.69-82.

향을 정하였다. 이것은 點의 문화재관리에서 面의 문화재 관리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단일 문화재에서 광역의 문화환경을 보존하는 적극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80년대 이후에는 하나의 구역을 묶어 정비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은 서울,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지역을 중심으로 79~88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65개의 문화재를 179억을 들여 정비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서울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이라는 국제행사를 치루기 위하여 서울의 문화재를 정비할 필요가 대두하였다. 따라서 서울지역에 대해서는 85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것이 古都民族文化遺蹟 綜合復原計劃이다(88년까지). 이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하였다. 87년까지 투자액은 서울지역 260억7300만원, 공주지역 22억1천만원, 부여지역 42억원, 익산지역 16억5천만원이다(표 4 참조).

88년 이후 96년까지 중요문화권 문화재 보수내용을 보면 백제, 신라, 가야, 중원, 영산강 등의 5개 문화권에 총 1346억8490만9천원을 들여 보수하였다. 그 중 백제문화권에는 총 589억5513만5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43.7%에 달하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다. 이것은 경주중심의 신라문화권 개발이 거의 마무리된 후였으므로 비교적 백제문화권 개발에 많은 예산을 세울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업건수로 보아도 전체 457건 중 150건에 달하여 33%를 차지한다(표 2 참조).

백제문화권 보수사업의 내용을 보면 87~96년 사이에 서울 4건, 공주지역 19건, 부여지역 17건, 익산지역 9건 등이다(주제별로 분류한 사업의 건수). 사업비의 구성은 총 액수 937억4513만5천원 중 서울지역 301억2170만원, 공주지역 187억8364만1천원, 부여지역 262억4789만3천원, 익산지역 185억9190만1천원으로 각각 전체 예산의 32%, 20%, 28%, 20%를 차지한다. 이를 보면 서울지역의 문화재 보수가 단기간에 대규모의 사업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나머지 지역은 기간이 길더라도 사업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연차적으로 길게 끌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사업별 규모를 보면 석촌동 고분군 정비 168억원, 미륵사지 162억원, 부소산성 99억원, 공산성 80억원 등의 순이며, 기간으로는 석촌동이 2년이고 나머지는 10년 전 기간동안 투자한 금액이다(표 5 참조).

문화권 개발이라는 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의 내용을 보면 유적의 주변을 정화·정비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가장 사업의 규모가 큰 석촌동 고분군 정비를 보면 사유지 매입과 시설비, 발굴조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의 주체는 광역의 문화권 정비 또는 개발이지만 실제 내용은 역사적인 문화재의 정비가 전부이다. 이런 내용을 보면 문화권 개발과는 아직 거리가 먼 부분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III. 문제점과 전망

문화권 개발이 가지는 두가지 의미는 윤교수가 지적한 대로 문화재를 잘 보존하므로서 민족문화

의 창달을 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광사업과 지역개발이라는 경제적인 개발이다. 그런데 이 두가지 보존과 개발이라는 두가지 측면은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하기 쉬운 부분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문화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을 머리에 떠올리기 쉽지만 무형의 문화재도 많이 있고, 또 나아가서 땅위의 문화재가 아니라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매장문화재도 많다. 그런데 비가시적인 문화의 재산은 쉽게 평가할 수 없는 약점이 있어 자칫하면 개발의 성급함 때문에 소홀히 하기 쉬운 단점이 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단이나 도로, 항만의 건설 공사에는 필연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거나 파악되지 않은 매장문화재 내지 무형문화재의 변화 내지는 파괴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그런데 개발로 인해서 마을이 없어지거나, 지하의 매장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대규모로 현상변경이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여건에서는 문화재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의 측면에서 본다면 주민들의 욕구나 경제 여건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토를 그대로 보존할 수 만은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최선의 방법은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국토를 개발하는 슬기로운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개발과 보존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명쾌한 방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단체장들의 단견이나 성급한 개발논리에 밀려 문화재가 이전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개발을 성급하게 시행하다보면 당연히 문화재가 소홀하게 취급되게 마련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더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문화재를 잃어버리게 된다.

두번째 문제는 문화재 개발을 관광수익사업과 너무 직결시킨다는 점이다. 경주개발이나 부여·공주의 예에서 보듯이 어떤 사업을 완료했다해서 단기간에 관광객이 갑작스럽게 늘어나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일은 거의 없다. 공주의 무령왕릉 발견은 우리나라 고대사나 고고학사에 하나의 획을 그을만한 대발견이었지만 공주의 관광수입이 무령왕릉 발견 때문에 갑작스럽게 증가했다고는 볼 수 없다. 지역의 문화재를 종합적으로 연계시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현명하다. 단기간의 투자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문화재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칫하면 졸속한 정비를 하게 되어 원상을 훼손하는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 수치로 계산해내기 어려운 일이지만 문화재의 보존과 조심스러운 정비 또는 개발이 가져다 주는 효과는 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가시적인 관광수입보다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문화재가 관광수입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세번째 문제는 문화권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궁극적으로는 문화재 개발 또는 정비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제까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토지매입과 주변정비, 유적보존을 위한 기본시설을 마련하는 일 이었고, 정작 문화재 정비와 개발에는 그리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못하였다. 이런 까닭은 문화재 정비나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나 시설 및 여건을 마련하지 못했던 데 있다. 따라서 문화재 정비의 기초작업을 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제까지의 문화재 정비는 點이라는 좁은 범위에서 面으로 확대하여 문화권을 광역화하는 단계에 들어 갔다. 따라서 80년대 이전까지는 단위 문화재를 보수·정비하는 소극적인 자세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문화권이라는 지역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는데 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이제까지 고고학이나 문화재 정비에 대한 기술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므로 단위 문화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또는 광역의 문화권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하는 방안이 구체화되지 못한 예가 많다. 이것은 고고학이나 백제문화에 대한 연구가 부진하여 정보가 많이 축적되지 못한 때문이다. 백제문화에 대한 발굴은 일제강점기때부터 시작되었으나 그간 학문적인 성과가 충실하지 못하여 백제문화재 개발에 접목하기가 어려웠다. 이것은 비단 백제문화권 개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적용되는 일이다. 따라서 정비나 복

원, 활용에 관한 자료들을 꾸준히 축적해가는 일이 급선무이다.

문화재는 한번 잘못 손을 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회적인 자료이므로 서둘러 잘못하기 보다는 신중하게 자료가 확보된 후에 개발하는 일이다 더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런 후속 작업으로 문화재의 발굴을 통하여 자료와 정보를 꾸준히 확보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또 그간 시행해온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보면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나 철학이 없이 계획이 수립된 듯하다. 구체적으로 공산성을 어떻게 정비하여 활용할 것인지, 정림사지를 몇 년에 걸쳐 어떤 방법으로 정비할 것인가 하는 뚜렷한 방침이 부족하다. 물론 발굴결과에 따라 유적의 정비방침이 결정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나 공주나 부여의 문화권을 포괄적으로 정비하는 기본 계획이 서 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백제문화권을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어떻게 연계시켜 개발할 것인가 하는 플랜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여기에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관광개발이나 지역개발을 위한 교통이나 환경 등 여러 부문에 걸쳐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머리에서 잠깐 지적한 대로 백제문화권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문제를 정리하지않으면 안된다. 우리도가 안고 있는 숙제는 백제 고도인 공주와 부여

지역 이외에 백제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는 다른 지역을 어떻게 권역화하여 정비하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서산 태안지역의 백제문화재라든가, 성주사를 중심으로 한 보령지방, 수덕사와 예산 화전리의 사면석불이나 임존성을 중심으로 하는 예산지역, 장곡사를 핵으로 하는 청양지방 등 다른 지방의 개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정을 참고한다면 충남 일대의 백제문화재를 중심으로 지역을 나누고 개발의 주제를 캐내어 특징있는 문화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공주나 부여 근처의 다른 시대 유적을 정비하여 부여 또는 공주의 권역에 포함하였듯이 백제시대의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뚜렷한 특징을 가진 문화재를 중심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균형있는 개발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한다면 백제문화권 개발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IV 맺음말

두서없이 몇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았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많은 미래학자들이 지적하였듯이 정보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잠재력을 계발하여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노하우를 쌓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처한 경제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재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 후손들의 앞날은 그만큼 삭막한 생활을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민족이 한지역에서 몇 천년, 몇 만년을 끊임 없이 살아내려 왔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문화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역사와 삶의 내용이 풍부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문화재가 많을수록 그 민족의 정체성은 뚜렷해지는 것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또 문화는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세대에 경제발전에 불편하다는 구실로 문화를 희생시키는 일은 역사에 커다란 오류를 범하는 일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열린충남**

〈표 1〉 중요문화권에 대한 제1차 문화재보수 3개년 실적(77~79)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예 산 액	재 원 부 담		
			국 비	지 방 비	자 체
경 주 문 화 권	41	2,612,965	2,592,965	14,000	6,000
제 주 문 화 권	18	1,665,125	1,091,574	564,038	9,513
백 제 문 화 권	7	1,062,500	975,000	87,500	-
가 야 문 화 권	7	507,600	400,300	107,300	-
계	73	5,848,190	5,059,839	772,838	15,513

자료 : 문화공보부, 第1次 文化財補修 3個年實績, 77~79년.

〈표 2〉 중요문화권 문화재 보수내역(88-96)

(단위 : 천원)

구 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백 제 문 화 권	125,335,855	133,970,570	197,390,843	206,603,823	246,845,824
신 라 문 화 권	81,421,339	41,048,926	41,587,330	72,163,471	102,160,201
가 야 문 화 권	72,033,884	63,555,993	82,961,213	143,575,483	147,830,908
중 원 문 화 권	51,680,130	41,829,517	51,166,598	91,063,175	101,514,569
영산강문화권	—	—	3198,708	10590,098	8,640,285
계	3,210,471,208	279,725,006	3913,304,692	6,013,996,050	6,618,991,787

구 분	93년	94년	95년	96년	계
백 제 문 화 권	145,480,520	168,773,425	157,239,996	177,314,279	15,058,955,135
신 라 문 화 권	133,285,710	123,354,280	103,171,563	63,171,424	7,421,364,244
가 야 문 화 권	193,284,535	195,515,707	165,062,423	134,705,709	11,638,525,855
중 원 문 화 권	7,818,854	8,875,997	8973,984	7,995,656	6,310,918,480
영산강문화권	141,228,547	91,077,284	7,726,427	3,439,843	544,901,192
계	6,714,098,166	6,419,596,693	5,617,174,393	4,616,626,911	457,134,664,906

자료 : 문화재관리국, 文化財管理年報 1-10호, 88~97년.

〈표 3〉 백제문화권 제1차 문화재보수 3개년 실적(77-79)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대 상	공 사 개 요	예산액	연도별 투입액		
				77년도	78년도	79년도
공주	송산리고분군	토지매입, 주차장 확장, 무령왕릉 정화	180,000	—	30,000	150,000
부여	부 여 박 물 관	토지매입, 담장, 석축설치	50,000	—	50,000	—
	부 소 산 성	삼층사 정화, 담장공사(부여박물관 주위)	170,000	—	—	170,000
	정 립 사 지	토지매입, 발굴조사, 능산리 고분군 정화	130,000	—	—	130,000
익산	익산미륵사지	미륵사지 및 왕궁지 토지매입, 단위문화재 정화	532,500	—	232,500	300,000
계			1,062,500	—	312,500	750,000

자료 : 문화재관리국, 1次 文化財補修 3個年實績, 77~79년.

〈표 4〉 백제문화권 제1차 문화재보수 3개년 실적(77~79)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문화재 명칭	보 수 내 역	예 산 내 역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87년	서울	석촌동 고분군	전역발굴, 4·5호분 정비, 사유지 보상(13,613평), 건물철거(19동)			16,000,000	83~87년
		방이동 고분군	4기 복원, 산책로 설치, 사유지 매입(6,028평), 건물철거(6동)			4,700,000	82~85년
		몽촌토성	성내 유구발굴조사, 토성 2,285m 보수정비·조경, 산책로·해자 설치,			2,290,000	84~87년
		암사동 선사주거지	사유지 매입(16,425평), 발굴조사, 전서관 건립(310평), 움집복원(8동)			3,740,000	81~87년
이전	공주	공산성	건물지 8개소 정비복원, 성곽보수(1,983m), 토지매입(1,518평), 토지매			1,130,000	80~87년
		송산리 고분군	입(12,575평), 건물철거(9동), 민묘이장(1,610기), 전서관 건립			1,080,000	79~87년
	부여	부소산성	토성보수(676m), 삼층사 중건, 공녀사보수, 서복사지·군창지 발굴정			2,260,000	79~87년
		정림사지	비, 건물4동 보수, 도로정비, 토지매입(2,400평), 가옥철거(113동), 주차				
88년	서울	능산리 고분군	장설치,				
		익산 미륵사지	발굴정비, 토지매입(3,728평), 담장설치, 인삼향 부지매입, 연못정비,			820,000	79~87년
		석촌동 고분군	민가철거(51동), 토지매입(18,152평), 주차장 관리소설치, 모형관 건립			1,120,000	79~87년
		방이동 고분군	토지매입(44,909평, 72~80년), 발굴조사, 유구정비, 배수로 설치			1,650,000	79~87년
89년	서울	몽촌토성	고분복원, 정문 및 매표소 건립, 담장설치(1,000m)	828,797		828,797	
		암사동 선사주거지	정문건립, 조경	200,696		200,696	
		공산성	목책설치(100m), 산책로 포장(4,600㎡), 잔디식재	1,323,831		1,323,831	
		송산리 고분군	주차장조성, 광장조성, 전서관 내부시설 안내판 및 조경	987,726	50,650	1,038,376	
89년	공주	공산성	토성보수(110m), 발굴건물지 정비	135,800	58,200	194,000	
		송산리 고분군	화장실 신축(1동 12평)	33,950	14,550	48,500	
		갑사	강당보수	48,500	48,500	97,000	

88년	부여	부소산성	관리소 설치(36평), 담장설치(186m), 화장실 건립(1동 9평), 조정 매표소 설치, 담장설치(71m), 광장포장 순환동선(510m) 조성, 자연석 계단설치(3개소), 안내판 설치 토지매입(246평), 발굴조사	455,900	195,385	651,285
		정림사지		87,300	37,414	124,714
		능산리 고분군		104,760	44,896	149,656
		백제 왕궁지		145,500	145,500	291,000
89년	익산	익산 미륵사지	발구유구 정비, 동편 배수로 석축	271,600	116,400	388,000
		공산성	토성보수(246m), 고건물 보수, 토지매입	629,500	269,786	899,286
	공주	송산리 고분군	배수로 정비, 광장포장(1287㎡)	35,000	15,000	50,000
		신관동 고분군	고분 보수, 보호책 설치	17,400	17,400	34,800
		수원사지	토지매입, 발굴조사	62,600	62,600	125,200
		장곡사	대웅전 보수	25,000	10,714	35,714
	부여	부소산성	유구정비, 고건물 보수(2동), 순환도로 포장(840m), 화장실 개축, 발굴 시굴조사, 화장실 건립(9평), 복원 기본설계	639,000	273,856	912,856
		정림사지	토지매입(2667평), 배수로 정비(110m)	100,000	42,857	142,857
		능산리 고분군	토성정비(286m)	100,000	42,857	142,857
		부여 나성	전수교육관 건립(137평)	50,000	21,428	71,428
90년	익산	은산 별신제		340,000	340,000	680,000
		익산 미륵사지	토지매입(14924평), 동탑복원 설계(1차년)	489,845	235,422	725,267
	익산	왕궁평 유적	토지매입(3460평)	100,000	42,857	142,857
		미륵산성	성곽주변 정비	3,655	3,793	7,448
	부여	공산성	건물지 정비, 발굴조사, 토지매입(1666평), 화장실2동 신축, 전기공사	950,600	407,400	1,358,000
		송산리 고분군	무령왕릉 누수방지, 고분출입문 보수, 토지매입(604평), 펜스설치	210,000	90,000	300,000
		반죽동 당간지주	당간지주 보수, 보호책 설치, 토지매입(144평)	91,500	51,500	143,000
		가척리 석탑	석탑이전정비, 보호책·배수로 설치, 토지매입(315평)	9,609.5	9,609.5	19,219
	부여	동원리 석탑	보호책 설치 등 주변정비, 토지매입(980평)	12,061	12,061	24,122
		청양 서정리 석탑	토지매입(185평)	20,000	8,571	28,571



연도	구분	문화재 명칭	보 수 내 역	예 산 내 역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90년	공주	남월사지	발굴조사	18,500	18,500	37,000	
		구룡사지	발굴조사, 토지매입(658평)	58,329.5	58,329.5	116,659	
	부여	부소산성	수형정비, 고건물 3동 보수, 발굴조사, 토지매입(842평), 건물철거(20동)	1,045,000	447,856	1,492,856	
		정림사지	토지매입(348평), 건물철거(13동)	234,387	100,452	334,839	
		능산리 고분군	토지매입(4883평), 배수로 정비(227m), 잔디광장 조성(6000㎡)	205,766	88,185	293,951	
		부여 나성	발굴(시굴)조사	8,950	3,835	12,785	
		공남지	포룡정 보수, 발굴(시굴)조사, 토지매입(1,937평)	175,897	75,385	251,282	
		성주사지	비석 보호각보수, 발굴조사, 토지매입(1,736평), 건물철거(5동)	100,000	42,857	142,857	
		대조사 석불	석불 뒷판석축 및 진입로 계단설치, 보호책과 배수로 정비	50,000	21,428	71,428	
		동남리 사지	토지매입(857평)	100,000	100,000	200,000	
	익산	미륵사지	토지매입(10,194평), 건물철거(36동), 전서관 기본설계, 동탑복원	1,572,983	674,139	2,247,132	
		왕궁평 유적	토지매입(4814평)	180,000	77,142	257,142	
	광주	미륵산성	발굴조사	30,000	30,000	60,000	
		공산성	임류각·동문건립, 서문 여장설치, 주차장 조성(660평), 발굴조사	644,367	276,157	920,524	
		송산리 고분군	외곽 보호책 설치(986m), 조경, 토지매입(216평)	201,000	86,142	287,142	
		수원사지	발굴조사, 토지매입(530평)	50,000	50,000	100,000	
91년	부여	석장리 구석기유적	토지매입(757평)	50,000	21,428	71,428	
		부소산성	토성보수(450m), 순환도로 정비(680m), 토지매입(1,656평), 발굴, 집철거	652,993	262,285	915,278	
	부여	정림사지	석불보호각 건립(1차)	210,000	90,000	300,000	
		능산리 고분군	잔디광장 조성(2,000㎡), 화장실신축, 토지매입(2,330평)	165,550	70,949	236,499	
		부여 나성	토지매입(3,249평), 발굴조사	170,950	73,264	244,214	
		공남지	토지매입(1,488평), 발굴조사	130,000	55,714	185,714	



	성황산성	성곽보수(67.5m) 토지매입(447평)	52,500	22,500	75,000
부여	동남리 사지	담강정비(200m), 주차장지역 정비, 건물철거지 정비, 발굴조사	100,000	100,000	200,000
	성주사지	발굴조사, 유구정비 등 주변정리	104,000	44,571	148,571
	용정리 사지	발굴조사	27,500	27,500	55,000
	초촌 지석묘	발굴조사	15,000	15,000	30,000
91년	미륵사지	동탑복원, 전시관 설계, 발굴조사	1,639,103	656,047	2,295,150
	왕궁평 유적	토지매입(250평), 발굴조사	199,750	21,428	221,178
	제석사지	시굴조사, 토지매입(200평)	33,155	33,354	66,509
	지토성	발굴조사, 토성 정비	66,309	66,707	133,016
	태봉사지	삼성각 이축	34,300	34,300	68,600
	석불사지	담장설치	25,000	25,000	50,000
	공산성	발굴지 3개소 정비, 순환도로정비(1,424m), 토지매입(681평), 임류각 정비	500,000	214,285	714,285
92년	송산리 고분군	경내조경, 화장실 1동철거, 토지매입(174평)	120,000	51,428	171,428
	수원사지	발굴지유구정비, 토지매입(341평)	50,000	50,000	100,000
	석장리 구석기유적	발굴조사, 토지매입(431평)	100,000	42,857	142,857
	반죽동 당간지주	토지매입(151평), 건물철거(1동)	150,000	64,285	214,285
	남혈사지	발굴지정비, 토지매입(881평)	40,000	40,000	80,000
	구룡사지	발굴조사, 토지매입(259평)	40,000	40,000	80,000
	서혈사지	발굴지 정비, 토지매입(780평)	50,000	50,000	100,000
	청양 서장리 석탑	석탑주변 정리, 진입로 정비, 광장 조성	50,000	21,428	71,428
	부소산성	토성보수(455m), 순환도로 정비(528m), 산성정비, 발굴, 토지매입(165평)	544,511	213,550	758,061
	정림사지	석불보호각(1차)	250,000	107,142	357,142
부여	능산리 고분군	경내조경, 옹관묘 1기 제작, 시굴조사	100,000	42,857	142,857
	부여내성	발굴조사	36,100	15,471	51,571



연도	구분	문화재 명칭	보 수 내 역	예 산 내 역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92년	부여	공남지	발굴조사, 토지매입(2919평)	304,298	130,413	434,711	
		성흥산성	성곽보수(31m)	70,000	30,000	100,000	
		성주사지	발굴조사, 담장정비(162m), 진입계단 설치(1개소)	100,000	42,857	142,857	
		송국리 선사유적	토지매입(1134평), 건물철거(5동)	91,316	39,136	130,452	
		동남리 사지	발굴조사, 토지매입(242평)	100,000	100,000	200,000	
	익산	천왕사지	발굴조사, 발굴지 정비	50,000	50,000	100,000	
		미륵사지	전시관 건립(1차년도)	1,477,654	574,285	2,051,939	
		왕궁평 유적	토지매입(2103평)	366,237	85,714	451,951	
		미륵산성	동문지 및 옹성정비	50,000	50,000	100,000	
		익산 쌍릉	주차장 조성, 능주변 정비	35,000	15,000	50,000	
93년	공주	제석사지	시굴조사	50,000	50,000	100,000	
		공산성	임류각 동문단청 순환로정비204m, 화강실 신축 1동, 배수로 설치(224m)	405,000	173,571	578,571	
		석장리 구석기유적	전시관건립 설계, 전시프로그램 작성, 토지매입(6013㎡)	172,000	73,714	245,714	
		반죽동 당간지주	토지매입	80,000	34,285	114,285	
		구룡사지	토지매입(458㎡), 발굴조사	109,200			
	부여	부소산성	토지매입7602㎡, 건물철거 6동, 토성보수1620m, 수로정비(478m), 영정제작	590,000	252,857	842,857	
		정림사지	석불보호각 건립(2차), 주차장 조성(4278㎡), 옹벽철거(36m)	422,867	181,228	604,095	
		부여나성	발굴조사, 발굴유구 정비	135,000	57,857	192,857	
		공남지	토지매입(4869㎡)	110,000	47,142	157,142	
		성흥산성	성곽보수(38m)	76,000	32,371	108,371	
	송국리선사 유적	성주사지	발굴조사 토지매입(1,950㎡), 건물철거 2동	86,000	36,857	122,857	
		송국리선사 유적	토지매입(5,500㎡), 건물철거 1동	77,000	33,000	110,000	
		동남리 사지	토지매입(1,515㎡), 보호책 설치(329m), 홍관매설(50m)	83,000	83,000	166,000	

93년	익산	미륵사지 왕궁평유적	보호각 건립(3동), 우회도로 신설(623m), 전시장 주변정리, 토지매입(6,401㎡)	1,400,000	600,000	2,000,000
		공산성	토지매입(2,414㎡), 성곽보수(125m), 가로등 설치(73개소)	420,000	180,000	600,000
공주	석정리 구석기유적 송산리 고분군 동성왕릉지 반죽동 당간지주 구룡사지	석정리 구석기유적	토지매입(7,914㎡)	225,000	96,428	321,428
		송산리 고분군	토지매입(4,427㎡), 무령왕릉 공기정화기 보수, 비공개 고분 보수	650,000	278,571	928,571
		동성왕릉지	추정 동성왕릉지 탐사	150,000	150,000	300,000
		반죽동 당간지주	토지매입(482㎡), 건물철거(3동)	205,000	87,857	292,857
		구룡사지	토지매입(2,106㎡)	76,000	76,000	152,000
		부소산성	토지매입(7,439㎡), 건물철거 2동, 화장실신축 1동, 화장실 변화 보수	451,699	193,586	645,285
부여	정림사지 부여 나성 공남지 성흥산성 성주사지 송국리 선사유적 백제역사재현단지	정림사지	舊인삼창지 정비, 화장실 신축 1동, 주차장 조성(4278㎡)	511,000	219,000	730,000
		부여 나성	발굴조사	79,200	33,940	113,140
		공남지	토지매입(9,137㎡), 연지준설, 목교보수	366,101	156,901	523,002
		성흥산성	성곽보수(185m), 잔디식재(185㎡)	32,000	13,714	45,714
		성주사지	발굴조사, 건물지 정비(금당 삼천불전 서회랑지), 담장정비	210,000	90,000	300,000
		송국리 선사유적	토지매입(3,360㎡)	63,000	27,000	90,000
익산	왕궁평유적	백제역사재현단지	실시설계	1,000,000	1,000,000	2,000,000
		미륵사지	토지매입(1,418㎡), 우회도로 포장, 전시장 전시기설	1,100,000	471,428	1,571,428
공주	공산성 석정리 구석기유적 송산리 고분군 동성왕릉지 반죽동 당간지주 구룡사지	왕궁평유적	토지매입(6,638㎡)	112,000	48,000	160,000
		공산성	토지매입(6,404㎡)	525,000	225,000	750,000
		석정리 구석기유적	토지매입(6,414㎡), 전시장 건립(기초공사)	550,000	235,714	785,714
		송산리 고분군	주차장 조성	350,000	150,000	500,000
		동성왕릉지	추정동성왕릉지 탐사	70,000	70,000	140,000
		반죽동 당간지주	토지매입(638㎡), 건물철거	425,000	182,142	607,142
95년	익산	구룡사지	토지매입(2,390㎡)	100,000	100,000	200,000



연도	구분	문화재 명칭	보 수 내 역	예 산 내 역		비 고
				국 비	지방비	
95년	부여	부소산성	토지매입(959㎡), 건물철거 6동, 고란사암 정비, 장목제기	503,000	215,571	718,571
		정림사지	관리사 신축 1동, 가로등 설치(33개소), 사주문 담장설치, 조정	500,000	214,285	714,285
		부여내성	토지매입(11,041㎡), 발굴조사(1,500평)	300,000	128,571	428,571
		궁남지	토지매입(2,302㎡), 호안석축 정비, 목교단청	100,000	42,857	142,857
		성흥산성	성곽보수(13m), 잔디식재(130㎡)	40,000	17,142	57,142
		성주사지	발굴조사 관리사 및 화장실 신축	210,000	90,000	300,000
	익산	송곡리 선사유적	토지매입(13,050㎡)	60,000	25,714	85,714
		미륵사지	전서관 전시시설, 조정공사, 주차장 조성	1,155,000	495,000	1,650,000
		왕궁리 5층석탑	토지매입(8,313㎡), 수목 247주 식재	112,000	48,000	160,000
		공산성	토지매입(5,616㎡), 건물2동	640,000	274,285	914,285
96년	공주	석장리 구석기유적	전서관 건립(기초공사)	600,000	257,142	857,142
		송산리 고분군	무령왕릉 및 5 6호분 정밀조사	320,000	137,142	457,142
		반죽동 당간지주	토지매입, 건물철거 3동	430,600	184,542	615,142
		구룡사지	토지매입(2,300㎡)	100,000	100,000	200,000
		주미사지	토지매입(4,560㎡), 발굴조사	125,000	125,000	250,000
		동월사지	발굴조사	30,000	30,000	60,000
	부여	제 · 라회맹지	시굴조사	15,000	15,000	30,000
		부소산성	토지매입(901㎡) 건물 및 지장물 21동 매입철거, 담장설치(73m)	545,800	233,914	779,714
		나성	토지매입(41,42㎡), 토성보수(28m), 발굴조사(335㎡)	310,000	132,857	442,857
		궁남지	토지매입(6,286㎡)	210,000	90,000	300,000
	부여	성흥산성	건물매입, 철거1동, 남문지 발굴조사	50,000	21,428	71,428
		송곡리 선사취락지	토지매입(13,050㎡), 발굴조사	64,600	27,685	92,285
		왕흥사지	토지매입(1,055㎡)	30,000	30,000	60,000

96년	부여 성주사지	담장보수(271m), 발굴지, 경비	230,000	98,571	328,571
	미륵사지	정문 배포소건립 1동, 화장실 건립 1동, 담장설치(637m), 조경(5,170주)	1,179,000	505,285	1,684,285
	익산 왕궁리 5층석탑	토지매입(7,062㎡)	120,000	51,428	171,428

자료 : 문화재관리국, 文化財管理年報 1-10호, pp88-97.

〈표 5〉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연도별 진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문화재 명칭	870이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계
부여	부소산성	2,260,000	651,285	912,856	1,492,856	915,278	758,061	842,857	645,285	718,571	779,714	9,976,963
	정림사지	820,000	124,714	142,857	334,839	300,000	357,142	604,095	730,000	714,285		4,127,932
	능산리 고분군	1,120,000	149,656	142,857	293,951	236,499	142,857					2,085,820
	백제 왕궁지		291,000									291,000
	부여 나성			71,428	12,785	244,214	51,571	192,857	113,140	428,571	442,857	1,557,423
	공남지				251,282	185,714	434,711	157,142	523,002	142,857	300,000	1,994,708
	성주사지			142,857	142,857	148,571	142,857	122,857	300,000	300,000	328,571	1,485,713
	대조사 석불				71,428							71,428
	동남리 사지				200,000	200,000	200,000	166,000				766,000
	근산 불신제			680,000								680,000
	성흥산성					75,000	100,000	108,371	45,714	57,142	71,428	457,655
	용정리 사지				55,000							55,000
	초촌 지석묘				30,000							30,000
	송곡리 선사유적						130,452	110,000	90,000	85,714	92,285	508,451
	천왕사지						100,000		2,000,000			100,000
	백제역사재현단지										60,000	2,000,000
	왕흥사지											60,000
	소 계											26,247,893

구분	문화재 명칭	87이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계
익산 지역	미륵사지	1,650,000	388,000	725,267	2,247,132	2,295,150	2,051,939	2,000,000	1,571,428	1,650,000	1,684,285	16,263,201
	왕궁평유적			142,857	257,142	221,178	451,951	128,571	160,000			1,361,699
	미륵산성			7,448	60,000		100,000					167,448
	제석사지					66,509	100,000					166,509
	저토성					133,016						133,016
	태봉사지					68,600						68,600
	석불사지					50,000						50,000
	익산 쌍릉						50,000					50,000
	왕궁리 5층석탑									160,000	171,428	331,428
	소 계											18,591,901
계		34,790,000	5,335,855	3,970,570	7,390,843	6,603,823	6,845,824	5,480,520	8,773,425	7,239,996	7,314,279	93,745,135

주 : <표 4>를 재편집

<표 6> 지역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내용(87~96)

구분	서 울	공 주	부 여	익 산	계
87년	石村洞고분·芳莢洞고분·蒙村토성·岩寺洞지리·風納土城(5건)	公山城·宋山里고분·中嶽壇·上莘里당간지주·麻谷寺대웅전 및 대광보전·청양 삼존석불(6건)	부소산성·정림사지·능산리고분·長鞭里삼층석탑·무량사극락전·雙北里 窯址·성주사지(7건)	미륵사지·익산토성·東古都里石佛·김제벽골제(4건)	22
88년	암사동 집자리·방이동·석촌동고분·몽촌토성(4건)	공산성·송산리고분·감사(3건)	부소산성·정림사지·능산리고분·백제왕궁지(4건)	미륵사지(1건)	12
89년		공산성·송산리고분·新官洞고분·水源寺址·長谷寺(5건)	부소산성·정림사지·능산리고분·부여나성·은산별신제(5건)	미륵사·왕궁평·미륵산성(3건)	13
90년		공산성·송산리고분·班竹洞당간지주·공주加尺里석탑·공주東院	부소산성·정림사지·능산리고분·부여나성·공남지·성주사	미륵사지·왕궁평유적·미륵산성(3건)	19

90년	리석탑 · 청양西亭里석탑 · 南穴寺址 · 九龍寺址(8건)	지 · 大鳥寺石佛 · 東南里寺址(8건)		
91년	공산성 · 송산리고분 · 수원사지 · 石壯里구석기유적(4건)	부소산성 · 정림사지 · 능산리고분 · 부여나성 · 공남지 · 聖興山城 · 동남리사지 · 聖住寺址 · 龍井里寺址 · 草村支石墓(10건)	미륵사지 · 왕궁평유적 · 帝釋寺址 · 저토성 · 胎峰寺址 · 石佛寺址(6건)	20
92년	공산성 · 송산리고분 · 수원사지 · 석장리 구석기유적 · 班竹洞당간지주 · 남혈사지 · 구룡사지 · 서혈사 · 청양 서정리 석탑(9건)	부소산성 · 정림사지 · 능산리고분 · 부여나성 · 공남지 · 성흥산성 · 성주사지 · 松菊里선사유적 · 동남리사지 · 天王寺址(10건)	미륵사지 · 왕궁평유적 · 帝釋寺址 · 龍井里寺址 · 石佛寺址(5건)	24
93년	공산성 · 石壯里구석기유적 · 반죽동 당간지주 · 구룡사지(4건)	부소산성 · 정림사지 · 부여나성 · 공남지 · 성흥산성 · 성주사지 · 송국리선사유적 · 동남리사지(8건)	미륵사지 · 왕궁평유적(2건)	14
94년	공산성 · 石壯里구석기유적 · 송산리고분 · 東城王陵址 · 班竹洞당간지주 · 구룡사지(6건)	부소산성 · 정림사지 · 부여나성 · 공남지 · 성흥산성 · 성주사지 · 송국리선사유적 · 백제역사체험단지(8건)	미륵사지 · 왕궁평유적(2건)	16
95년	공산성 · 石壯里구석기유적 · 송산리고분 · 동성왕릉지 · 班竹洞당간지주 · 구룡사지(6건)	부소산성 · 정림사지 · 부여나성 · 공남지 · 성흥산성 · 성주사지 · 송국리선사유적(7건)	미륵사지 · 왕궁리오층석탑(2건)	15
96년	공산성 · 석장리 구석기유적 · 송산리고분 · 반죽동 당간지주 · 구룡사지 · 舟尾寺址 · 동혈사지 · 濟羅會盟地(8건)	부소산성 · 부여나성 · 공남지 · 성흥산성 · 송국리선사유적 · 왕흥사지 · 성주사지(7건)	미륵사지 · 왕궁리오층석탑(2건)	17
계	9	59	74	30
				172

자료 : 문화재관리국, 文化財管理年報 1~10호, 88~97년.



百濟史 研究의 現況과 課題

신 형 식 (申澄植)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 I. 百濟史 研究의 方向
- II. 百濟史 研究의 現況
- III. 百濟史 研究의 課題

I. 百濟史 研究의 方向

百濟史 研究는 新羅史(남한)나 高句麗史(북한)의 연구에 압도되어 최근까지도 활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현존 문헌의 한계와 考古 美術史의 발굴위주로 백제사 연구는 편향적인 연구 성과를 남기게 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업적은 우선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해

서 이룩되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백제사에 대한 연구는 신라사나 고구려사에 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일본인들에 의해 먼저 시도되었다. 그런데, 그들이 연구에 이용한 일본문헌(『日本書紀』)은 『三國史記』와 내용에 있어서 현격한 차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일본문헌 위주의 역사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처음부터 歪曲된 百濟史를 정립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인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왜곡된 백제연구를 진행한 것은 백제연구가 순수한 학술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정치적 의도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인데, 그들의 이러한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이 소위 任那日本府說이다. 다시 말해서 百濟史라는 것은 '任那日本府의 지배하에 他律의로 유지된 歷史'라는 것인데, 이러한 歪曲된 백제사를 꾸며내기 위해서 그들은 백제 初期史를 부정하기까지 이르렀다. 『三國史記』의 내용 대신 『日本書紀』의 기록을 취신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三國史記』에 기록된 백제 초기 역사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백제 초기사에 대한 이러한 불신은 津田左右吉・今西龍으로부터 시작되어¹⁾ 末松保和를 거쳐²⁾ 井上 秀雄 및 鬼頭清明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일관된 논지로 계승되었다³⁾. 일본인들이 이렇게 조곡된 百濟像을 만들어 낸 것은 「日本書紀」와 같은 일본문헌의 적극적인 해석과 반대로 「三國史記」 초기 기록에 대한否定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백제사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잘못된 百濟史像은 점차 바로잡혀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金元龍의 경우에는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三國史記」 초기 기록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함으로써⁴⁾ 백제 초기사 연구에 새로운 轉機를 마련함과 동시에 일본인 학자들의 百濟史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警鐘을 울렸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公州에서 武寧王陵이 발굴되고, 거기에서 출토된 誌石의 내용이 「三國史記」의 기록과 합치됨으로써 「三國史記」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결

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⁵⁾. 千寬宇와 李鍾旭의 초기 백제사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百濟史像의 정립은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⁶⁾.

이러한 사실은 문헌사학의 입장에서만 제기된 것이 아니다. 고고학의 입장에서 백제 초기 기록을 한강유역의 고고학 자료와 결부시킴으로써 백제의 건국 시기 및 초기의 영역에 대한 확인 작업이 이루어졌다⁷⁾.

이렇게 문헌사학과 고고학적인 입장에서 「三國史記」 초기 기록에 대한 신빙성이 입증됨에 따라 종래에 일본인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되었던 任那日本府에 대한 새로운 견해도 제시되었다. 任那日本府에 대한 체계적인 비판은 千寬宇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日本書紀」와 「三國史記」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사료비판을 통해 任那日本府를 결국 伽耶地方에 과견된 백제의 軍司令部와 같은 것으로 보고, 이것이 6세기경 晉州일대에 설치되었

1) ① 津田左右吉, “百濟に關する日本書紀の記載”,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8, 1921.

② 今西龍, 百濟史研究, 1934.

2)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1949.

3) ① 井上秀雄, 任那日本府と倭, 1978.

② 鬼頭清明, “任那日本府の檢討”, 日本古代國家の形成と東アジア, 1976.

4) 金元龍, “三國時代 開始에 關한 一考察”, 東亞文化 7, 1967.

5) 申澄植, “三國史記의 編纂과 研究成果”, 三國史記研究, 一潮閣, 1981.

6) ①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下), 韓國學報 3, 1976.

② 李鍾旭, 百濟 初期史 研究史料의 性格, 百濟研究 17, 忠南大百濟研究所, 1986.

③ _____, 百濟의 國家形成, 大邱史學 11, 1976.

④ _____, 百濟王國의 成長, 大邱史學 12・13, 1977.

7) ① 崔夢龍・權五榮, “考古學的 資料를 통해 본 백제 초기의 領域考察”, 千寬宇先生 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1985.

② 崔夢龍, “漢城時代 百濟의 都邑地와 領域”, 震檀學報 60, 1985.

다고 보았다⁸⁾. 金鉉球 역시 任那日本府를 백제가 久禮山 부근에 설치한 기관으로 보고, 그곳에 파견된 官人이 大和政權의 氏姓을 갖고 있던 일본계 백제관료이기 때문에 日本府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⁹⁾.

최근에 가야의 故地에서 발굴되고 있는 풍부한 고고학적 자료는 가야문화의 실체를 분명히 보여줌과 동시에 문헌사학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하고 있어 日帝皇國史觀의 관념적 무기였던 任那日本府의 虛構性은 점점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되자 국내 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발맞춰 일본인 학자 스스로의 연구 방향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井上秀雄은 스스로 任那日本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고¹⁰⁾, 鬼頭清明도 任那日本府에 官人을 파견한 주체가 大和政權이 아니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뒤를 이어 請田正幸, 奥田尙, 山尾幸久, 大山誠一, 鈴木靖民, 鈴木英夫 등도 任那日本府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외세의 지배를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다.

한편, 일본인 학자들은 「三國史記」의 초기 기록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미술사적인 접근으로 백제문화에 대한 많은 불교사 미술사 연구성과를 나타냈다. 즉, 일본인 학자들은 일찍부터 백제유적 발굴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일제시대부터 발굴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백제문화의 先進性 내지 優秀性을 곧바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今西龍의 「百濟史研究」(近澤書店, 1934) 이후 坂元義種의 「百濟史研究」(書房, 1978)와 같은 문헌연구보다는 輕部慈恩의 「百濟美術」(東洋美術出刊, 1946)과 「百濟遺蹟の研究」(吉川弘文館, 1971), 田村圓澄 黃壽永의 「百濟文化と飛鳥文化」(吉川弘文館, 1978), 그리고 東潮 田中俊明의 「韓國の 古代遺跡」(百濟 伽耶篇, 中央公論社, 1989) 등에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西谷正, 岡内三眞, 武末純一, 小田富士雄 등도 백제문화의 기원과 전개에 대한 수준 높은 연구를 제시하였다¹¹⁾. 그리고 백제토기¹²⁾와 백제불상¹³⁾에 대해서도 종전과 다른 새로운 견해가 제시되었고, 안정적인 연대를 갖는 標識的인 유물을 중심으로

8) 千寛宇, 復元加耶史(下), 文學과 知性 9-1, 1977.

9) 金鉉球, 大和政權의 對外關係研究, 1985.

10) 井上秀雄, 任那日本府의 再檢討, 吉川弘文館, 1978.

11) 西谷正, “百濟前期古墳의 形成過程”, 百濟文化 13, 1980.

岡内三眞, “百濟武寧王陵と南朝墓의 比較研究”, 百濟研究 11, 1980.

武末純一, “百濟初期의 古墳”, 鏡山猛先生古稀論叢, 1980.

小田富士雄, “百濟古墳의 系譜”, 馬韓·百濟文化 7, 1984.

12) 藤澤一夫, “百濟의 土器”, 世界陶磁全集 13, 1955.

小田富士雄, “西日本發見百濟系土器”, 百濟文化 10, 1977.

_____, “四世紀의 百濟土器”, 藤澤一夫先生古稀論叢, 1982.

백제토기 편년체계가 새롭게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들 연구는 결국 日本古墳, 佛像, 土器 등에 있어서 백제문화와의 관련에 주목함으로써 일본 고대 문화에 있어서 백제의 역할을 부각시킨 것이다¹³⁾.

한편, 한국의 경우도 백제사 연구는 연구자의 부족과 연구의 편향성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1971년 武寧王陵의 발굴로 새로운 轉機를 맞게 되었다. 백제고분 연구에 있어서 武寧王陵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으며¹⁴⁾, 아울러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삼국시대 여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의 편년을 가능케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백제문화의 조사와 연구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한 계기가 되었다. 더구나 公州大學校의 百濟文化研究所(「百濟文化」), 忠南大學校의 百濟研究所(「百濟研究」), 그리고 圓光大學校의 馬韓·百濟文化研究所(「馬韓·百濟文化」)의 경쟁적인 연구와 국제학술 활동은 백제사 연구의 커다란 촉진제가 되었다. 또한 百濟文化開發研究院의 재정적 지원과 연구·발굴사업은 낙후된 백제사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백제지역의 많은 발굴과 자료 개발은 신라·고구려

사 연구에 비하여 많은 연구축적을 가능케 한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연구소는 정기적인 국제학술회의와 연구자의 발굴지원을 통해 백제의 역사와 그 문화의 성격을 국제적 안목에서 추구하고 있음은 높이 평가된다.

이러한 백제사 연구의 활성화에 촉진제가 된 것은 洪思俊, 金元龍, 金永培 등 선구적인 노력과 黃壽永, 秦弘燮, 尹武炳 등의 뒷받침으로 고고·미술사 분야의 성과가 이룩되면서 부터이다. 이어 鄭永鎬, 金正基, 金三龍, 全榮來 등에 의한 연구시야의 확대와 安承周, 成周鐸, 朴容煥, 姜仁求, 金煥泰, 洪植 등의 전문적인 천착으로 백제사는 그 연구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趙由典, 崔夢龍, 車勇杰, 朴永福, 李南奭 등 새로운 전문연구자들은 문헌과 고고학을 접목시켜 백제사를 정립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百濟文化開發研究院의 지원과 湖南, 湖西地方의 활발한 발굴로 백제사 연구에 폭을 넓히게 된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시기에 이룩된 성과는 金基雄의 「百濟의古墳」(1976), 金三龍의 「益山文化圈의 研究」(1977),

13) 大西修也, “百濟石佛坐像考”, 佛教藝術 107, 1976.

久野健, “百濟佛像の服制とその源流”, 百濟研究 특집호, 1982.

14) 申澄植, “百濟史研究의 成果와 展望”, 百濟史 19, 梨大出版部, 1992.

15) 齊藤忠, “百濟武寧王を中心とする古墳群の編年の序列とその被葬者に關する一試考”, 朝鮮學報 81, 1971.

口隆康, “武寧王陵出土鏡と七字鏡”, 史林 55-4, 1972.

大谷光男, “百濟武寧王陵·同王妃의 墓誌에 보이는 曆法에 대하여”, 考古美術 119, 1973.

岡内三眞, “百濟武寧王陵と南朝墓の比較研究”, 百濟研究 11, 1980.

尹武炳, “武寧王陵 및 宋山里 6號墳의 塼築구조에 대한 考察”, 百濟研究 5, 1974.

安承周, “百濟古墳의 研究”, 百濟文化 7·8합집, 1975.

姜仁求의 「百濟古墳研究」(1977), 金東旭의 「百濟의 服飾」(1985), 成周鐸의 「百濟城址研究」(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85), 金煥泰의 「百濟佛教思想研究」(1986), 張慶浩의 「百濟寺刹建築」(1991), 그리고 尹武炳의 「百濟考古學研究」(1992) 등이다. 그의 대표적인 발굴 보고서로서는 「武寧王陵」(문화재관리국, 1973), 「夢村土城」(서울대박물관, 1988), 「公山城」(안승주, 1982), 「定林寺」(윤무병, 1981), 「彌勒寺址發掘報告書」Ⅰ·Ⅱ(문화재연구소, 1989·1996)와 「百濟初期 文化의 考古學的 再照明」(한국고고학연구회, 1987) 등이 있다. 그의 百濟文化開發研究院의 「百濟瓦塼圖錄」(1983)과 「百濟土器圖錄」(1984) 등이 있어 이 방면의 연구에 도움이 된다. 특히 尹武炳의 「百濟考古學研究」는 漢江流域, 武寧王陵, 百濟의 都城에 대한 발굴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姜仁求의 「百濟古墳研究」는 백제고분의 起源과, 特徵을 심층적으로 재조명한 역저이다.

그러나 최근에 백제사 연구에 활력소가 된 것은 고고학적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문헌사학의 성과를 정리한 단행본의 출간이다. 盧重國의 「百濟政治史研究」(一潮閣, 1988)는 국가형성 과정과 지배세력의 변천 및 통치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백제 정치사의 시대구분을 꾀한 것이다. 이어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6 (1995)는 백제의 성립과 발전·변천, 대외관계 및 정치·사회·경제구조를 밝힌 것으로 權五榮, 梁起錫, 金周成, 俞元載, 盧重國, 權兌遠 등이 집필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小壯世代가 백제사연구를 주도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최근에 李基東의 「百濟史研究」(一潮閣, 1996)는 저자의 백제관련 논문집으로 백제사의 특성, 馬韓의 백제로의 이행과정, 정치·사회, 대외관계 등을 집중으로 다루어 백제사 연구의 지평을 넓혀주었다. 특히 盧重國과 李基東의 저서는 백제의 성장과정이나, 권력구조 및 대외관계의 해명에 있어서 새로운 계기를 열어준 역작으로 평가된다. 한편 俞元載의 「中國正史百濟傳研究」(學研文化社, 1993)는 중국문헌에 나타난 百濟相을 총정리하여 백제사의 모습을 부각시킨 것으로 이 방면 연구에 큰 도움을 준다.

백제사의 대중화를 위한 첫시도는 崔夢龍, 沈正輔의 「百濟史의 理解」(學研文化社, 1991)이다. 이 책은 李基東, 崔夢龍, 李鍾旭, 盧明鎬, 崔秉鉉, 車勇杰, 朴永福, 梁起錫, 沈正輔, 俞元載 등 백제사 관계 전문가들의 논문을 묶어 백제사를 총람케 한 것이다. 그 후 俞元載(編)의 「百濟歷史와 文化」(學研文化社, 1996)는 백제사의 이해를 위해 주로 앞선 필자들에게 건국과정, 정치, 사회, 대외관계, 문화, 부흥운동 등을 중심으로 백제사를 쉽게 풀어 백제를 보다 알기 쉽게 우리 곁으로 오게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고구려사나 신라사와는 달리 기존 연구성과를 재정리하여 개설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노력은 고구려사나 신라사연구자들과 달리 제한된 연구성과를 대중화 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한편 필자 역시 「百濟史」(梨大出版部, 1992)에서 백제사의 성격, 「三國史記」의 문제, 시대구분과 발

전과정, 권력구조 및 대외관계, 그리고 문화 등을 정리하여 백제가 고구려나 신라에 비해 일찍 성장되었으며, 왕성한 西海支配를 통해 그 세력권을 해외로 확대한 나라였음을 밝힌 바 있다. 여기서 필자는 한일 양국의 연구성과를 비교한 후, 백제 건국과 성장의 배경이 된 한강유역의 자연조건과 역사적 배경을 찾아 보았다. 이어 중국과 한국 문헌(「三國史記」)의 내용을 비교한 후, 백제의 시대 구분과 통치구조의 특징을 신라와 비교함으로써 백제사의 성격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문헌사학의 연구는 斗溪의 개척과 李基白의 치밀한 고증방법을 거쳐 李基東, 李鍾旭, 盧重國 등으로 이어졌다. 그 후 梁起錫, 俞元載, 李道學 등으로 연결되어 주로 학위논문으로 그 성과가 나타났다.

백제사 연구에 대한 학위취득은 盧重國의 「百濟政治史研究」(서울대, 1987) 이후, 梁起錫의 「百濟專制王權 成立過程 研究」(檀國大, 1990), 金周成의 「百濟 泗沘時代 政治史 研究」(全南大, 1990), 李道學의 「百濟集權國家 形成過程 研究」(漢陽大, 1991), 俞元載의 「中國正史 百濟傳研究」(忠南大, 1993), 朴燦圭의 「百濟의 馬韓征服過程 研究」(檀國大, 1995), 李南奭의 「百濟石室墓研究」(高麗大, 1995)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梁起錫은 熊津時代와 泗沘時代의 권력구조나 왕권의 존재 형태를 심층 분석하여 백제 專制王權의 특징을 밝혀 주었으며, 俞元載는 중국문헌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백제사 연구의 안목을 국제적으로 넓혀 주었다. 또한 李道學은 「日本書紀」의 내용을 분석하여 「三國史記」내

용을 보완하는 한편, 백제의 건국과 발전과정에 鹽鐵論과 같은 새로운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李南奭은 安承周를 이어 백제고고학을 발전시키는 책임을 지고 있다.

II. 百濟史 研究의 現況

이와 같이 백제사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1년 武寧王陵의 발굴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기존 고고학·미술사 위주의 연구 성과에 힘입어 古墳, 土器, 城郭, 寺址, 佛像 등의 연구 외에 言語, 歌謠, 佛教, 彌勒思想 등 문화면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되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문헌의 한계를 극복하고 백제사를 복원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백제사 연구는 처음부터 문헌의 한계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고고학 연구 성과와 문헌과의 연계문제도 남아 있지만, 그 중에서도 目支國과 初期 都城의 位置, 王位系譜, 繼承과 王妃族, 8大 貴族의 性格, 百濟의 遼西進出, 中央과 地方官制, 百濟와 大和 倭와의 關係, 益山 別都問題, 그리고 白江口와 周留城 위치 등이 가장 대표적인 미해결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백제사 이해의 關鍵이 되는 것으로 아직도 異說과 異見이 분분하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연구와 조명이 요구된다.

우선, 백제의 첫 서울인 慰禮城(河北·河南) 문제는 春宮里 風納里 二聖 夢村土城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장이 散見되고 있으며¹⁰⁾, 目支國(馬韓)에서 백제로의 이행과도 명확한 정리가 어려운 실정이

다⁷⁾. 동시에 백제 始祖 傳說이나⁸⁾, 특히 目支國의 위치문제도 혼선이 따른다⁹⁾. 그러나 「三國史記」와 「日本書紀」의 기록 차이에서 오는 王系問題는 새로운 검토의 대상이 되었다²⁰⁾. 다만, 백제 지배세력의 변천에 대해서는 盧重國의 선구적 업적²¹⁾ 이후, 어느 정도 연구성과의 일치를 보게 되었다²²⁾. 그리

- 16) 李丙熹, “慰禮考”, 韓國古代史研究, 1981.
 金廷學, “서울近郊의 百濟遺蹟”, 鄉土서울 39, 1981.
 尹武炳, “漢江流域에 있어서의 百濟文化研究”, 제2회백제연구소국제학술대회는문집, 1974.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下)”, 韓國學報 3, 1976.
 成周鐸, “漢江流域의 百濟初期 城址 研究”, 百濟文化 14, 1984.
 車勇杰, “慰禮城과 漢城에 대하여”, 鄉土서울 39, 1981.
 崔夢龍, “考古學 資料를 통해 본 百濟初期의 領域考察”, 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 國史學論叢, 1985.
 ———, “漢城時代 百濟의 都邑地와 領域”, 震檀學報 60, 1985.
- 17) 李基東, “馬韓領域에서의 百濟의 成長”, 馬韓·百濟文化 10, 198.
 ———, “百濟 建國上の 2·3의 問題”, 百濟研究 21, 1990.
 ———, “百濟國의 成長과 馬韓의 併合”, 百濟論叢 2, 1990.
 李道學, “百濟의 起源과 國家發展에 關한 檢討”, 韓國學論集 19, 1991.
 李鍾旭, “百濟의 國家形成”, 大邱史學 11, 1976.
 金杜珍, “馬韓社會의 構造와 性格”, 馬韓·百濟文化 12, 1990.
 權五榮, “初期百濟의 成長過程에 對한 一考察”, 韓國史論 15, 1986.
 박찬규, “백제의 한각유역 정착과 발전”, 학술논총 15, 1992.
- 18) 盧明鎬, “百濟의 東明神話와 東明廟”, 歷史學研究, 1981, p.10.
 이종태, “백제 시조관념과 그 변화”, 삼국시대의 시조인식과 그 변천, 국민대 학위논문, 1996.
 金杜珍, “百濟 建國神話의 復元試論”, 國史館論叢 13, 1990.
 ———, “百濟始祖 溫祚說話의 形成과 그 傳承”, 韓國學論叢 13, 1991.
 車勇杰, “百濟의 祭天祀地와 政治體制의 變化”, 韓國學報 11, 1978.
 박찬규, “백제 구이신 성립배경”, 학술논총 17, 1994.
- 19) 李丙熹, “目支國의 位置와 그 地理”, 韓國古代史研究, 1976.
 千寬宇, “目支國考”, 韓國史研究 24, 1979.
 金貞培, “目支國考”, 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1985.
 윤내현, “목지국과 월지국”, 차문섭회갑논총, 1989.
 盧重國, “目支國에 對한 一考察”, 百濟論叢 2, 1990.
 崔夢龍, “馬韓·目支國 研究의 諸問題”, 百濟論叢 2, 1990.
- 20) 李基東, “百濟王室 交代論에 대하여”, 百濟研究 13, 1982.
 梁起錫, “百濟初期의 王位繼承과 王權의 性格”, 湖西文化研究 8, 1989.



하여 백제 정치사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큰 성과는 수도의 이동에 따른 지배세력의 변천과 정치체의 해명이다. 이에 대해서는 일찍이 이기백이 왕위계승문제에 대한 선구적인 업적²⁴⁾이 있는 이후 이것은 백제사 이해의 한 기준이 되었으며, 점차 백제 왕실 및 지배세력의 교대론으로 확대되었다²⁵⁾.

그 결과 武寧王, 聖王, 威德王대에 백제 專制王權이 본 궤도에 오름으로서 그 정치적 특성을 조명하게 되었다. 즉, 泗沘時代가 백제왕권의 專制時

期로서 일원적 행정체제와 배타적 왕족의식으로 彌勒佛國土 理想을 나타낸 시기로 파악하였다.

동시에 백제의 중앙정치 내지는 권력구조에 있어서는 貴族會議에 대한 엇갈린 해석이 있지만²⁶⁾, 중앙정치조직과 지방조직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가 보인다²⁷⁾. 특히 大輔 또는 左右輔의 경우, 그것은 3국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官制로서 고구려의 國相制, 신라의 上大等制의 실시와 같이 백제는 佐平制의 전단계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3국간의 官制에 대한 比較史的 檢討가 없어 아쉬

李道學, “漢城末 熊津時代 百濟王系の 檢土”, 韓國史研究 45, 1984.

_____, “漢城末 熊津時代 百濟 王位繼承과 王權의 性格”, 韓國史研究 50·51, 1985.

金起燮, “漢城時代 百濟의 王系에 대하여”, 韓國史研究 83, 1993.

21) 盧重國, “百濟王室의 南遷과 支配勢力的 變遷” 韓國史論 4, 1978.

22) 盧重國, “解氏와 扶餘氏의 王室交替와 初期百濟의 成長”, 김철준박사회갑기념논총, 1983.

_____, “百濟 武寧王代의 執權 強化와 經濟基盤의 擴大”, 百濟文化 21, 1991.

_____, “泗沘時代 支配勢力的 變遷” 한우근박사정년기념논총, 1981.

梁起錫, “百濟 支王代의 政治的 變遷”, 湖西史學 10, 1982.

_____, “熊津時代의 百濟 支配層” 史學誌 14, 1980.

_____, “百濟 聖王代 政治 改革과 그 性格” 韓國古代史研究 4, 1991.

_____, “百濟 威德王代 王權의 存在形態와 性格” 百濟研究 21, 1990.

_____, “百濟 專制王權의 確立” 百濟 專制王權 成立過程 研究, 1990.

李基白, “熊津時代 百濟의 貴族勢力”, 百濟研究 9, 1982.

남형중, “백제 동성왕대 지배세력의 동향과 왕권의 안정”, 북악사론 3, 1993.

金周成, “武王의 寺刹建立과 專制權力 強化”, 百濟 泗沘時代 政治史 研究, 1990.

23) 李基白, “百濟王位繼承考”, 歷史學報 11, 1959.

24) 李基東, “百濟王室의 交代論에 대하여”, 百濟研究 12, 1981.

盧重國, “解氏와 扶餘氏의 王室交替와 初期 百濟의 成長”, 金哲坡博士華甲論叢, 1985.

崔在錫, “百濟의 王位繼承”, 韓國學報 45, 1986.

25) 盧重國, “王室支配權의 強化와 5部體制”, 百濟政治史研究, 1988.

申澄植, “百濟 統治體制的 特質”, 百濟史, 1992.

사회과학원, 조선전사 4, 1991.

운 일이다. 다만, 이러한 정치조직의 발달에 배경이 된 사회 경제적 기반에 대해서는 史料의 부족으로 연구성과가 제한되었으나, 농업경제나 재정 문제 등 새로운 모색이 나타난 것은 다행이었다²⁷⁾.

끝으로 대외관계 연구는 遼西進出問題²⁸⁾와 白江戰役²⁹⁾ 및 周留城의 위치문제가 큰 과제로 남는

다³⁰⁾. 무엇보다도 중국측 문헌에 나타난 遼西進出問題는 그 구체적 사실과 유물유적의 유무를 떠나 백제인의 활발한 서해활동의 결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³¹⁾. 또한 白江口戰의 문제는 그 위치와 함께 동아시아 정세와 일본군의 성격파악이 과제이며, 특히 周留城問題는 지역 이기주의에 빠질

26) 梁起錫, “韓國古代의 中央政治”, 國史館論叢 21, 1991.

李鍾旭, “百濟의 佐平” 震檀學報 45, 1978.

——, “百濟 泗沘時代의 中央 政府組織”, 百濟研究 21, 1990.

金周成, “百濟地方統治組織의 變化와 地方司會의 再編”, 國史館論叢 35, 1992.

盧重國, “高句麗 國相制(上)”, 韓國學報 16, 1979.

——, “漢城時代 百濟의 地方統治體制”, 變態섭박사화갑기념논총, 1985.

權五榮, “4世紀 百濟의 地方統制方式 一例”, 韓國史論 18, 1988.

金英心, “5~6세기 백제의 지방통치체제”, 韓國史論 22, 1990.

朴賢淑, “百濟初期의 地方統治體制 研究”, 百濟文化 20, 1990.

27) 梁起錫, “百濟의 稅制”, 百濟研究 18, 1987.

李道學, “百濟國의 成長과 소금 交易網의 確保”, 百濟研究 23, 1993.

李昊榮, “三國時代의 財政”, 國史館論叢 13, 1990.

朴燦圭, “百濟 前期의 經濟의 成長과 統治體制의 發達”, 史學誌 28, 1995.

전덕재, “4~6세기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사회변동”, 역사와 현실 4, 1990.

28) 金庠基, “百濟의 遼西經略에 대하여”, 白山學報, 1967.

李明揆, “百濟 對外關係에 關한 一試論”, 史學研究 37, 1983.

方善柱, “百濟軍의 華北進出과 그 背景”, 白山學報 11, 1971.

俞元載, “僞虜의 百濟侵入記事”, 百濟研究 23, 1993.

申潑植, “百濟의 遼西進出문제”, 百濟史, 1992.

29) 변린석, “7세기 중엽 일본의 백강구전 파견의 성격”, 인문논총 2, 1991.

——, “7세기 중엽 백강구전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국제정세”, 인문논총 4, 1993.

——, “7세기 중엽 백강구전에 참가한 일본군의 성격”, 국사관논총 52, 1994.

——, “백강구전쟁을 통해서 본 고대 한일관계의 접점”, 동양학 24, 1994.

30) 全榮來, 留城·白江位置 比定에 關한 研究, 1976.

朴成興, 洪州 周留城考, 1994.

金在棚, 百濟 周留城의 研究, 1995.

31) 申潑植, “韓國古代의 西海交涉史”, 統一新羅史研究, 1990.

염려가 있어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그러나 都守熙의 정력적인 百濟語 研究는 그 성과와 의미는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III. 百濟史 研究의 課題

이상에서 백제사 연구를 문헌사학의 입장에서 일별하였다. 李丙燾와 李基白으로 이어진 문헌사학의 맥은 李基東에 의해서 백제사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도 결국은 고고학적인 발굴성과와 연결시킴으로서 盧重國의 시도 이후 崔夢龍, 權五榮, 李道學 등의 노력으로 본궤도에 올라섰다³²⁾. 이러한 방향은 문헌한계에 부딪힌 백제사 연구에 큰 자극제가 될 것이며, 目支國의 위치, 馬韓에서 百濟로의 발전, 백제 지배 세력의 변천, 그리고 地方制度의 해명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보다 문헌과 고고학·미술사와의 적극적인 연결과 상호보완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異說의 조정과 수정에 따른 해석의 융통성 문제이다. 目支國과 백제초기 도읍지의 위치

라든가, 佐平制度의 성격과 그 실시 시기문제, 擔魯制와 方·郡 城體制에 대한 견해차이, 백제의 遼西進出問題, 그리고 益山別都와 周留城의 위치 등 다양한 견해는 백제사 해명의 큰 과제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각기의 지역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러 주장자들의 공동연구와 토론을 거쳐 바람직한 결론 도출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셋째로 백제사 연구과제는 「日本書紀」와 「三國史記」사이의 연대나 내용의 현격한 차이를 극복하는 일이다. 과거 津田左右吉 등의 일본인에 의해서 주장된 「三國史記」 초기 기록의 불신은 백제사의 본질 파악을 어렵게 하였으며³³⁾, 千寬宇의 초기 기록 복원과 李鍾旭의 치밀한 사료비판으로 어느 정도 해명되었다고 생각된다³⁴⁾. 따라서 엄격한 사료고증과 고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극복해야 할 것이며, 신라·고구려와의 비교를 통한 거시적 해석이 바람직하다³⁵⁾. 이러한 사실은 백제의 專制王權을 신라의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륵신앙이나 불교의 이해나 益山 別都의 문제 역시 麗·羅

32) 盧重國, “百濟王室의 南遷과 支配勢力의 變遷”, 韓國史論 4, 서울大學史學科, 1978.

崔夢龍·權五榮, “考古學的 資料를 통해 본 百濟初期의 領域考察”, 千寬宇先生 還曆紀念韓國史 學論叢, 1985.

崔夢龍, “馬韓·目支國研究의 諸問題”, 百濟論叢 2, 1990.

李道學, “百濟의 起源과 國家發展過程”, 百濟 執權國家 形成過程 研究, 1991.

33) 申滢植, “日本學界의 研究成果와 問題點”, 百濟史, 1992.

34)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下)”, 韓國學報 3, 1976.

李鍾旭, “百濟初期史 研究史料의 性格”, 百濟研究 17, 1986.

申滢植, “三國史記 百濟本紀의 分析”, 한우근박사정년퇴임기념사학논총, 1981.

_____, “三國史記에 나타난 百濟社會”, 百濟研究 17, 1986.

와의 관련과 비교를 통한 접근이 요청된다.

무엇보다도 백제의 정치제도는 麗·羅와도 달랐으며, 唐의 3省6部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더구나 私臣과 宰相制가 없었고, 최고관부(内外官)에 재정담당기관이 內官에 3개(穀部·内外掠部), 외관에 2개(點口部·綱部) 등 5개나 되어 큰 비중을 가지고 있었으며, 內官기능의 다양화와 강화는 통일신라로 연결되어 內省(또는 궁정관부)의 바탕이 되었음을 주목할 일이다³⁵⁾.

끝으로 지적될 것은 백제사 연구의 국제화 보다 우선 지역사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빈번하고도 거창한 국제학술대회는 自國史 이해의 한 방편일 수도 있으나, 그 속에서 제시된 내용은 새로운 학설의 제기가 아니라 기존 내용의 요약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선 신라와 고구려와의 비교연구와 일정한 연구자의 반복된 범주를 벗어나 한국고대사의 전체 틀속에서 공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³⁷⁾. 그러므로 지역사 연구 및 향토사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역위주 관련연구소의 편협성을 극복해야 할 것이며, 상호·협조 보완의 공동연구가 요구된다. 동시에 문헌, 사상, 예술부분의 종합적인 접근도 백제사 연구의 또다른

과제가 되리라 여긴다.

한편 백제사 연구에 대한 지침이 될 목록은 백제문화개발연구원의 「百濟研究論著總覽」 1·2 (1982·1983)과 최근목의 문헌목록(「百濟文化」, 1973, p.6)이 있으며, 필자의 百濟史 研究 文獻目錄(「백제사」, 1992)으로 크게 보완되었다. 최근에 金東洙의 「韓國史論著分類總目錄」(해안, 1996)이 출간되어 이 방면의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열린중남

35) 申滄植, “신라 병부령고”, 歷史學報 61, 1974.

윤철중, 한국의 시조신화, 백산자료원, 1966.

이종태, 삼국시대의 시조인식과 그 변천, 국민대 학위논문, 1996.

36) 신라의 肉典은 백제의 肉部, 藥典은 藥部, 그리고 寺典과 采典은 功德部 등으로 연결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신형식, 백제사, 1992, p.193).

37) 이기백, “백제연구의 과제”, 백제연구 15, 1984.

이기동, “백제사의 연구”, 백제연구 15, 1984.



忠南地域 百濟遺蹟의 研究現況과 課題

이 남 석
(李南奭)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 I. 서 언
- II. 조사활동의 개관
- III. 연구현황
- IV. 문제와 과제
- V. 결 언

I. 序 言

다 아는 바와 같이 百濟는 京畿, 忠淸, 全羅 등의 地域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遺蹟 역시 이들 지역에 골고루 남아 있다. 따라서 백제 관련 고고학사적 검토는 이들 백제의 옛 지역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주제의 선정에 따라 空間적으로 충남이란 지역범위를 설정하고, 다시 百濟時代라는 時間軸 속에서 형성된 遺蹟의 研究現況과 課題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래 충남지역의 고고학 현황은 매우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석기시대는 물론 靑銅 器時代 유적의 다양성은 널리 알려진 바이고, 이후 原三國期 歷史時代에도 충남지역이 이들 시기의 力動的 歷史의 한가운데 위치하였던 관계로, 당시에 남겨진 물질 자료가 비교적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원삼국기는 馬韓의 중심지역으로, 百濟時代에는 비록 後代지만 都邑地가 자리하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유적이 적지 않게 散布되어 있다. 이들 각 시기의 유적은 기록이 매우 엉성한 현실에 비추어 당대 歷史의 究明에 중심적 역할을 차지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百濟史와 관련, 忠南地域의 입지적 현황은 늦어도 近肖古王代인 4세기 중엽에 이르면 백제 의 영역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나아가 475년 백제의 熊津 遷都는 충남지역이 백제사의

전면에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백제유적이 도처에 남아 있는 충남지역은 백제사를 그대로 온존한 지역으로 볼 수 있으면서, 이들 유적의 活用 如何 에 따라 백제사 정립에 새로운 방향이 제시된다고 볼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유적은 체계적 調査와 整理, 그리고 分析을 거쳐야만 올바른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는 文獻史學에서 역사 복원에 앞서 사료의 발굴 및 사료 비판을 거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적을 史的 資料化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유적의 자료적 有用性에도 불구하고 발굴 조사와 같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과정과 절차가 있어 기초자료의 획득에도 상당한 장애를 수반하게 된다. 다행히 최근의 고고학 활동은 그것이 순수 학술목적이 아닌 구제조사, 혹은 문화재 정비를 위한 계획조사 일지라도 數量 면에서 두드러진 증가세가 나타나 이 분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 현상으로 볼 수 있겠다. 특히 충남지역의 백제유적에 대해서는 최근 文化遺産의 계승·발전이란 측면에서 역사유적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백제문화권 개발이란 목표하에 유적의 조사·개발이 가속화 되는 현실은 비록 학술적으로 부정적 측면이 없지 않지만 고고학적 자료의 발굴이란 점에서 매우 긍정적 역할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고고학적 활동은 일제시대부터 이미 비롯되고 있지만, 편견과 왜곡이 적지 않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것이고, 해방 이후 우리의

손으로 고고학 활동이 전개됨으로써 비로소 올바른 고고학 정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고학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본격적인 조사 활동은 대체로 1970년대 이후에 가속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학문적 토양의 성장과 함께 유적 발굴 환경의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각지에서 유적조사가 가시화 되어, 이제 고고학적 학문활동도 본격적 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충남지역에서의 백제 고고학은 1971년에 武寧王陵이 발견된 이후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는데, 이후 백제문화권 개발의 추진에 따라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백제사의 중심권역으로 볼 수 있는 지역에 대한 학술조사나 문화유적 정비사업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忠南地域이란 공간에 백제라는 시간에 국한된 유적의 조사·연구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내용은 먼저 유적조사 활동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조사된 유적의 연구현황과 그 문제점을 지적하여 보고자 한다. 다만 연구현황과 문제점은 가능한 범위를 좁혀 論爭의 問題, 즉 考古學史的 문제가 아닌 유적 자체의 研究概況만이 검토하면서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추출하여 이를 토대로 추후 과제를 제시하는 정도에 국한하고자 한다.

II. 調査活動의 概觀

유적의 조사활동은 조사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검토될 수 있지만, 현장조사와 관련, 최종 단계

인 발굴조사를 기준으로 하겠다. 아울러, 활동 시기의 구분은 日帝時代, 解放後에서 武寧 王陵의 發見, 그리고 武寧王陵 發見 以後의 3시기로 구분한다.

일제시대 활동의 경우 유적조사가 순수하게 학술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는가 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지 않지만,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상당수가 이 시기에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방후 무령왕릉의 발견까지는 비록 제한 여건으로 말미암아 조사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었지만, 나름의 학문적 방법의 축적속에 이전에 일제에 의해 歪曲된 歷史像을 바로잡는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어 주목되는 시기이다.

한편 무령왕릉 이후의 시기는 백제 고고학은 물론 백제사에 대한 새로운 연구 분위기가 진작되었고, 뒤이어 백제문화권 개발이라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유적조사가 비약적으로 증대된 시기로 볼 수 있다.

일제시대 조사유적은 고분군과 사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고분은 1913년 능산리 고분군의 관찰에서, 이어 1916년과 35년·37년의 발굴로 능산리 고분군의 실상이 알려진다. 1916년의 조사는 중하층, 중상층을 비롯한 6기의 고분이 조사되면서 백제 황혈식 석실분의 전형적 형상의 파악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동하층과 같은 벽화고분의 존재가 조사됨으로서 이 고분군이 백제의 부여 도읍 시기 왕릉군으로 손색이 없음을 입증하게 된다. 이어 35년에 이들 6기의 주변 조사와 더불어 37년에는 동고분군으로 분류된 5기의 고분이 조사되고

있다. 한편 1927년에는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조사는 백제왕릉의 발견을 위하여 인근의 무릉동과 능치의 조사와 병행하여 실시되었고, 그 결과 송산리 고분군내의 1-5호분이 발굴·조사되었다. 이 조사로 송산리 고분군이 백제왕릉으로 인정되면서 이어 1932~33년에 6호 전축분 등이 확인되어 이 지역에서도 백제고분의 내용과 왕릉군의 실상이 보다 구체화 되기에 이르렀다.

사지는 1936년에서 43년까지 진행되었는데, 36년 부여 군수리 사지의 조사로 유명한 남석제 불좌상의 수습이 이루어지고, 百濟 伽藍의 기본적인 형상 파악이 이루어진다. 이어 규암리 사지가 같은 해에 조사되고, 38년에는 가탑리 사지, 동남리 사지가 발굴되면서 동남리 사지는 탑지가 목탑지의 형상으로 확인되는 등의 백제 가람의 이해 폭이 넓어진다. 한편 1942년에는 부소산성의 서편 기슭에 위치한 서복사지가, 43년에는 정림사지가 발굴·조사되나 이 중에 정림사지는 보고서가 미간인 형태로 남아 있었다.

일제시기 조사내용을 종합하면, 부여지역에 집중되면서 古墳과 寺址만 중점적으로 조사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조사지역의 편중은 王都와 같은 특정 지역에 유적이 밀집되었다는 원인도 있겠지만, 조사목적이 고분의 유물자료에 보다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부여지역의 寺址에 대한 집중적 조사는 일본의 고대 불교와 관련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들 외에 日人 가루베(輕部慈恩)의 유적조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공주에 거주한 인연으로

유적에 대한 폭넓은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는데, 부정적 평가가 없지 않지만, 공주지역의 백제유적에 대한 폭넓은 현황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주목될 수 있다.

해방 이후 무령왕릉이 발견되기까지, 즉 50~60년대는 유적조사가 본격적으로 우리의 손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는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내용에서는 상당한 빈약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해방과 더불어 나타난 정치·사회적 혼란, 이어 전개된 50년대의 전쟁기의 혼란 속에 고고학 활동이 거의 중단 상태에 있었던 것은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이 시기 충남지역에서의 유적조사는 50년대는 거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며, 다만 60년대에 이르러 간헐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간추려 보면 1962년의 부여 동남리 와요지, 1964년 금강사지와 임강사지의 조사, 1966년 공주 시목동 고분조사, 1969년의 공주 서혈사지, 그리고 서산 명지부락 고분조사 등을 들 수 있다.

결과 동남리 와요지는 백제시대 기와 생산시설의 검토를 위한 기초 자료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금강사지와 임강사지는 백제사찰을 검색하기 위한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69년에 전개된 공주 서혈사지의 조사는 공주지역의 백제사찰 조사에 목적이 있었으나 조사결과 백제와 관련된 유적은 검출되지 않았으면서 그대로 백제사찰로 인정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 시기의 조사는 조사량에서 절대적 부족이 확인되나 내용은 주목될 수 있는 것이 많다. 그리

고 마암리 백제토기관 조사라던가 공주·부여지역에서 간헐적으로 발견되는 고분에 대한 수습 조사도 조사내용에 추가할 수 있다.

60년대를 지나 70년대, 특히 1971년 무령왕릉 발견은 백제사나 백제 고고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마련하는 轉機를 마련한다. 무령왕릉이 지닌 정보의 폭발성이라던가 문화재적 가치로 말미암아 이전에 거의 침체를 면치 못하던 분위기를 일신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유적조사 현황을 보면 70년대는 이렇다 할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백제사, 백제 고고학 관련 연구기관이 마련되고 왕릉 발견과 함께 백제 문화재에 대한 국가적 인식이 크게 부각되었음에도 유적조사의 본격적 활동은 전개되지 않는다.

반면에 충남 이외의 지역에서는 조사활동이 비교적 활발한데, 예를 들어 1974년 익산 미륵사지 東塔址의 조사, 서울 잠실 지구의 백제유적 조사, 김제의 碧骨堤 조사, 석촌동 고분군의 조사, 익산 왕궁리의 조사, 서울 구의동 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침체를 면치 못하는 충남지역의 현황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70년대에 나타난 무령왕릉의 발견과 각지에서 단속적으로 진행된 유적조사 활동은 백제 유적에 대한 인식의 증대외에 국가성장과 더불어 문화재에 대한 관심의 증대, 나아가 지속된 개발과 관련된 유적의 救濟調査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대를 가져왔고, 그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70년대 말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나면서, 이 후부터는 유적조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에 이른다. 이를

백제문화권 개발사업과 병행된 유적조사, 학술목적으로 위한 계획적 발굴조사, 그리고 구제조사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과 관련된 유적조사는 정비·복원을 위한 기초자료의 마련에 일차적 목적을 두고 진행된 것이다. 78년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틀이 잡히면서 공주와 부여지역 문화유적의 현황조사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추후 발굴·정비 대상의 선정이란 목적이 있었지만, 처음으로 百濟故地의 유적현황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1979년부터 공주와 부여지역에서 본격적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중요한 발굴현황을 보면 먼저 공주의 경우 80년도에 진행된 공주 공산성내 건물지 발굴조사를 들 수 있다. 이 조사에서 유명한 임류각지가 조사되었는가 하면, 영은사 앞지역의 연못이 확인되고, 조선시대의 장대지 등이 조사됨으로써 공산성내 유적에 대한 기초적 윤곽이 잡혀가게 되었다. 이어 공산성의 조사는 82년 영은사 앞지역의 연못조사를 비롯하여, 암문지 불상출토 유적 등이 조사되었고, 85년과 86년에 걸쳐 쌍수정 앞광장의 백제 추정왕궁지가 발굴되기에 이른다. 추정 왕궁지의 조사는 정설은 아니지만 웅진도읍기의 왕궁 위치에 대한 단서를 마련하는 전기로 볼 수 있다. 이어 계속된 공산성내 유적조사는 백제시대에는 물론 통일신라시대의 다양한 건물지, 그리고 조선시대의 중군영지의 조사까지 이루어져 성내 유적에 대한 대략적 파악은 이루어진 셈이다.

한편 부여지역은 1980년도의 정림사지의 발굴조사부터 시작되는데 정림사지의 발굴은 이 사지가 일제시대 발굴조사되었음에도 기록이 전하지 않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백제유적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이어 사비 도읍시기 왕궁지의 조사를 비롯하여, 부소산성의 성벽조사, 나성조사, 건물지 조사가 단속적으로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부소산성의 성곽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해방후의 축적된 고고학 경험속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70년대 후반부터 충남 지역에서는 백제문화권 개발전략과는 별도로 일정한 목표하에 발굴을 실시하는 학술 발굴이 시작되었다. 물론 60년대 간헐적으로 계획발굴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이전의 단발적 조사에서 벗어나 국립박물관과 대학박물관,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조직되기에 이르는데, 79년부터 실시된 표정리 고분군의 발굴과 두곡리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를 그 시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80년대 이르면 재정적 조건의 개선에 따라 각 연구기관과 문화재단의 지원속에 유적조사가 순수 학술목적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고분조사와 성곽조사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예로 고분조사는 보령 보령리를 비롯하여 논산 표정리·육곡리, 서천 칠지리, 홍성 성호리, 공주 송학리·남산리, 공주 금학동·신기동·웅진동 고분군을 성과로 꼽을 수 있고, 직산 사산성, 홍성 신금성 조사는 성곽조사의 사례이다. 이러한 계획된 발굴조사는 종래에 알려진 유적 이외에 더욱 다양

한 유적 존재를 새삼 일깨워 주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출토되는 유물 등으로 백제 고고학을 체계화 하는데 더 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조사된 유적의 수는 많지 않지만 실제로 조사를 통해 얻어진 성과는 시간과 비용에 쫓기게 마련인 구제 발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중요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70년대 후반부터 비약적으로 증가한 국토 개발의 여파로 각지에서 구제발굴조사가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충남지역에서 구제발굴조사가 시작된 것은 대청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구 조사이다. 이 때에 조사된 유적은 지석묘와 석곽묘이지만 이후 각종 국토개발사업에 구제발굴조사가 선행되는 이정표는 남겼다. 1979년에 이루어진 공주 웅진동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 역시 이러한 구제발굴의 성격이었다. 당시 고분군이 자리한 지역에는 조폐공사가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대규모의 형질 변경에 앞서 실시된 발굴조사를 통해 백제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고분을 조사하여 80년대 이후 발굴조사가 활기를 띠게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면 이러한 구제조사는 국가의 산업개발과 관련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1993년 10월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해 준 金銅百濟大香爐가 발견된 陵山里 寺址(陵寺)의 조사는 이 지역에 주차장이 들어서기 전에 실시한 조사에 의해 그 존재가 확인된 것이며, 여기에서 동쪽으로 약 2km 정도 떨어진 능산리 고분군 역시 공설운동장이

들어설 예정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된 유적이다. 또한, 최근 공주에서 조사되어 백제 제사유적으로 학계의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艇止山 遺蹟도 역시 백제 큰길 건설과정에서 구제조사된 사례이고, 청동기시대에서 백제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형의 고분이 한꺼번에 발견된 공주의 분강·저석리 고분군 역시 바로 이 백제 큰길 건설에 앞서 실시된 구제조사의 결과이다.

대전 월평동 백제산성 유적은 정수장이 들어서기에 앞서 실시한 조사에서 그 존재가 확인된 것이며, 주거유적과 분묘유적이 함께 조사되어 당시 사람들의 住居生活와 死後世界에 대한 인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던 서천 오석리 유적은 서해안 고속도로 통과 노선상에 자리하고 있어 조사된 것이다. 이 밖에 백제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와요지가 발굴·조사된 보령 천방 유적은 바로 보령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유적이다.

Ⅲ. 研究現況

유적 발굴은 문화재 개발에 따른 기초자료의 확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고고학에서 가장 초보적 활동이면서 필수 과정인 현장조사에 해당한다. 조사된 유적은 자체만으로 고고학 목적인 과거인의 삶을 복원하는 직접적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다. 조사된 자료는 정리·분석을 토대로 사료화 되어야 하고, 나아가 복원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어야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적조사는 그 자체만으로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복잡한 연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제시대의 조사 유적에 대한 연구현황은 조사 기록에 만족하면서 개별 유적의 특성만이 부각시키는 수준이었을 뿐, 종합적 문화성격의 구명에까지는 나가지 못하였다. 능산리 고분군이러던가 송산리 고분군의 조사를 토대로 이들이 백제왕릉이란 사실과 함께 피장자로 백제왕을 상대 추정하는 정도 외에 출토된 유물의 특성을 파악하는 수준이었다. 능산리 고분군의 개별 고분에 대한 세부적 구조형상의 기술이라던가 개별 출토 유물에 나타난 특성의 파악은 비교적 면밀하게 이루어져 있고, 특히 피장자의 경우 개별 고분마다 백제의 사비 도읍시가 사망한 왕들을 비정하는 치밀함도 보인다. 다만 채위 시기에 각 왕들의 업적 다과에 기초하면서 이를 고분의 규모에 대비하는 미숙함도 엿보인다. 또한 송산리 고분의 경우 5기를 조사하고, 이중에 4기만 남기면서 백제의 웅진도읍기 사망한 4명의 왕을 의제적으로 대비하는 면도 보이는데, 이후 6호 전축분과 같은 새로운 자료가 추가될 때마다 혼선을 빚기도 한다. 사지 조사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가람양식이라던가 불상 및 건축 부재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군수리 사지와 동남리 사지의 조사를 토대로 백제 가람 배치양식이 일탑일금양식이면서, 이들 사지가 석탑이 아닌 목탑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점을 근거, 백제도 초기에는 목탑이었다가 정림사지 석탑으로의 변화가 있었음을 일찍부터 고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 군수리 사지 출토의 석제불상을 근거로 백

제불상의 조형적 특성을 논급하는가 하면, 사지 출토 건축 부재를 통한 백제미술문화의 단면을 제시하기도 한다.

다만 일제시기 유적조사나 연구가 진정한 백제사나 백제문화의 탐구보다는 오히려 일본 고대문화연구의 기초자료 파악, 혹은 식민사학의 기초자료 확보라는 왜곡된 목적이 깊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고려하면, 그 한계 또한 자명한 것으로 보는데에 문제가 없다. 예컨대 사지조사가 일본 불교문화의 원류 탐구라는 목적에서, 그리고 정림사지의 석탑 해석, 부여지역의 유적조사를 근거하여 백제 멸망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데 많은 관심을 보이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 측면도 없지 않다. 일제시기 다량의 유적이 조사됨으로써 백제시대 후기의 문화상에 대한 기본적 이해수단이 마련되었다던가, 輕部慈恩처럼 백제고분군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나뉘는 형식분류 및 편년관을 마련하여 이후 백제 황혈식 석실분 이해의 토대를 마련한 부분도 있다.

그런데 해방 후에는 일정 기간 유적의 연구분야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대체로 사학계가 식민사학을 청산하면서 새로운 도약발판을 마련하고 있을 때, 충남지역에서 유적연구는 이렇다 할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료 축적의 부진과 학문 정보의 결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연구 경향도 대체로 유물·유적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문 감이 없지 않다. 그러다가 무령왕릉 발

견 이후 개별 자료의 집적에 따라 유적연구는 본 궤도에 오르게 되는데, 개별 자료에 대한 분석은 물론 종합화, 나아가 백제문화의 본질의 이해까지 시도하게 된다. 기왕의 충남지역 백제유적에 대한 연구현황은 내용에 따라 고분, 사지 등의 불교유적, 그리고 성곽 등으로 크게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가장 두드러진 연구분야로 고분을 들 수 있겠다. 백제고분의 연구는 일찍이 부여 능산리,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조사를 바탕으로 백제왕릉의 현황에 대한 이해와 남천후 묘제가 횡혈식 석실분이라는 점이 각각되면서 한성시대와는 차이 있는 묘제 사용을 알게 되었다. 즉 부여 능산리 고분군이나 공주 송산리 고분군은 각지에 도읍하던 시기에 사망한 왕들의 무덤들로 보면서, 백제묘제는 한성시기는 적석총이 주 묘제였었는데 남천후에는 횡혈식 석실분으로의 전환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특히 횡혈식 석실분은 왕실을 비롯한 상류 지배층의 묘제로 인정되게 되었다. 이후 횡혈식 석실분은 다양한 구조 형식이 확인되어 이를 기초로 형식 분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여기에 송산리 6호분과 같은 중국 남조계통의 전축분의 발견을 토대로, 백제문화와 중국남조문화와의 밀접성을 물적 자료로 입증되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이러한 고분의 이해 방식은 최근에 이르러 자료의 폭발적 증가에 힘입어 묘·장제와 관련된 제반 속성을 토대로 분석, 검토되어 형식분류와 편년은 물론, 형식간 변천문제, 지방으로의 파급문제까지 논급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백제묘제의 다양성과 묘제 전개에 특성에 대한 주목이다. 기왕에 백제묘제는 대체로 적석총이나 횡혈식 석실분의 범주에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백제의 도읍지역인 공주와 부여지역, 그리고 주변 지역에서 발견되는 수혈식 석실분과 토광묘 등의 자료가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묘제 및 의미가 추구되면서 백제고분 문화의 다양성과 함께 지방토착묘제의 현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토광묘는 충남지역 전역에서 골고루 산포된 형상이고, 수혈식 석실분은 대체로 논산과 부여 동남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들은 백제남천 이전의 토착묘제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현황은 백제의 남천이전 충남지역 역사상 구명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역사의 계기성을 살필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고분 연구는 자료의 축적도 많고 연구 결과도 비교적 풍성한 편이다. 특히 고분 연구를 토대로 고분 자체만이 아니라 백제의 정치·사회 측면까지 유추·고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겠다. 다만 고분 연구에서 공주 송산리 적석유구와 같은 특수 자료의 해석 문제라던가, 횡혈식 석실분의 시원문제, 그리고 고분 유형에 따른 계층성 문제 등 미해결 부분도 적지 않다.

불교 유적은 주로 일제시대에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불교유적에 대한 대체적 이해 기준도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백제시대 寺址로써 최초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부여 軍守里寺址다. 조사는 1935년에 日人 이시다(石田茂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발굴결과 中門, 木塔, 金堂, 講堂 등이 남북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1탑 1금당식의 가람 배치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백제시대의 寺址중에서 최초로 확인된 가람배치인데, 이후에 계속된 발굴조사를 통해서도 이 원칙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백제시대 사찰은 모두가 남북 자오선상에 塔과 金堂을 하나씩 배치하는 一塔一金堂式의 구조를 갖고 있음이 확실해 졌다. 다만, 부소산성 안에 있는 廢寺址의 경우 강당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산성 안이라는 위치와 강당이 없는 구조로 보아 이 寺址는 일반 다른 寺址와는 달리 백제왕실 전용의 願刹이 아닌가 판단된다. 또한, 1993년에 능산리 고분군 옆에서 발견된 寺址 역시 출토된 금동백제대향로의 존재와 사리감을 통해서 볼 때 일반 사찰과는 달리 聖王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陵寺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백제에는 전물 장병의 명복을 비는 烏盆寺와 같은 것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이는 어느정도 뒷받침 된다.

그러나, 부여지역과는 달리 공주지역에서는 별다른 조사 예가 없다. 「삼국유사」에 성왕 4년(527) 大通寺의 창건 기록이 있으나 공주 시내 한복판에 있어 幢竿支柱와 石槽만으로 이곳이 寺址임을 추정할 뿐이다. 「삼국유사」에 보이는 水源寺址는 사지로 추정된 지역의 실제 조사결과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유물만 확인되고, 백제시대 寺址로 알려졌던 남혈사지와 주미사지도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유물만 확인된다. 따라서 웅진시대 백제 가람의 구조나 특징은 전혀 알 수 없는데 이로 보면 백제

에서 불교문화가 꽃핀 것은 역시 웅진시대가 아니라 사비시대라는 판단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외에 예산 사면석불의 발견을 토대로 서해안 지역 불교 유적과의 연계 고찰이 가능하게 되었고, 부여 정림사지의 발굴조사로 가람에 대한 기왕의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출토유물을 토대로 6세기대 창건 가능성이 제시되어, 석탑의 시원 문제의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성주사지 조사결과에 의한 烏盆寺址의 입증이나, 능산리 사지 출토의 금동향로를 통한 백제공예 수준의 확인 등은 이 지역 불교유적 연구를 토대로 얻은 귀중한 수확으로 볼 수 있다.

성곽은 크게 도성과 산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고분과 마찬가지로 백제 사회를 연구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자료인 것은 틀림없으나 고분연구에 비해 아직 초보적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도성 문제는 위치에는 별다른 이론이 없지만 도성내 있었을 것으로 보는 왕궁의 위치는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웅진시대 도성이 공주지역은 틀림없으나 왕궁이 어디냐는 것은 현재의 공산성 안이라는 견해와 밖에 있다는 견해로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왕궁이 공산성 안에 있었다는 주장은 성내의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백제시대 건물지와 그 앞쪽에서 확인된 蓮池, 저장시설, 그리고 왕궁지의 동쪽에 자리하고 있는 臨流閣址 등을 근거로 한 것이며, 「三國史記」의 기록에도 왕궁이 평지가 아닌 高地에 있었음을 시사해 주는 기록이 있다. 이에 비해 공산성 밖에 있었다는 주장은 성 안에서 발굴된 건물지의 규모, 그

리고 부여의 예를 근거로 삼는다. 이러한 사정은 사비도성의 왕궁 위치에 대해서도 동일한 양상인데, 부소산 남쪽을 조사하여 蓮池와 建物址, 그리고 교차하는 도로 등을 확인한 이후, 사비도성의 왕궁은 부소산 남쪽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 사비도성의 왕궁 역시 뚜렷한 흔적은 찾지 못하면서 최근에는 부소산성의 발굴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성안에서 왕궁을 찾으려는 노력이 더해지고 있다.

산성 연구는 겨우 산성의 위치만 확인하는 정도로 역사 지리적인 측면이나 기록에 보이는 산성 위치의 고증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조사된 부소산성의 성벽과 천안 백석동 산성의 존재는 백제산성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특히, 부소산성처럼 포곡식 산성과 테회식 산성이 합쳐진 복합식 산성의 경우, 규모가 작은 테회식이 먼저 축조되고, 규모가 큰 포곡식이 나중에 축성되었으리라는 추정, 발굴결과 정반대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점은 앞으로 백제산성 연구에 중요한 轉機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소산성의 성벽조사를 통해 확인된 永定柱를 사용한 판축기법은 앞으로 백제산성의 축성 기법을 살펴보는 데, 반드시 참고해야 될 요소가 되었다. 천안 백석동 산성 역시 이러한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석성은 아직 구체적인 발굴 자료가 없어서 축성 기법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다행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부여 나성의 성벽과 성흥산성이 조사되어 그 일단을 확인해 볼 수 있

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성들의 크기와 모양을 어느 정도 통일되게 맞추어서 외면을 쌓아 올리고 있다. 또한, 성흥산성의 성벽 기초부에는 板石을 깔아 놓아 성벽의 기초부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였다.

이외에 목간의 출토로 백제 행정 편제의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부여 궁남지 조사결과나 부여지역에서 진행된 건물지 조사, 그리고 공주의 정지산 유적 등은 백제시대 사회, 정치, 문화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와오지의 조사도 관련 생활문화분야의 이해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V. 問題와 課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文化財가 埋藏된 형태로 존재하는 현실에 비추어 올바른 역사상의 확립을 위한 유적의 조사·연구활동은 필연적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고고학은 초보적 활동으로 발굴이란 고통스런 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기에 학문활동의 수행 자체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충남지역의 백제유적 조사활동은 이 지역에 도움이 자리하였었다는 환경으로 비교적 폭넓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유적은 당대 사회가 남겨 놓은 物的資料이며, 이들의 진정한 가치는 체계적 발굴조사를 기초로, 그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진정한 價値가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백제유적은 敗亡國이란 역사적 환경으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埋藏遺蹟으로 존재하면서 그 잔존 현황도 매우 열악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해방 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충남지역의 백제유적 조사·연구 결과 나름의 성과도 적지 않고 여겨진다. 이는 이 지역이 백제의 도읍지였던 관계로 유적의 조사수가 상대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조사 내용도 비교적 풍부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인 백제 후기의 문화상은 대체로 충남지역 유적을 토대로 이해된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충남지역의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연구의 근본 목적은 집적된 자료를 토대로 올바른 백제사·백제문화의 정립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백제유적은 매장 유적으로 존재함이 보통이고, 이의 조사는 어차피 발굴이란 특수활동을 거칠 수 밖에 없다. 역설적이겠지만 올바른 백제사의 인식, 나아가 전통 자산의 보존이란 측면에서 이들 유적은 끊임없는 조사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문제는 발굴 자체가 필연적으로 유적의 파괴를 야기하기 때문에 유적조사를 함부로 실행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개발 우선이란 미명하에 무차별하게 파괴되던 이들 유적은 국가의 선진화와 그에 따른 국민의 문화의식 증진에 힘입어 문화재 보존의 가치가 재발견되면서 이제 국토 개발에 앞서 문화재 조사가 정착 단계에 들어가는 등의 환경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충남지역의 유적조사는 문화권 개발의

기초자료 확보라는 측면에서 상당수가 조사되었던 관계로 백제문화의 구명이란 막연하고 포괄적인 목적을 명분과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진행된 감이 없지 않다. 때문에 사업계획에 의한 계획발굴이 많으면서, 조사목적이 정화·복원과 유적 보존에 지나치게 치중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어차피 발굴이 유적 파괴를 전제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역사와 관련된 특정의 주제나 문제의식 없이 진행된 발굴에서 그에 상응하는 학문적 정보가 완벽하게 획득되었는가에 의문이 없지 않다. 또한 최근에 구제조사가 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데, 구제조사는 속성상 유적 파괴가 진행된 후에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유적 보존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서 조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또한 문제가 없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과 감지기 정도를 마련하긴 어렵겠지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충남지역의 백제유적을 지상·지하 유적을 막론하고 총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된 후에 문화권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은 사전에 정보획득의 가능성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에 진행하고, 구제조사는 사전 조율 속에서 이의 파괴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백제의 도읍지역인 충남지역에서 백제유적에 대한 종합적 현황마저 파악되지 않았음은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으면서 이에 대한 대처가 다각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왕의 유적조사 연구현황을 종합하면, 특정 내용과 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자칫 백제사, 백제문화의 이해를 왜곡시킬 소지가 충분한 문제로 판단된다. 기왕에 조사된 유적은 고분, 사지, 산성, 요지 및 건물지 등 내용면에서 비교적 다양한 듯 하지만, 비율로 보면 고분자료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고분 자체의 학문적 유용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이는 사후 세계를 대비한 영조물로 현실 생활을 적나라하게 조감하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때문에 고분 자료의 유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교자료의 집적이 필요한데 아직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고분 이외의 자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는 조사대상 유적이 대체로 기념비적 고급 유적에만 집중되어 있는 데서도 나타난다. 아마도 문화권개발사업속에 정비·전시 대상의 유적발굴이란 환경에 익숙한 나머지 왕릉급 무덤, 혹은 금동향로와 같은 고급 유물의 출토 유적에 집착하는 감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유적의 잔존 비율과 고고학적 방법론도 문제가 없지 않지만, 조사대상의 선정이 지나치게 대외 전시적 효과만 고려한다면 그러한 고급 문화를 창출한 기층 문화의 물이해는 물론 망각될 수 밖에 없어 문화의 균형적 이해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편중성은 조사지역에서도 나타난다. 기왕의 유적조사가 대체로 옛 도읍지였던 공주와 부여 지역 지나치게 국한하여 진행되었음은 주지된 사실이다. 사실 그동안 백제유적 조사가 공주와 부여라는 특정 지역에 편중된 채 진행된 결과, 백제 유적은 이들 지역에만 존재하고, 백제문화의 향취

는 이들 두지역의 전유물이란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이는 도읍지만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던가, 문화권역의 설정이 도읍지를 중심으로 확정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는데 그로 말미암은 백제문화의 파행적 이해가 많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물론 최근 각 연구기관의 조사활동과, 구제조사의 빈발로 이 문제는 다소 해소되는 경향이 없지 않지만, 아직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지되듯이 충남지역은 전체가 백제의 고지였고, 각 지역에는 나름의 독특한 유적이 남아 있다. 이들은 크게 보면 백제문화의 저변을 이루는 것들이고, 작게는 지역성이 그대로 함축된 것들이다. 예컨대 서산·태안의 마애불은 백제 불교문화의 정수이면서 서산·태안지역이 백제시대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마애불만 알려져 있을 뿐, 주변의 관련 유적의 조사연구에 소홀한 까닭에 아직 체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변에는 적지 않은 백제산성 등의 유적이 있어 이들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그 의미가 도읍지역 유적보다 크게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유적조사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로, 조사 유적의 해석 혹은 유적을 토대로 역사상을 복원함에 있어 보다 정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 주지되듯이 충남지역의 백제유적은 대체로 남천후인 백제 후기의 유적이 대부분이란 것은 누차 언급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지역은 비단 백제만이 아니라 이후 통일신라에서 고려·조선시대까지 누대의 역사 경험이 반복된 지역이다.



따라서 각시대의 유적은 중첩된 형태로 있으면서 오히려 백제시대의 유적보다 후대의 유적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충남지역의 유적은 피상적 관찰만으로 일방적으로 백제시대로 편년한 후 의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는 자칫 역사상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것임을 유의하여, 유적을 역사자료로 활용하기에 앞서 유적 성격이나 편년적 위치에 대한 정밀한 연구를 담보하지 않는 한 성급한 결론은 가능한 삼가는 태도가 요구된다. 특히 산성의 경우 정도가 비교적 심한데 지금까지 백제산성으로 알려진 자료가 발굴조사 결과 대부분 통일신라 혹은 그 이후의 것으로 판명된 것이 많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V. 결 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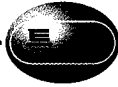
충남지역 백제 고고학은 이미 일제시대때부터 비롯되었고, 당시 충남지역의 유명 유적의 상당수가 발굴·조사됨으로써 지상에 노출되었다. 그러나 일제기 충남지역 유적조사는 조사된 양만큼 역사적 의미가 추구되지 못하였다. 이는 당시의 학문적 환경과 더불어 비교 자료의 부족에 원인을 들 수 있는데, 그럼에도 충남지역 백제문화 인식의 뿌리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백제유적 연구과정의 한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해방후 사회·정치적 혼란속에 충남지역 고고학 연구도 일시 침체기를 겪게 되지만 유적을 우리 손으로 발굴하고, 연구한다는 소중한 경험속에 점차 이후의 발전을 위한 토양이 배양되던 시

기이면서 무령왕릉 발견 이후 분위기를 일거에 일신시킬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80년대 이후 유적조사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학술목적의 계획발굴, 구제조사 등의 다양한 수단에 의해 가속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충남지역 백제문화의 진면목을 그대로 드러낼 수 동기가 부여되고, 그에 따른 연구활동도 매우 왕성하게 전개되어 백제문화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의 검토 결과가 산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적연구는 발굴이란 고고학적 방법만을 통해서 가능한 현실에서, 발굴이 유적 파괴를 전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 조사·연구자세가 요구된다. 나아가 올바른 백제문화의 정립, 충남지역 고대문화의 정립을 위해서는 기왕의 백제유적 조사 및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사항들을 문제의식으로 전환하여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열린충남**



백제문화권 개발과 관광충남

여 정 태
(余廷泰)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 I. 들어서는 글
- II. 역사문화관광의 개념과 관광상품개발
- III. 백제문화권 관광자원의 현황 및 문제점
- IV. 백제문화권의 관광개발 기본방향과 개발방안
- V. 나가는 글

I. 들어서는 글

역사문화자원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며, 또한 내외국인이 찾고 방문하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된다. 따라서 역사문화자원은 자연환경자원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자원에 내재된 의미를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역사문화자원은 그 대상이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일단 훼손이 되면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하여 개발하는데는 원형 훼손과 고유성의 파괴를 방지하고 전통문화가 지속적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단순히 문화재의 보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 방문에 의한 지역경제의 증대, 연결도로망의 정비, 지역기반시설의 확충에 의한 지역개발의 효과가 기대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자원 분포지는 수도권,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 중원문화권 등이 있는데, 이 중 신라문화권과 백제문화권의 관광개발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신라문화권은 경주를 중심으로 경주보문단지, 감포관광단지 등을 거점으로 활발한 관광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백제문화권도 역사문화관광지로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

획에 의해 백제역사촌, 백제역사연구교육촌, 탄천 관광농업단지, 공주문화관광단지 등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개발을 추진중에 있다.

정부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1년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특정지역으로 지정, 1994년에 문화유적 정비복원, 관광자원개발, 도시기반시설 및 도로교통망 확충, 계통지구 개발 등 5개 분야 55개 사업을 확정하여 2001년까지 사업비 1조 5000천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여흥기, 1996).

이러한 백제문화권 개발은 이미 1978년부터 거론되어 왔던 것이나 여러 차례의 지역적인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가시적 결과가 빈약하였다. 또한, 현재에도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투자예산의 대부분이 지방비와 민자를 유치토록 계획되어 있고, 국비 투입계획이 전체의 18%에 불과하여 계획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역사문화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수반하게 된다. 첫째로 백제문화자원은 공주, 부여, 연기, 청양, 예산, 홍성, 익산, 서울 등에 광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이들을 종합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자원으로서의 관광가치를 충분히 높이지 못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연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문화자원의 고증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등을 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고증을 거쳐 정비 또는 복원, 재현되어야 하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부족

한 실정이다. 백제문화권은 그 동안의 발굴 문화재는 많으나 신라문화권과 비교하여 널리 알려진 대규모의 문화재가 부족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발굴 복원하고, 정비·재현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셋째는 역사문화자원과 관광개발을 연계한 매력창출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과거의 단순 관람형태로 이루어졌던 역사문화 관광활동은 앞으로 요구되어지는 참여형 관광행태에 부응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역사문화 관광상품 및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매력을 창출을 하고, 많은 잠재관광객들의 수요를 유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투자재원의 확보문제이다.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사업화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재원을 필요로 하는 반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자재원의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민자유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제문화권 개발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계획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진행해온 추진내용을 검토분석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II. 역사문화 관광의 개념과 관광상품 개발

1. 역사문화관광의 개념

세계관광기구(WTO)의 연구논문에서는 “문화관광이란 협의로는 연구여행(탐구여행), 예술문화여행, 축제 및 기타 문화행사 참여, 유적지 및 기

넘비 방문, 자연·민속·예술 여행연구, 성지순례 등 본질적으로 문화적 동기에 의한 인간들의 이동이고, 광의의 문화관광은 개인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지식·경험·만남을 증가시키는 등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정의에서 볼 때 문화관광이란 결국 타국이나 타 지역의 생활양식이나 전통적 행동양식에 접하고 체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9).

이상과 같은 문화관광의 다양한 정의를 통하여 정리할 수 있는 역사문화 관광의 개념은 "특정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방식 중 오랜 과거로부터 이루어져 온 역사성이 강한 문화자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관광"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관광개발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종합적인 차원에서 지역내 분포되어 있는 유형·무형의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상품화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의 형태는 역사문화자원이 있는 대상지역을 관광단지 또는 관광지로 개발을 하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문화 관광개발은 전자의 형태이며, 후자의 대표적인 예는 신라문화권의 경주 보문단지와 현재 개발을 추진중에 있는 백제문화권의 백제역사재현단지 등이 있다.

2. 역사문화 관광의 가치와 관광상품의 개발

역사문화 관광은 중요한 관광산업 중의 하나로 꾸준히 성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역사문화 관광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지역과 도시들이 역사문화와 예술을 통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도시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채택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역사문화 관광시장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확대되고 있다.

역사문화 관광의 개발이 갖는 가치와 의의는, 첫째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문화와 예술은 지역의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수입을 올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둘째는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써 도시의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갖도록 해준다. 셋째는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예술을 진흥시킨다. 역사문화 관광은 다양한 형태로 역사문화자원을 보호하고 문화예술을 발굴·육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역사문화 관광을 발전시키도록 지역의 역사문화와 예술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로 역사문화 관광의 대상이 되는 역사문화자원이 관광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역사문화 관광이 갖추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문화 관광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자원, 예컨대 문화축제 및 이벤트 기획, 참신한 공연 및 전

시, 지역의 문화환경 조성, 전통문화상품의 전시 및 판매, 전통생활문화, 무대화된 고유성(staged authenticity) 등을 통하여 관광매력을 창출할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역사문화자원을 관광화 하려는 역사문화 관광의 수요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사문화 관광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 욕구와 동기, 역사문화 관광객의 사회경제적 특성, 역사문화 관광 행태 등에 대한 조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역사문화 관광수요와 역사문화자원을 연계시킬 수 있는 관광마케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내 및 해설체계, 홍보 및 광고, 정보네트워크, 저렴한 가격, 친절한 관광서비스 체계 등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역사문화 관광은 역사문화자원만으로는 관광객을 끌어 들이는데 한계가 있으며, 숙박, 음식, 교통, 쇼핑, 오락, 인접 관광시설 등이 갖추어 있을 때 관광객 유치에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5).

「전국관광 장기종합개발계획」에서는 역사문화

관광상품의 주요 구성요소로 자연자원, 문화자원, 관광시설, 서비스, 교통수단시설, 관광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관광상품 개발의 기본방향은 관광지의 성격과 기능, 관광객의 관광행태와 수요를 고려하여 목적별 코스 상품의 개발, 지역의 향토성, 역사성을 고려하여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화관광상품의 개발, 고유한 민속행사를 활성화시켜 매력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 전환하여 전통문화의 계승과 관광사업의 발전 도모, 민예품, 토산품 등 지역특산물 중 상품가치가 있고 개발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 고급화·다양화하여 관광객의 기호에 적합하도록 개발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상품은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문화 관광상품의 개발은 관광객에게 유구한 민족문화의 전통과 역사의 현장을 관광시킴으로써 조상의 얼과 정신을 체득하여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역사문화 관광상품의 개발을 통해 민족자원의 적극적인 발굴·보존과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외국과는 역사문화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 국가간의 이해와 친선을 도모하고 우수한 민족문화의 세계화를 시도할 수 있다.

〈표 1〉 역사문화 관광상품의 분류

구 분	관 광 상 품 내 용
장소적 관광상품	① 코스상품, ② 박물관, ③ 문화관, ④ 전통 고유마을, ⑤ 전원생활 체험촌
행사적 관광상품	① 민속행사, ② 민속놀이, ③ 운동경기, ④ 전람회 등 행사
기념적 관광상품	① 민예품, ② 토산품 등 기념품

자료 : 한국관광공사, 전국관광 장기종합개발계획, 1989.

III. 백제문화권 관광자원 개발의 현황 및 문제점

1. 백제문화권 역사문화 관광자원 현황 및 이용 행태

가. 충남의 역사문화자원 현황

충남지역에는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하기 좋은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선사 유적·유물이 산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백제시대의 유적·유물은 당시 수도인 공주·부여를 중심으로

많은 유적·유물이 산재해 있다.

1997년 1월 현재 충남지방에 소재해 있는 국가 지정 문화재는 총 172점으로 국보 24점, 보물 77점, 사적 34점, 사적 및 명승 1점, 천연기념물 12점, 중요무형문화재 6점, 중요민속자료 18점 등이다. 또 도 지정 문화재는 총 249점인데 유형문화재 126점, 기념물 92점, 무형문화재 19점, 민속자료 12점 등이다. 문화재 자료는 총 313점인데 유형문화재 271점, 기념물 40점, 민속자료 2점 등이다.

〈표 2〉 충남도내 시군별 지정문화재 현황

구 분	합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국가지정 문화재	172	8	33	7	12	11	11	-	4	3	37	8	9	7	11	3	8
도 지정 문화재	249	8	49	11	10	10	34	2	8	7	45	9	6	14	19	10	7
도 지정문화재자료	313	29	31	17	25	20	30	4	21	10	37	15	12	17	30	5	10
합 계	734	45	113	35	47	41	75	6	33	20	119	32	27	38	60	18	25
비 율 (%)	100.0	6.1	15.4	4.8	6.4	5.6	10.2	0.8	4.5	2.7	16.2	4.4	3.7	5.2	8.2	2.5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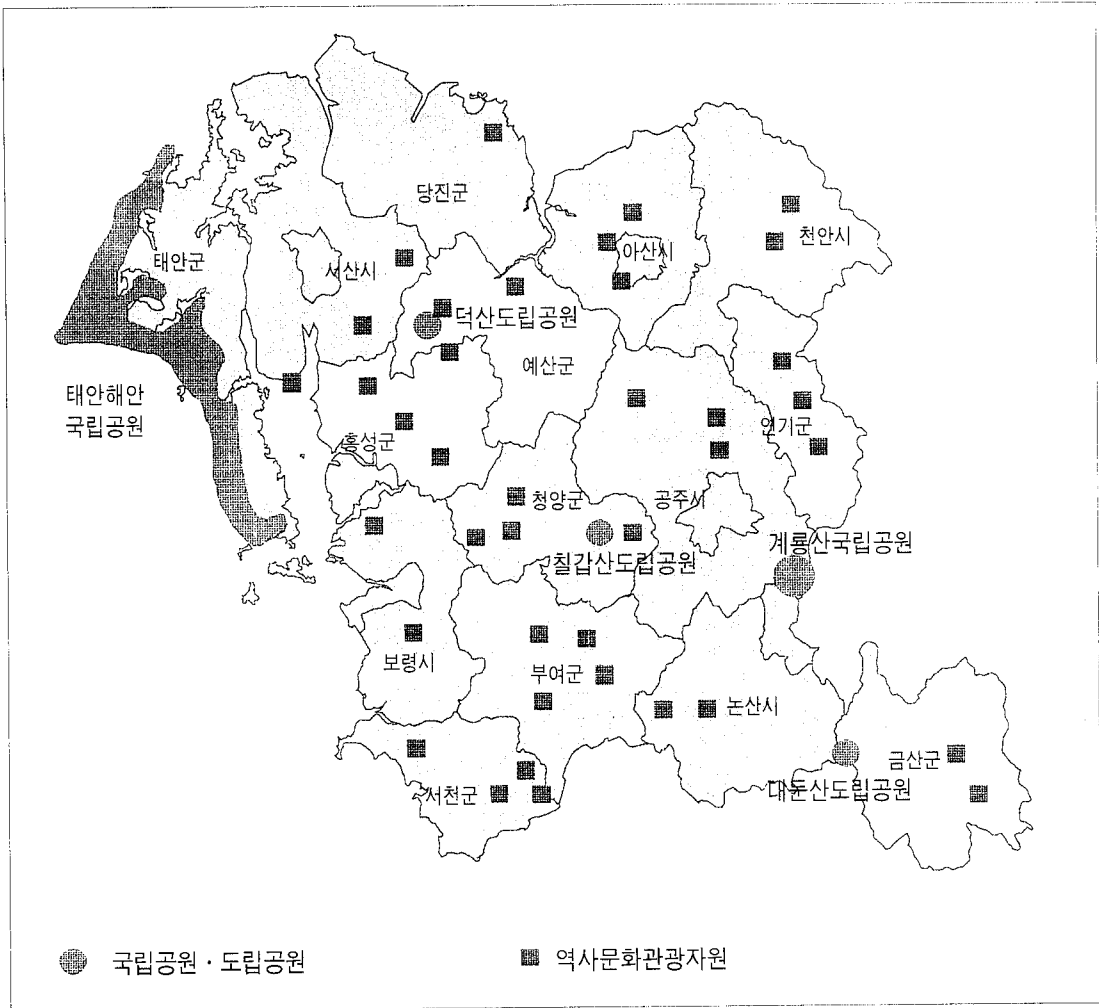
자료 : 충청남도, 문화재 목록, 1997.

지역별로 문화재의 분포상황을 살펴보면 백제 문화의 중심지인 부여군이 116점으로 가장 많고, 공주시도 113점을 차지한다. 논산, 예산, 아산, 천안, 서산이 각각 40점 이상이며, 홍성, 보령, 금산, 서천에도 30점 이상이 있어 충남 전역에 걸쳐 산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역사문화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특화된 「이미지」의 구축과 몇 개의 관광거점 조성 및 체계적 연계성

의 도모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충남의 향토문화축제는 1970년 이전까지는 백제 문화제를 제외하면 동화제, 풍어제 등 마을단위의 원시적인 축제로 지속되어 오다가 1980년대에 들어 15개 축제가 새롭게 등장하여 전 시군이 1개의 대표적 축제를 갖게 되었다. 1995년에 조사된 충남의 향토문화축제는 모두 22개였다.

이들 축제의 개최시기는 주로 봄과 가을에 집중



〈그림 1〉 충남지역 역사문화 관광자원 현황도

되어 있으며, 축제를 성격별로 분류해 보면 제례 축제 5건, 특산물을 홍보하는 축제 8건, 특정인물 추모 3건, 지역명 홍보 3건, 기타 3건 등으로 나타났다. 행사내용은 주로 주민화합 도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축제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축제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표 3〉 도내 시군별 향토축제 현황

시 군	행 사 명	주최 · 주관	개최시기 (1995년)	재원총액 (천원)	최초개최연도 (개최주기)	행사내용 요약
천안시	봉화제	병천면청년회의소	2.28		1979 (매년)	3·1절 기념
	입장거봉포도축제	입장청년회의소	9월말		1993 (매년)	거봉포도홍보 및 주민화합도모
	삼거리문화제	천안시문화예술 선양위원회	10. 8~10. 11	100,000	1987 (매년)	삼거리 역사성 재현 및 시민화합 도모
공주시	동학사봄꽃축제	동학사봄꽃축제 추진위원회	4. 13~4. 19	50,000	1991 (매년)	산신제 노래자랑 등 10종목
	백제문화제	백제문화제 선양위원회	10. 8~10. 11	280,000	1955 (격년)	백제문화 계승발전 부여와 윤변개최
보령시	대천해변제	대천해변제 추진위원회	6. 30~7. 1	38,000	1992 (매년)	대천해수욕장 개장 기념축하
	만세보령제	만세보령제 추진위원회	9. 30~10. 1 (95년 미실시)	113,000	1988 (매년)	풍어 · 풍년 기원
아산시	온양·아산문화제	온양·아산문화제 추진위원회	4. 28~4. 29	169,000	1961 (매년)	이충무공 탄신 기념 및 시민화합단결
	서라예술제	예총아산지부	10. 1		1988 (매년)	
서산시	서산문화제	서산문화제 추진위원회	10월	30,000	1990 (매년)	서산아가씨 선발대회 등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연산백중놀이 전승보존회	8. 11 (음7. 15)	19,701	1989 (매년)	전통적인 백중놀이 재현
	놀이향토제	놀이향토문화제 집행위원회	9. 30~10. 1 (95년 미실시)	102,000	1986 (매년)	딸기홍보 및 군민화 합 도모
금산군	금산인삼제	금산문화원	9. 21~9. 23	200,000	1981 (매년)	금산 인삼홍보 및 주 민화합 도모

시 군	행 사 명	주최 · 주관	개최시기 (1995년)	재원총액 (천원)	최초개최연도 (개최주기)	행사내용 요약
연기군	도원문화제	도원문화제 추진위원회	4. 21~4. 23	34,740	1985 (매년)	복사꽃 아가씨 선발 등 복숭아 홍보 및 민속전승
부여군	은산별신제	은산별신제보존회	2. 13~2. 17	17,620	1947 (매년)	마을의 안녕을 기원 주요 무형문화제 제9호
	가림성충혼제	임천면면영회	4. 29~4. 30			백제말 성흥산성에서 당군과 싸우다 전사한 무명장졸의 넋을 추모
서천군	저산문화제	서천군	5월 (95년 미 실시)	51,940	1989	모시아가씨 선발 등을 통한 한산모시 홍보
청양군	칠갑문화제	칠갑문화제 추진위원회	9. 30~10. 1	48,000	1984 (격년)	구기자홍보 및 군민 화합 도모
홍성군	만해제	홍성문화원	8. 15	56,300	1995	시낭송 백일장 등
예산군	매현문화제	월진회	4. 28~4. 29	63,000	1974 (매년)	윤봉길의사 기념행사 민속경연대회 등
당진군	기지사줄다리기	기지사줄다리기 보존회	3. 28~3. 31		(윤년, 매년)	윤년마다 줄다리기 실시, 평년에는 민속 예술 행사
	상록문화제	상록문화제 집행위원회	9. 27~9. 29		1977 (매년)	심훈선생 추모

주 : 1) 공주시의 백제문화제는 부여군과 윤번으로 개최.

2) 이 표는 충청남도의 문화체육과에서 자체 조사하여 작성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재원총액은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지방자치
단체별 문화지표 조사연구, 1995에 의함.

나. 충남의 역사문화자원 관광개발 현황

충남의 1997년 현재 지정관광지는 총 20개소이
며, 이 중 역사문화 관광지로는 부여 구두래, 천안
태조산, 공주 곶나루, 천안 각원사, 공주 마곡사, 공
주 공주문화관광지 등 6개소가 있다.

역사문화 관광코스로는 일정별 관광코스와 관
광권역별 관광코스가 있다. 특히, 일정별 관광코스
는 역사문화 관광자원과 모두 연계되어 이루어 지
고 있다(〈표-5〉참조). 또한 공주, 부여, 논산을 중
심으로 하는 시간별 백제문화권 관광코스는 〈표-
6〉과 같다. 이들 일정별 관광코스와 관광권역별 관

관광코스에서는 관광자원이 있는 지역을 이동이 가능한 시간별로 연계하고 있을 뿐, 자원특성이 가지고 있는 상호간의 연계성이나 방문객의 방문 목적은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관광객의 유

형이나 이용교통편은 관광코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나 이를 반영한 관광코스의 개발이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백제문화권 관광코스의 개발은 이러한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4〉 지정 관광지중 역사문화 관광지 현황

관 광 지 명	위 치	관광지 지정		주요 개발내용
		지 정 일	면 적(㎡)	
구 드 래	부여 구교	69. 1. 21	148,515	가족휴양 중심 관광지
곰 나 루	공주 웅진	87. 7. 24	139,000	가족휴양 중심 관광지
태 조 산	천안 유량	85. 7. 24	331,000	청소년 수련시설
각 원 사	천안 안서	90. 4. 19	82,294	가족휴양 중심 관광지
마 곡 사	공주 사곡	93. 11. 9	126,000	가족휴양 중심 관광지
공 주 문 화	공주웅진·봉저·검상	96. 10. 24	1,330,000	백제문화 중심 관광지

자료 : 충청남도, 도정백서, 1997.

〈표 5〉 일정별 충남 관광코스 현황

관광코스 유형		관 광 코 스
한 나 절 코 스	국립공원	대전-계룡산(동학사)-대전
	인 삼	대전-금산(인삼타운)-대전
당 일 코 스	백제문화	천안(대전)-공주(백제문화유적)-부여(백제문화유적)-천안(대전)
	성 역	천안(대전)-독립기념관-태조산대좌불-현충사-삼교호-온양민속박물관-천안(대전)
	EXPO기념관	천안-대전EXPO기념관-유성온천-계룡산(동학사)-천안
1박 2일 코 스	백제문화	천안(대전)-계룡산(동학사)-공주(백제문화유적)-(부여숙박)-부여(백제문화유적)-무량사-화장골계곡-성주사지-대천해수욕장-천안(대전)
	성역·휴양	천안(대전)-독립기념관-태조산대좌불-현충사-삼교호-온양민속박물관-신정호-(온양 또는 도고숙박)-추사고택-충의사-수덕사-덕산온천-천안(대전)
	서 해 안	천안(대전)-계룡산(동학사)-공주(백제문화유적)-(부여숙박)-부여(백제문화유적)-무량사-화장골계곡-성주사지-대천해수욕장-천안(대전)

관광코스 유형		관 광 코 스
1박 2일 코 스	EXPO기념관	천안-독립기념관-대전(EXPO기념관 유성온천)-공주(숙박)-마곡사-온양(온천)- 신정호-현충사-천안
2박3일 코 스	1 코 스	천안(대전)-공주(백제문화유적)-부여(백제문화유적)-(부여숙박)-한산모시타운- 금강하구둑-무창포해수욕장-남포방조제-대천해수욕장-수덕사-충의사-(도고온천 숙박)-신정호-온양민속박물관-현충사-태조산대좌불-천안(대전)
	2 코 스	천안(대전)-독립기념관-유관순사우-태조산대좌불-현충사-온양민속박물관-신정 호-(온양숙박)-삼교호-대호방조제-대산공단-마애삼존불-해미읍성-수덕사-충의 사-(덕산온천숙박)-칠갑산-공주(백제문화유적)-논산관촉사-천안(대전)
	3 코 스	대전-논산관촉사-부여(백제문화유적)-계룡산(갑사)-공주(백제문화유적)-(공주숙 박)-마곡사-외암민속보존마을-온양민속박물관-현충사-삼교호-신정호-(온양숙 박)-독립기념관-금산인삼타운-칠백의총-서대산-대전
	4 코 스	천안-삼교호-대호방조제-대산공단-태안해안국립공원-(서산숙박)-해미읍성-마애 삼존불-대천(무창포)-(부여숙박)-대전(EXPO기념관 유성온천)-천안

자료 : 충청남도, 도정백서, 1997.

〈표 6〉 시간별 백제문화권 관광코스 현황

시 간 별	관 광 코 스
1 시 간 코 스	공주터미널-(5분)-무령왕릉(30분)-(5분)-공산성(30분)-(5분)-공주터미널
	부여터미널-(5분)-궁남지(20분)-(5분)-정림사지(15분)-(5분)-낙화암,구드레(15분)-(5분)-부여 터미널
	논산터미널-(5분)-관촉사(30분)-(5분)-탑정저수지(20분)-(10분)-논산터미널
2 시 간 코 스	공주터미널-(5분)-무령왕릉(30분)-(5분)-곰나루관광지(20분)-(5분)-공산성(30분)-(5분)-국립공 주박물관(30분)-(5분)-공주터미널
	부여터미널-(5분)-부여박물관(60분)-(5분)-능산리고분군(40분)-(5분)-부여터미널
	논산터미널-(5분)-관촉사(30분)-(20분)-계백장군전적지(20분)-(10분)-돈암서원(20분)-(15분)- 논산터미널
	논산터미널-(5분)-관촉사(30분)-(20분)-계백장군전적지(20분)-(10분)-돈암서원(20분)-(15분)- 논산터미널
3 시 간 코 스	논산터미널-(5분)-관촉사(30분)-(20분)-계백장군전적지(20분)-(10분)-돈암서원(20분)-(15분)- 논산터미널

시 간 별	관 광 코 스
3 시 간 코 스	부여터미널-(5분)-부여박물관(120분)-(10분)-낙화암(10분)-(20분·유람선)-구드레(20분)-(5분)-부여터미널
	논산터미널-(5분)-관촉사(30분)-(35분)-대둔산(60분)-(40분)-논산터미널

자료 : 충청남도, 도정백서, 1997.

다. 백제문화권 방문 관광객수 및 관광행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방정부는 지방재정
확충, 지역간 소득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관광수
용태도의 개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여행

상품의 개발 등으로 대량 국내여행시대를 예고하
면서 국민여가행태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문화유적 답사여행, 생태·환경
여행을 통하여 우리 전통문화 및 자연환경을 발

〈표 7〉 공주 부여권 관광객 방문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공 주 부 여 권(A)			충 청 남 도(B)	
	관 광 객 수	비 율(A/B)	증 가 율	관 광 객 수	증 가 율
1982	6,516	50.8	-	12,831	-
1983	6,941	53.9	6.5	12,877	0.4
1984	7,156	43.6	3.1	16,400	27.4
1985	7,779	56.4	8.7	13,789	-18.9
1986	9,202	51.2	18.3	17,965	30.3
1987	12,994	65.7	41.2	19,769	10.0
1988	15,398	55.4	23.1	28,865	46.0
1989	14,824	48.4	-7.3	30,634	6.1
1990	14,290	48.8	-3.6	29,274	-4.4
1991	13,271	44.0	-7.1	30,170	3.1
1992	14,150	42.3	6.6	31,272	3.7
1993	13,713	44.6	-3.1	30,773	-7.6
1994	14,326	42.4	4.5	33,789	9.8
평 균	-	49.8	7.6	-	9.3

자료 : 충청남도, 공주·부여권 관광개발기본계획, 1996.

굴·보전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여행문화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

1994년 충남의 관광객 총수는 33,789천명이고, 공주·부여권은 14,326천명으로 충남의 42.4%가 방문하고 있으나, 관광객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충남 전체가 9.3%인 반면 공주·부여권은 7.6%에 그쳐 상대적으로 역사문화권 방문관광객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또한, 1991년의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타당성 조사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공주·부여 관광객은 1,140천인으로 경주 방문객의 21%수준이며, 관광객 체재율은 공주 10%, 부여가 30%에 그치고 있어 경유형 관광행태를 보이고 있다. 방문형태는 단체관광 위주로 청소년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외국관광객은 일본의 수학여행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계절별로는 봄에 가장 많고 가을, 여름, 겨울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주·부여권의 관광행태 유형별 활동비를 과거의 추세와 향후 예측치를 검토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역사문화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역사문화 관광지의 방문객은 외국인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문을 하고 있으며, 특히, 공주·부여권은 역사문화 중심의 관광활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방문 관광객수의 추이를 보면 1988년 서울올림픽까지는 급격한 증가를 하다가 이후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역사문화 관광을 지향하는 국민관광성향에 비해 백제문화권 관광의 수용형태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백제문화권 관광개발계획 현황

가.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

백제문화권에 대한 정부의 개발계획은 백제문화유적의 보존·정비 이외에 방문 관광객의 유치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문화·관광시설의 설치를

〈표 8〉 공주·부여권 관광활동 구성비

(단위 : %)

구 분		1991년	1994년	1996년	2001년
자원유형	관 광 행 태				
산 약 형	감 상 및 탐방형	12.8	12.6	12.4	11.5
	위락 및 휴양형	1.0	1.2	1.5	1.6
내 료 형	역 사 문 화 형	39.8	40.1	40.7	40.4
	도 시 관 광 형	3.9	4.3	4.8	6.0
	관 광 및 휴양형	35.1	34.5	33.4	32.8
내수면형	수변 및 호반관광형	7.4	7.3	7.2	7.7

자료 : 충청남도, 공주·부여권 관광개발기본계획, 1996.

포함하고 있다. 곰나루 일대에 계획된 공주문화관
광단지와 부여 규암면의 백제역사촌 조성 등이 그
것이다. 공주문화관광단지의 경우 위락·휴양기능
을 중심으로한 단지조성이 예정되어 있고, 부여는
백제문화의 여러 내용을 재현하는 '역사재현촌'과
문화계승을 뒷받침하는 '연구교육촌'으로 구성하
게 된다. 공주와 부여에서의 이같은 대규모 단지

는 '백제 큰길'로 연결하고 그 사이에 관광농업단
지(공주 탄천면 분강리), 노인 휴양촌(공주 이인면
운암리), 청소년 수련촌(공주 정안면 내문리), 오
토 캠프촌(공주 탄천면 견동리), 기업 연수촌(공주
탄천면 대학리), 금강 뱃길 조성 등을 '종합개발사
업'의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관광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같은

〈표 9〉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사업계획 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위 치	사업비(백만원) (92~96년)	재원조달 방법
역사 유적 발굴· 보존 정비 계획	대통사지 정비(보물 제150호)	공주시 반죽동	3,736	국비, 지방
	공산성 정비(사적 제12호)	공주시 산성동	14,277	국비, 지방
	부소산성 정비(사적 제5호)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6,470	국비, 지방
	궁남지 정비(사적 제335호)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2,423	국비, 지방
	정림사지 복원(사적 제301호)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5,075	국비, 지방
	부여나성 복원(사적 제58호)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5,304	국비, 지방
	학봉리 도요지 복원(사적 제333호)	공주군 반포면 학봉리	2,833	국비, 지방민자
관광 개발 계획	공주박물관 이전	공주시 웅진동 일원	17,000	국비, 지방비
	백제역사 민속촌(개국촌, 왕국촌, 전통민속촌, 산업교역촌, 군사통신 촌, 풍속종교촌, 장제묘지촌 등) 연 구교육촌(연구교육시설)	부여군 규암면	99,200	국비, 지방공사, 민자
	종합휴양촌, 청소년수련촌	공주시 웅진동, 검상동	55,700	국비, 지방공사, 민자
	관광농업단지	공주시 탄천면	5,000	지방비, 민자
	오토캠프촌	공주시 탄천면	5,000	민자
	기업연수촌	공주시 탄천면	8,000	민자
	노인휴양촌	공주시 이인면	6,500	민자

자료 :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1991.

‘종합개발사업’은 대체로 1991년 건설부에서 수립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기본계획’에 의거하고 있으며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타당성 조사’(충청남도, 1991. 12)를 거쳐 특정지역 공시 이후인 1993년 12월에 종합개발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으나 1997년 현재에는 민자유치의 곤란 등으로 향후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 개발사업의 재원은 상당 부분을 민자유치에 의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은 본 사업의 성패가 결국 민자유치에 의하여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국비 등의 공공투자도 이같은 점에 초점이 두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자유치로 계획되고 있는 사업중에서도 처음부터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가령 연구교육촌 조성의 핵심 내용이 되는 대학의 설치 등이 그것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공주 및 부여의 단지조성 사업은 몇 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 첫째는 민자유치에 의하여 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둘째는 그 결과 수익성의 우선적 고려

가 사업의 구체적 진행내용까지 영향을 크게 미침으로써 백제권 개발이라는 원래 의도가 희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그것이다. 특히 백제문화의 재현을 위한 고증, 재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목표달성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나. 백제문화권 역사유적 발굴·보존 정비

백제문화권 정비사업 중 문화유적 정비사업은 공주·부여지역에 산재해 있는 백제문화유적 중 47건이 대상으로 되어 있고, 공주지역 22건 중에는 장곡사를 비롯한 청양지역의 문화유적 3건, 그리고 부여의 경우는 보령 성주사지가 각각 포함되어 있다. 이들 사업은 총사업비 637억원(국비 445, 지방비 192)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1979년부터 1996년까지 4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7건중 25건을 완료하였으며, 22건은 추진중으로 종합진도는 68%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다. 백제문화제의 행사의 개최

대표적 향토축제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백제문

〈표 10〉 백제문화권 역사유적 발굴 보존 정비

(단위 : 백만원)

지 역 별	사 업 량	사 업 비	기투자실적 (79~95년)	96년 실적	97~2001년
계	47건	63,695(44,512)	37,922(26,935)	5,579(3,761)	20,194(13,816)
공 주 지 역	22건	25,341(17,895)	15,566(11,117)	3,504(2,321)	6,271(4,457)
부 여 지 역	25건	38,354(26,617)	22,356(15,818)	2,075(1,440)	13,923(9,357)

주 : ()내는 국비임

자료 : 충청남도, 도정백서, 1997.

화제는 1997년 현재 제43회를 기록하였고, 양적 규모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운영과 그 내실에 있어서는 그동안 내외로부터 여러 문제점들이 논

의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행사의 내실적 발전의 과정상 풀어나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라 하겠다.

〈표 11〉 백제문화제 주요 행사의 연혁

행 사 명	개최시기	행 사 내 용
제1회 백제대제 개최	1955년 10월	· 부여 군민이 민간 주도로 부소산성에 제단을 설치하고 백제 삼충신(성충, 홍수, 계백)에 제향. 낙화암 아래 백마강에서 실시
제3회 백제대제 개최	1957년 10월	· 부여 군민이 민간 주도로 성금을 거출하여 삼충사를 건립하고 제향
제10회 백제문화제 개최	1964년 10월	· 제10회 문화제부터 명칭을 종전의 “백제대제”에서 “백제문화제”로 바꿈 · 백제문화제 거행시 박정희 대통령 참석
제12회 백제문화제 개최	1966년 10월	· 공주에서도 백제문화제 거행. 공주와 부여에서 동시에 실시
제20회 백제문화제 개최	1974년 10월	· 제 20회 백제문화제부터 개최 도시가 대전으로 확대되어 대전, 부여, 공주에서 백제문화제가 동시에 개최
제25회 백제문화제 개최	1979년 10월	· 충청남도 백제문화제 개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전을 제외하고 부여와 공주에서 윤번제로 문화제를 거행키로 함 · 공주에서 행사를 먼저 한 후에 부여에서는 소재인 경우 3개분야의 제전만 거행
제26회 백제문화제 개최	1980년 10월	· 윤번제 개최에 따라 부여에서 백제문화제 개최 · 대통령 내외 참석
제38회 백제문화제 개최	1992년 9월	· 부여에서 개최 · 개막식 시간을 처음으로 오후 2시로 함 · 전국에서 처음으로 군단위에서 천하장사씨름대회가 야외 행사로 개최
제40회 백제문화제 개최	1994년 10월	· 백제문화제의 범위를 서울까지 확대하여 백제 천도 행사가 처음으로 거행됨 · 위례성 → 웅진 → 사비로 천도행사 거행

행 사 명	개최시기	행 사 내 용
제41회 백제문화제 개최	1995년 10월	· 문화제의 범위를 서울까지 확대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됨 · 공주와 부여에서 윤번제로 개최하기로 함
제42회 백제문화제 개최	1996년 10월	· 부여에서 개최 · 백제 천도 행사는 서울 행사를 생략하고 공주 → 부여 천도행사만 실시하고 천도행렬에 북 300개와 주민 2,500명을 참석시키기로 함 ·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처음으로 참석 ·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국화꽃 잔치를 실시하고 행사기간 동안 백제의상입기 운동을 전개
제43회 백제문화제 개최	1997년 10월	· 공주에서 개최 · 백제문화제 복식, 제례, 행차, 천도행사 등의 고증을 통하여 행사를 추진 · 복식은 지역주민이 백제의상을 입고 참여, 관광객에 판매키로 함 · 각종 행사는 고증을 거쳐 이벤트 행사로 실시

자료 : 충청남도, 백제문화제 행사의 고증과 정리, 1996.

백제문화제의 문제점들은 ① 축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 사항이 되는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미흡하다, ② '백제문화제'라는 명칭에 걸맞는 이벤트 행사의 개발이 미흡하다, ③ 행사에 따라 그 구체적 전개에 있어서 전문가의 학술적 고증이나 자문이 미흡하다, ④ 행사의 종목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오히려 백제문화제의 특성을 희석시킨다, ⑤ 백제문화제의 관광자원화 방안이 미흡하다는 등이 지적되고 있다.

3. 백제문화권 관광개발의 문제점

가. 관광객을 유인하는 매력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백제문화권은 신라문화권과 달리 현재 남아 있

는 문화재가 많지 않은 편이고 분포지역도 공주, 부여, 연기, 청양, 예산, 홍성, 익산, 서울 등 광범위하며, 현재 보존되고 있는 문화재의 규모도 소규모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며, 관광객을 백제문화권으로 유인할 있는 매력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역사문화 관광의 매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문화자원이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적 고증을 거쳐 문화재를 정비 또는 복원, 재현되어야 하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부족한 실정이며, 백제문화권은 그 동안의 발굴 문화재가 많으나 신라문화권과 비교하여 널리 알려진 대규모의 문화재가 부족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발굴, 복원, 재현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 역사문화자원과 관광개발을 연계한 매력창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나아가 이러한 현상은 과거 관람형태로 이루어졌던 역사문화 관광활동이 오늘날의 참여형 관광행태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잠재관광객들의 수요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어 날로 방문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역사문화 관광은 수학여행을 비롯한 단체관광객이 많고, 교육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관광활동에 비하여 큰 매력을 가져야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다. 백제문화권 개발에서 백제문화유적의 발굴·복원·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백제역사민속촌, 백제역사연구교육촌 등을 개발하는 것은 많은 역사문화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나. 관광객을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어느 지역의 관광지이든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역사문화 관광지는 역사문화자원만으로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으며, 숙박, 음식, 교통, 쇼핑, 오락, 인접 관광시설 등이 갖추어 있을 때 관광객 유치에 활성화 될 수 있다. 백제문화권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접근할 수 있는 도로와 백제문화권내를 연결하는 도로가 매우 열악한 편이며, 관광객이 체류하면서 관광활동을 할 수 있는 숙박, 음식, 쇼핑, 오락시설 등 제반 관광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역사문화 관광의 주요 방문 관광객인 단체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공주·부여에 2급이상 호텔이 전무하고, 단체 수학여행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유스호텔과 여관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 음식점에 있어서도 20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관광식당은 한 곳도 없고, 지역 특유의 관광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는 쇼핑시설과 관광활동을 위한 오락시설 등은 매우 열악하여 전반적으로 관광객을 위한 제반 모든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에 방문하고 있는 관광객들도 접근성과 관광시설 이용의 불편성, 관광활동의 단순성 때문에 방문객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 수익성 확보의 곤란으로 민자유치가 어렵다.

역사문화 관광개발은 대규모의 투자자원을 필요로 하면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자자원의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민자유치에도 곤란을 겪는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백제문화권 개발은 투자예산의 대부분이 지방비와 민자를 유치토록 계획되어 있고, 국비 투입계획이 전체의 18%에 불과하여 현재에도 계획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역사문화 관광개발의 매력을 확보하지 못한 개발은 사업성의 불투명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숙박, 음식, 쇼핑, 오락시설 등 관광기반시설에 투자를 회피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접근도로, 문화재 발굴·복원·정비 등을 공공투자를 먼

저 실시하고, 백제역사재현단지와 공주문화관광단지 등 거점 개발지역과 공주·부여 등의 도시지역에 숙박, 음식, 쇼핑, 오락시설 등의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할 것이다.

라. 역사문화 관광객의 표적시장 선정과 마케팅 활동이 부족하다.

백제문화권에 장기적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광객을 백제문화권의 관광객으로 중점적으로 유치할 것인지, 즉 백제문화권 관광시장을 이용할 주요 고객의 표적시장을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백제문화권을 경유하는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였기 때문에 주요 고객 유치를 위한 표적시장을 선정하지 못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한 관광마케팅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백제문화권을 주요 방문 대상으로 했던 접근성이 양호한 수도권, 역사문화 관광의 주요 관광객인 단체 및 수학여행 학생, 역사문화와 관련된 동호인이나 단체, 백제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그 가운데 특히 일본인 등을 백제문화권의 주요 표적시장으로 선정하고, 이들 잠재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이 필요하다.

마. 종합적인 개발 및 관리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역사문화 관광개발은 앞에서 살펴본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백제문화권 개발은 역사문화자

원의 매력창출, 관광 기반편의시설의 확충, 개발사업의 수익성 확보에 의한 민자유치의 활성화, 주요 유치 관광객 표적시장 선정과 마케팅 활동 등이 상호 종합적이면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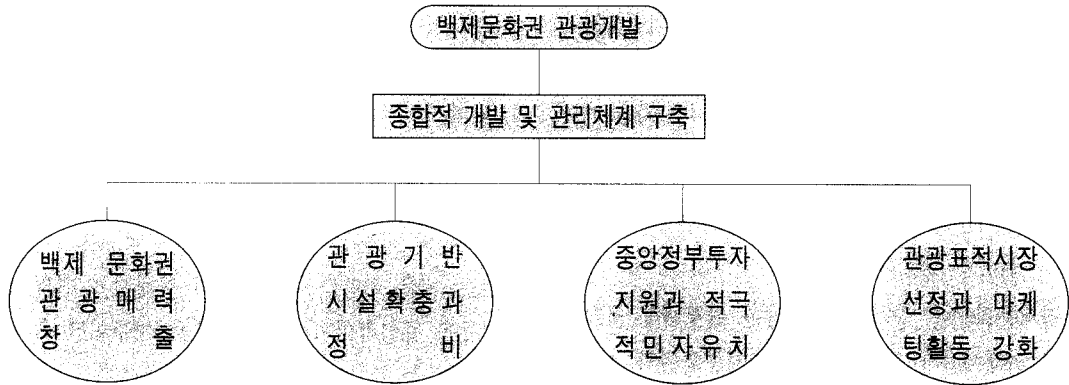
따라서 백제문화권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위의 요인들을 종합적이면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향후 관리체계 구축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지방정부, 지역주민, 민간기업의 상호간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Ⅳ. 백제문화권 관광개발의 기본방향과 개발방안

1. 백제문화권 관광개발의 기본방향

첫째, 백제문화권 관광개발은 종합적인 개발 및 관리체계에 의하여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따라서 문화재 발굴·복원·정비, 백제문화권 관광코스 개발, 사회간접자본 및 기반시설 확충, 민자유치를 위한 기반 여건조성과 제도적 정비, 관광표적시장 선정과 마케팅 활동 등을 병행하며 효과적으로 추진토록 한다.

둘째, 차별화된 백제문화권의 매력을 창출한다. 무형의 문화재를 유형화 하는 단계에 전문가들의 철저한 고증과정을 거쳐 복원·정비·재현하고, 이러한 과정에 관광객을 직·간접적으로 참여시키고, 백제문화제에서 실시되고 있는 역사문화 행사들을 관광이벤트화 하고, 백제역사유물·유적들은 기념품화 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



〈그림 2〉 백제문화권 관광개발 접근 개념도

셋째, 백제문화권 연계 교통로와 지역내의 관광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한다. 호남고속철도, 천안-공주-논산간 고속도로, 공주-보령간 고속도로, 공주-서천간고속도로, 금강주운, 공주-대전간 경전철을 건설하고, 백제대로와 지역내 연결도로를 조기에 구축한다. 또한, 공주·부여의 거점도시지역과 백제문화권내 관광지내에 숙박, 음식, 쇼핑, 오락시설 등 관광편의시설을 중점적으로 개발한다.

넷째, 백제문화권의 자원매력과 사업성, 편리한 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잠재관광객을 대상으로 표적시장을 선정하고 마케팅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백제문화권 관광개발의 지역이미지(C.I.)를 확정하여 백제문화권 관광문화를 창출한다.

2. 백제문화권의 특성에 따른 관광자원 매력창출과 상품개발 방안

첫째, 문화유적의 보존과 전시에 중심기능을 수

행하는 박물관의 확충과 기능 강화, 특성화 작업을 추진하여 지역적 특성에 근거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문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각 지역의 문화유적을 지역에서 보존·관리·전시할 수 있도록 시군마다 지역적 특색을 살리는 형태로 특화된 1시군 1향토박물관 건립을 추진한다.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문화적 요소를 한 곳에 집중 전시함으로써 유물의 전시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고고·미술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의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생활상을 담고 있는 향토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지역귀속감을 느끼고 생활의 역사성을 실감할 수 있는 향토문화유산의 교육장 구실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점에서 연기군의 사설 향토박물관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전문적인 특성과 고유성을 가진 전문박물관의 건립을 촉진하여 지역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한다. 현재 건립되었거나 추진중인 공주민속극박물관, 박물관진판소리박물관, 성보박물관, 우남생활문화박물관, 문봉박물관과 같은 테마를 가진 전문박물관의 설립을 위해 기업의 문화투자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한다

둘째, 도차원에서 새로운 무형문화재를 개발하고 보존·전수하는 작업을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를 비롯한 각 시군에서 지역 전통예술의 장르별 기능보유자를 선정하여 그 활동을 지원하고 기능계승을 위한 전수공간을 마련한다. 공연과 전시 지원 및 포상제도를 활성화 한다. 또한 음식 조리, 복식, 가구나 기물의 제작 및 수리, 공예 등 전통적인 기능을 보유한 장인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 솜씨가 전승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시에 이들의 활동이 문화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셋째, 우수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부가가치의 척도가 되는 우수한 디자인이 접목되어야 한다. 이러한 디자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현대감각을 살린 디자인에 대한 연구·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문화를 대표하는 각종 문양 색채 조형 등을 소재로 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 디자인을 선정·시상함은 물론 수상한 디자인은 문화상품 디자인 책자로 발간하여 도내 문화상품 개발자에게 배포, 고부가가치의 상품화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지역내의 문화상품 또는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하여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 상품개발에 필요한 투자능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영세성을 고려할 때 시범 문화상품 제작을 위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도내의 박물관 등을 활용한 문화상품 디자인 개발지원 체계의 구축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도 단위 우수 문화상품전을 연례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관심과 호응도를 높이며, 민간기업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전람회로 발전시킨다. 문화상품 관련업체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판매시설과 유통망, 그리고 홍보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도 차원의 문화상품 전시 판매장인 충남문화상품 상설전시관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넷째, 충남의 향토축제는 행사의 기획이나 홍보의 전문성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향토축제의 관광자원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축제의 개성을 살리고 이것을 관광이벤트화 해야 한다. 연례적으로 비슷한 내용과 수준의 행사종목으로 개최하는 것을 지양하여 축제명, 개최시기, 축제행사 내용 등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재검토 조정하고, 행사주체도 이제까지의 관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에 의해 축제가 기획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역축제의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축제위원회를 민간법인으로 독립시켜 상설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의 참여와 축제기획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향토문화 축제의 전국화·세계화 방안을 강구한다.

3.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코스 상품의 개발 방안

첫째, 역사문화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유적의 특성이나 접근의 연계성을 고려한 문화유산의 패키지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관광루트와 문화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자연경관이나 문화재관람에 그치는 단순 관광패턴에서 체험적 문화교육관광으로 관광패턴을 전환시켜 체재형 관광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권역별 특성에 따라 그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의 유적지 정비 등을 통해 충남의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한 문화유적단지 조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문화유적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문화유산의 특성이나 테마에 따라 문화유산을 패키지로 묶고 그에 따른 다양한 테마투어코스를 개발해야 한다. 단순 문화재 관람이나 자연경관 관람에서 체험적 문화교육관광으로 관광패턴을 전환시킨다. 그리고 보다 다양한 문화관광루트의 개발을 위해 문화관광코스 개발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셋째,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제2의 해석과 연출작업을 통해 역사문화 관광의 새로운 매력을 창출한다. 단순히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형태의 관광이 아니라 철저한 고증작업을 거쳐 그 유적지만이 갖는 고유한 속성을 살릴수 있는 공간배치 등을 통해 관광자원으로서의 시장성을 높인다. 또한 외국어 특히 영어와 한자를 포함한 안내판의 정비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역사 문화관광자원 해설시스템의 구축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첨단 입체영상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재 복원기법을 활용하여 역사적 인물, 역사적 사건 등을 간접체험하도록 만드는 입체영상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험관을 설치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역사적 상황을 재현하는 등의 사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관광코스 개발시 공주·부여 이외 지역의 백제유적도 관광코스로 개발하여야 한다. 백제문화권 문화재 정비사업에도 백제 도성이었던 공주·부여가 중심이 되어 있지만 청양, 예산, 홍성, 연기, 논산 등 인근 지역의 일부 문화재가 그 대상에 포함되어 관광코스로 상품화 되는 관광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4. 백제문화권 개발 자원의 확대와 연계자원의 활용방안

첫째, 백제문화권에 소재한 타 시기의 유적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다. 즉 백제 이전의 유적 혹은 백제 이후의 주요 유적중에서 적합한 문화유적자원을 백제문화권 개발의 일환으로 중점 개발하는 것이다. 가령 백제 이전의 선사유적으로서 금강변에 있는 공주 석장리 구석기 유적이나 청동기 시대의 우리나라 대표적 유적의 하나인 부여 송국리유적, 혹은 조선시대의 분청사기 도요지인 공주 학봉리 요지의 개발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는 이미 백제문화권 사업의 범주안에 들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들 유적은 단순한 학술적 자료로서의

중요성 이상의, 관광 교육자원으로서의 개발의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중점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공주·부여의 인근지역에 있는 백제유적을 중점 개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유적의 산포성(散布性)이라는 개발상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도로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될 것을 예상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점 개발 대상에 넣을 수 있는 유적으로서 예산의 임존성 혹은 서산 마애불 등과 이보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유적이라 하더라도 개발 가능성을 여러모로 모색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서 논산의 경우는 공주·부여를 제외하면 가장 풍부한 백제고분의 분포지로서, 가령 백제고분공원과 같은 유적을 구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유적의 매장상태, 교통 등의 지리적 입지, 주변 경관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백제고분 집중지역을 발굴 조사한 후 이를 고분공원으로 조성하고 출토된 유물을 현지에서 관리함으로써 현장감을 높이는 것이다. 백제고분 공원은 그 한 예를 든 것이지만, 다른 유적의 경우도 그 개발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백제문화 자료의 상대적 빈약성을 완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유적을 확인하는 것이다. 부여에서의 백제 금동향로의 발굴에서 보는 것처럼 지하 매장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계속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백제문화권 개발의 자원을 확대하는 또

하나의 방편은 개발지역의 환경과 경관을 개발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자원은 금강이다. 경주의 경우 문화유적의 집중 등 개발의 조건상 백제권 보다 좋은 점들이 있지만, 금강이야말로 경주가 갖지 못한 천연의 귀중한 개발자원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백제문화권 개발과 관련한 금강의 중요성은 더욱 주목되고 강조될 필요가 있다.

백제문화권과 관련한 금강의 중요성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번째는 금강의 역사성이다. 금강은 백제시대 서울과 지방, 그리고 백제를 국제적으로 연결시킨 가장 중요한 교통로였다는 점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의의가 매우 중요하다. 두번째는 백제문화권의 가장 중요한 유적은 금강을 그 배후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주의 공산성이나, 무령왕릉, 곰나루, 부여의 부소산성이나 구드레 등은 금강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삼고 있다. 세번째는 백제문화권 개발에 있어서 금강의 경관은 최대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은 계속 파괴되어가고 있다. 최근 수 년동안 공산성과 왕릉 주변 금강에서는 모래채취가 지속적으로 허용됨으로써 백제문화권 개발의 가장 중요한 지점의 경관이 훼손되고 있다(윤용혁, 1995). 따라서 이를 방지하여 금강주변개발을 중심으로 한 백제문화권 관광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백제문화권 개발 재원확보와 투자유도 방안

백제문화권 개발을 위한 재원의 확보방안은 크게 역사문화유적의 발굴·복원·정비 등에 소요되

는 문화재부문의 투자부문과 관광기반시설의 투자부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문화재부문의 투자는 과거에 공공부문에서 투자 되어왔던 것과 같이 역할분담을 그대로 두되 문예진흥기금의 배분을 현행의 신청방식에서 도가 능동적으로 특정 예술인 및 특정단체를 지정하여 충남의 특정 문화부문을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며, 연말 지원성과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일년 단위가 아닌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용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도 단위의 문예진흥기금으로는 시군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고 지역적 특성을 살릴 지원도 힘들므로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군별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하여 문화예술 육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공공부문의 부족한 문화진흥재원을 보조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의 활발한 문화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 1995년도에 민간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액은 총 988건에 926억원으로 과거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문화예술지원이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이미지를 높이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추어 지역의 농협, 수협, 대한상공회의소, 금융권 및 지역 연고기업들로 하여금 지역기업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의 문화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편일 것이다. 그 외에도 문예진흥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원조성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가령 문화재 관람료 부

가모금, 기업체 제휴 문화사업, 문화가꾸기 통장, 문화신용카드의 발급 등 재원조성의 다각화를 시도하며, 개인이나 법인의 문화재단 설립을 유도하여 문화진흥재원을 확충한다.

관광기반시설 투자부문 가운데 관광단지부지조성, 접근도로, 주차장, 편의시설 등은 공공부문에서 담당하고, 숙박, 상업, 음식, 오락시설 등은 민간부문에서 투자를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역사문화자원의 매력창출과 지역 내외를 연결하는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6. 백제문화관광 표적시장의 선정과 관광마케팅 활동 전개

지금까지 백제문화권을 방문하는 주요 관광객은 내국인은 학생수학여행과 일반단체, 수도권과 대전권 지역의 가족단위 경유형 관광객, 외국인인 일본인 단체 관광객 등이다. 이는 이들 방문객들이 백제문화권의 주요 표적시장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백제문화권의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위에서 시사해 주고 있는 관광시장을 대상으로 표적시장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즉, 표적시장별 관광대상 고객의 욕구를 분석하여 표적시장을 세분화 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점 홍보와 정보제공을 하는 관광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행사에 역사문화 관광코스를 만들어 단체 관광상품 제공·소개, 관광안내해설 시스템과 역사문화 관광 D/B구축, 역사문화 관광안내소 운영, 역사문화 이벤트 개최, 각종 홍보사업 등을 실시한다.

V. 나가는 글

역사문화자원의 관광개발은 문화유산의 원형훼손과 고유성의 파괴를 방지하고 전통문화가 지속적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단순히 문화재 보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 의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연결 도로망의 정비, 제반 편의시설 확충 등 지역개발에 크나큰 효과가 기대되어 지는 것이다.

따라서 백제문화권이 개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계획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온 추진내용을 검토분석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백제문화권 관광개발을 위한 기본방향의 틀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백제문화권 개발은 종합적인 개발 및 관리체계에 의하여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차별화된 백제문화권의 매력을 창출한다. 셋째, 백제문화권 연계 교통로와 지역내의 관광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한다. 넷째, 백제문화권의 자원매력과 사업성, 편리한 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잠재관광객을 대상으로 표적시장을 선정하고 마케팅활동을 강화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방향에 따른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종합적

으로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이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앞으로 좀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열린충남**

참 고 문 헌

- 교통개발연구원, 역사문화 관광코스의 개발방안, 1994.
- 문화정책개발원,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지표 조사연구, 1995
- 문화체육부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예술통계, 1995.
- 박석희, 신관광자원론, 일신사, 1997.
- 안중윤, 관광학개론, 창문각, 1981.
- 여흥기,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열린충남 제2권 제4호 통권6호, 1996, 겨울.
- 윤용혁, “백제문화권 개발과 충남발전”, 21세기를 여는 충남지역의 발전방향, 충남발전연구원 개원심포지엄, 1995.
- 충청남도, 공주 · 부여권 관광개발기본계획, 1996.
- _____, 도정백서, 1997.
- _____, 문화재목록, 1997.
- _____,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1991.
- _____, 백제문화제 행사의 고증과 정리, 1996.
- _____,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안), 1997
-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 1996.
- _____, 외래 관광객 여론조사, 1996.
- _____, 전국관광 장기종합개발계획, 1989.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예연감, 1996.
- _____, 문화관광에 관한 기초연구, 1989.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 · 체육 · 관광의 연계방안, 1995.
- _____, 향토축제 활성화를 위한 모형 개발 연구, 1994.

地域開發水準의 變化패턴과 地域均衡開發方向

엄수원
(嚴洙元)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원
책임연구원



I. 序論

II. 理論的 背景

III. 地域開發水準에 대한 實證的 分析

IV. 地域均衡開發을 위한 政策的 示唆點

V. 結論

I. 序論

1. 研究의 背景 및 目的

본 연구는 지역간 불균형성장에 관한 문제인식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해방이후 우리나라의 제반 개발정책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성장을 통한 총

체적인 빈곤타파를 추구하는데 있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간개발정책은 집적경제이론에 바탕을 둔 불균형개발론으로서의 성장거점개발전략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성장거점개발전략은 일정한 계획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집약된 투자에서 오는 집적경제이익을 창출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성장거점지역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내재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또한 성장거점지역의 경제적성장이 이루어진 후 성장거점지역은 그 성장력을 주변지역으로 확산시켜 낙후·침체되어 있는 주변지역의 성장을 유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성장거점전략의 초기단계에서는 공간지리상 불균형적인 성장을 가져오지만 일정한 시점에 이르면 그 성장력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어 결국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여년간 추진되어 온 이러한 개발정책은 결과적으로 공간상의 불균형성장만을 초래했으며,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를 가져옴에 따라 국토공간구조상에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와서는 기존의 공간개발전략에 대한 반성과 함께 향후의 지역개발정책의 기초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모색되고 있는데, 이는 집중된 하향식의 거점개발에서 분산된 상향식의 균형개발로의 전략적 전환을 의미하고 있다. 즉,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하향식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상향적 개발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제반 개발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이 지니는 다양한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지역의 개발과제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지역별 개발수준 및 잠재력과 지역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분석·규명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역별 사회·경제적 제반 분야의 개발수준 및 잠재력을 분석·평가하고, 일정기간에 있어서 지역간 개발격차의 변화패턴을 규명해 봄으로써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먼저 지역개발수준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의 장으로써, 지역개발수준 분석의 필요성 및 의의를 살펴보고, 기존의 관련 연구문헌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3장에서는 지역개발수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의 장으

로써 먼저 분석틀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지역간 개발격차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4장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균형개발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고 있으며, 개략적인 지역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85년도와 1993년도의 두개의 시점을 기준연도로 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전체 군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85년도에는 139개군, 1993년도에는 136개 군이 대상지역으로 설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의 시군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국토공간구조의 변화패턴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적으로 시와 군은 각각 도시 및 농촌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분석과정에 있어서 동일변수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자칫 분석상의 오류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군지역만을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접근방법은 1985년도와 1993년도의 각 연도에 대한 평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동기간동안의 지역개발수준의 공간지리상의 변화패턴을 규명하였다. 분석기법은 비교적 단순하면서 지역개발수준분석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복수지표의 평가방법으로서의 표준화점수기법(Z-SCORE)¹⁾을 이용하였다.

II. 理論的 背景

1. 地域開發水準分析의 必要性 및 意義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전략은 1960년대이후 하향식개발전략 위주로 전개되어져 왔으나 국토의 불균형성장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공간개발의 전환적 접근방법으로서 상향식개발전략이 추진되어 오고 있다. 즉, 기초수요이론에 근거를 둔 지역생활권개발전략이 추진되면서 구체적으로는 중소도시개발, 도농통합개발 등의 제반 개발전략이 전개되고 있다.

하향식개발전략의 특성은 획일성, 중앙정부주도 등으로 성격화 되는 반면에, 상향식개발전략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방적·지역적 측면에서 특징지워진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상향적개발전략의 효율적인 달성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합리적인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곧 제반 공간개발계획수립은 지역적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이 지니고 있는 부문별 개발잠재력 혹은 국토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상대적인 개발수준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합리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연 '지역개발수준'의 개념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는 지역개발수준분석에 있어서 분석의 틀을 설정하는데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의 성장과 지역의 발전이라는 개념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상호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소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지역의 성장이 경제의 규모나 인구의 팽창을 가리킨다면 지역발전은 단순한 양적인 팽창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사회적구조가 질적으로 바뀌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발전은 지역성장보다 더욱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황명찬, 1995, p.163). 그러나 이를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의 개념은 모두 지역개발수준의 증대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성장과 지역발전이라고 하는 양자의 개념은 지역개발수준의 증대라고 하는 개념으로 일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성장 혹은 발전은 경제적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질 수 있으나 사실상 이들은 보다 광의의 개념에서는 사회의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수준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개발수준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1) 다양한 구성지표들의 실측치는 모두 질적·양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아무런 가공없이 상호 비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대적인 측면에서 이들을 표준화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표준화를 위한 방법중의 하나가 바로 표준화점수기법(Z-SCORE)이다. 이는 분석식은 $Z_i = (X_i - M) / S$ (X: 원점수, M: 평균치, S: 표준편차)로써, 일반적으로 지수의 값이 커질수록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既存研究의 動向

지역개발수준 분석에 관한 기존의 연구문헌을 살펴보면 최영출(1991)은 인구, 교육 문화, 산업경제, 재정, 사회복지 등 5개 부문과 37개 지표를 설정하여 지역개발수준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며, 김기재(1993)는 인구 고용, 지역경제, 교통 통신, 주거환경, 교육 의료 복지, 지방재정 등 6개 부문 44개 지표를 분석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중앙일보(1995)에서도 이와 유사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건강한 생활, 안전한 생활, 교육·복지, 경제생활, 편리한 생활, 문화생활 등 6개 부문 36개의 지표를 분석지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한표한(1995)은 건강성, 경제성, 안전성, 쾌적성, 편리성 등 5개 부문 68개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송두범(1995)은 충남의 소도읍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경제, 교통통신, 생활환경, 교육·의료·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재해 등의 5개 부문과 34개 지표를 이용하여 소도읍개발수준측정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지방행정연구원(1989)은 지역개발수준 분석을 위한 부문구성을 지역개발의 정의에 부합되는 소득, 산업기반, 서비스시설, 교통 통신, 의료, 교육, 생활환경의 7개 부문으로 압축하여 제시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1)의 또 다른 연구보고서에서는 개발수준 분석이 인구밀도 및 인구증감률, 면적 및 토지자

원, 산업 및 소득구조, 교통·통신부문, 생활환경부문, 문화·복지부문의 6개 부문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1985)에서 수행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격차수준 분석과 동기관에서 수행한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 추진실적평가연구(1990)에서는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수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소득, 교육 문화, 보건위생, 교통통신, 재정, 주거환경, 고용산업 등의 7개 부문에 18개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연구과정(1991)에서도 전국 시군의 개발수준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평가지표를 단순화 하여 1985년에서 1989년까지의 인구증감과 제조업인구(1988)만의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다. 또한 김정연·이정환(1987)은 부문구성지표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상기와 동일한 부문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개발수준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개발수준 분석을 위한 부문설정 혹은 분석지표의 구성은 사용자의 견해와 작성목적, 자료구득 가능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지역개발수준을 객관적으로 완벽한 수준에서 지표로 표현하여 측정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III. 地域開發水準에 대한 實證的分析

1. 分析部門 및 指標의 設定

지역개발수준 분석을 위한 부문구성 및 지표는 지역개발수준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통계적 분석 구성요소가기 때문에 지역개발수준의 개념에 부합하는 부문구성과 부문을 잘 대표할 수 있는 지표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개발수준 분석을 위한 부문 및 지표구성은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률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학자 혹은 기관마다 그들의 목적에 따라 분석지표구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분석지표 산출방법도 상이한 실정이다. 이는 지역개발수준의 개념적 범주가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 따라 개발수준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지표로 표현하여 측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김형국(1988, pp.58-59)은 이러한 지역개발수준 분석을 위한 분석부문 및 지표선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대표성 기준으로 측정지표는 지역사회의 개발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지표를 망라하고 지역사회의 개발수준을 나타내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둘째, 구득가능성 기준으로 기술적으로 측정가능하고 또 현실적으로 구득이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셋째, 비교의 객관성 기준으로 지역간의 비교가 불가능한 만큼 편차가 매우

큰 지표 또는 일부지역에서 지표를 수집하기 곤란한 지표는 가급적 제외시키면서 지역간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넷째, 반복성 기준으로 선정된 지표가 시간의 변화에 관계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적용가능한 지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책성 기준으로 지표를 통한 지역별 발전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향후 지역개발정책을 제시할 기초자료를 생산하는데 일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역정책의 분석에 용이한 지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여섯째, 단순성 기준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간단한 지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일곱째, 효과성 기준으로 정(+)과 부(-)의 효과를 내포하는 지표를 구분하지 않고 선정해야 하나 결과분석에서는 이들 요인을 따로 유의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지역개발수준 분석을 위한 부문 및 지표구성은 상기의 분석지표선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기존연구문헌들의 사례를 근거로 하면서 자료수집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표 1>과 같이 소득, 농업기반, 광공업, 서비스시설, 의료, 교육, 주거환경, 사회기반시설, 행·재정 등의 9개 부문, 25개의 분석지표로 구성하였다.

2. 地域開發水準分析

가. 1985年度

종합개발수준을 보면 시흥군의 경우 종합지수가 1.8093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개발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표 1> 분석지표 및 부문의 구성

부 문	지 표	단 위	산 정 방 법	출 처
소 득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천원	지방세부담액/총인구	지방재정연감
농 업 기 반	경지율	%	경지면적/총면적	도통계연보
	기계화 정도	대수	농기계보유대수/총농가수	"
	경지정리율	%	경지정리면적/총경지면적	각 군자료
	수리안전답률	%	수리안전답면적/총답면적	농업기반조성사업
	경작규모	ha	경지면적/총농가수	도통계연보
광 공 업	광공업비중	%	광공업종사자수/총인구	지역통계연보
	광공업종사1인생산액	천원	광공업생산액/광공업종사자수	"
	가구당광공업부가치	천원	광공업부가가치/총가구수	"
서 비 스 시 설	천인당식품접객업수	개소	총접객업소수/총인구×1,000	도통계연보
	천인당환경위생업수	개소	총위생업소수/총인구×1,000	"
	만인당 시장수	개소	총시장수/총인구×10,000	"
	만인당 금융기관수	개소	금융기관수/총인구×10,000	"
의 료	인구 만인당 의사수	인	총의사수/총인구×10,000	"
	인구 만인당 병상수	개수	총병상수/총인구×10,000	"
교 육	국민학생비중	인	국민학생수/총인구×100	"
	중고등학생비중	인	중고등학생수/총인구×100	"
주 거 환 경	APT보급률	%	APT수/총가구수	인구주택총조사
	입식부엌 보급률	%	입식부엌가구/총가구수	"
	수세식화장실 보급률	%	수세식화장실가구/총가구수	"
사 회 기 반 시 설	상수도보급률	%	급수인구/급수구역내 인구	도통계연보
	도로포장률	%	도로포장면적/총도로면적	"
행 · 재 정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총수입	지방재정연감
	천인당 공무원수	인	공무원수/총인구×1,000	도통계연보

며, 평택군 0.9247, 철원군 0.7312, 경산군 0.6893,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천군 0.5567, 양구군 0.5382, 양산군 0.5274, 거제 종합개발수준 상위 10위권내에 포함되는 지역들
 군 0.4893, 광산군 0.4886, 용인군 0.4868 등의 순 의 공간지리상 분포패턴을 보면 <표 2>에서와 같

〈표 2〉 부문별 개발수준 상위 10위권내 지역

순 위	종 합	소 득	농 업 기 반	광공업	서비스 시 설	의 료	교 육	주 거 환 경	사회기반 시 설	행· 재정
1	시흥군 1.8093	시흥군 7.6459	철원군 2.4047	시흥군 4.2620	화천군 2.7276	고흥군 3.6991	시흥군 1.3748	시흥군 6.5085	칠곡군 2.0915	시흥군 2.1219
2	평택군 0.9247	여천군 4.2268	옥구군 1.7463	대덕군 2.7080	양구군 2.4678	보령군 3.2358	완도군 1.1140	거제군 3.8904	울진군 1.9112	양산군 1.3832
3	철원군 0.7312	용인군 2.8830	김포군 1.6550	정선군 2.6337	인제군 2.3766	아산군 2.4277	장수군 1.0815	고양군 2.7579	고령군 1.5956	용인군 1.1936
4	경산군 0.6893	양산군 2.6143	파주군 1.5012	울산군 1.7874	울릉군 2.3440	임실군 1.5885	무주군 1.0676	남양주군 2.5987	남제주군 1.4686	울릉군 1.1764
5	이천군 0.5567	화성군 2.0917	김제군 1.4688	용인군 1.4316	경산군 2.0224	광산군 1.4506	영월군 1.0606	광주군 1.8765	경산군 1.3986	여천군 1.1397
6	양구군 0.5382	이천군 1.7931	평택군 1.2813	원주군 1.3991	철원군 1.6017	무주군 1.3915	함평군 1.0338	평택군 1.7478	선산군 1.3086	구례군 1.1193
7	양산군 0.5274	단양군 1.6587	익산군 1.1761	영월군 1.2604	연천군 1.1909	서산군 1.3349	평택군 1.0154	용인군 1.7205	달성군 1.3055	의령군 1.0611
8	거제군 0.4893	울주군 1.5393	부안군 1.1715	양산군 1.2531	포천군 0.9897	진안군 1.2951	산청군 1.0035	양산군 1.6350	영풍군 1.1864	울주군 0.9692
9	광산군 0.4886	경산군 1.4348 평택군 1.4348	고양군 1.0071	거제군 1.2189	영덕군 0.9709	순창군 1.2859	영광군 0.9394	대덕군 1.6091	강진군 1.0858	이천군 0.9119
10	용인군 0.4868	-	강화군 0.8955	화성군 1.1915	보은군 0.9177	공주군 1.1736	논산군 0.8969	화천군 1.4799	합천군 1.0560	평택군 0.8808

이 대체적으로 대도시권 주변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권역의 시흥, 용인, 이천, 평택, 대구광역시 권역의 경산, 광주광역시권역의 광산, 부산광역시 권역의 양산, 거제군 등의 공간분포패턴을 보이고 있다.

부문별 개발수준을 보면 소득부문의 경우 시흥, 평택, 철원, 경산, 이천군 등의 순으로 주로 수도권과 부산권 주변지역이 비교적 높은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농업기반은 철원, 옥구, 김포, 파주, 김제 등으로 주로 평야지대적 특성을 지닌 지역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광공업은 시흥, 대덕, 정선, 울산, 용인 등으로 대도시인근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서비스시설은 전형적인 내륙농업지역 혹은 관광지역 등에서 소비지향적인 측면으로 발달하는 것이 보편적인 양상인 바, 공간지리상 내륙지역에 속하는 화천, 양구, 인제, 울릉, 경산 등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의료부문은 고흥, 보령, 아산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부문은 시흥, 완도, 장수, 무주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거환경부문은 시흥, 거제, 고양, 남양주, 광주 등으로 대도시권 주변지역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부문은 칠곡, 울진, 고령, 남제주, 경산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재정부문은 시흥, 양산, 용인 등으로 수도권 주변지역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가장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표 3>과 같이 경남 통영군으로서 종합개발지수가 -0.7861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로 매우 침체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승주군 -0.7506, 청원군 -0.6391, 신안군 -0.6300, 웅진군 -0.5978, 금릉군 -0.5687, 춘천군 -0.5680, 남원군 -0.4957, 안동군 -0.4746, 중원군 -0.4716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공간분포패턴을 보면 도서해안지역과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에 걸쳐 산재되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낙후지역의 부문별 개발수준을 보면 소득부문의 경우 승주, 신안, 남원, 통영, 진도 등의 순으로 나타나 도서지역과 내륙원거리지역 등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농업기반부문은 울진, 완도, 무주, 통영, 웅진 등 도서지역이라는 지형상의 특성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광공업부문도 영양, 남해, 군위, 의령, 울릉 등의 산간내륙지역과 도서임해지역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시설부문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의료부문은 중원, 제원, 금릉, 안동, 양주 등의 순으로 나타나 내륙오지지역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부문도 내륙산간오지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거환경부문도 남원, 안동, 신안, 금릉, 승주 등으로 내륙오지 및 도서지역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부문도 지형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아 도서지역 및 내륙오지지역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행·재정부문은 공주, 정읍, 청송 등 내륙지역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3〉 부문별 개발수준 하위 10위권내 지역

순 위	종 합	소 득	농 업 기 반	광공업	서비스 시 설	의 료	교 육	주 거 환 경	사회기반 시 설	행 · 재정
1	통영군	승주군	울진군	영양군	통영군	중원군	문경군	남원군	웅진군	공주군
	-0.7861	-1.0288	-1.2338	-0.3356	-1.4401	-1.0371	-2.1570	-0.7618	-1.5679	-0.8803
2	승주군	신안군	완도군	남해군	남원군	제원군	양주군	안동군	신안군	정읍군
	-0.7506	-1.0139	-1.2203	-0.3345	-1.3142	-1.0346	-1.9916	-0.7598	-1.5458	-0.8136
3	청원군	남원군	무주군	군위군	옥구군	금릉군	고양군	신안군	화천군	청송군
	-0.6391	-0.8347	-1.1396	-0.3338	-1.2618	-0.9552	-1.9083	-0.7538	-1.4713	-0.7277
4	신안군	통영군	통영군	의령군	신안군	안동군	상주군	금릉군	여천군	안동군
	-0.6300	-0.8198	-1.0978	-0.3337	-1.1596	-0.8927	-1.8132	-0.7260	-1.2710	-0.7240
5	웅진군	진도군	웅진군	울릉군	완주군	양주군	광주군	승주군	연천군	금산군
	-0.5978	-0.8049	-1.0237	-0.3330	-1.1337	-0.8652	-1.6442	-0.7041	-1.2160	-0.7025
6	금릉군	장수군	거제군	진천군	정읍군	연천군	승주군	의령군	제원군	문경군
	-0.5687	-0.7900	-0.9868	-0.3318	-1.1176	-0.8470	-1.4860	-0.6764	-1.1245	-0.6853
7	춘천군	순창군 구례군 장흥군 의령군 -0.7302	임실군	고흥군	여천군	춘성군	옥구군	임실군	양구군	완주군
	-0.5680		-0.9433	-0.3312	-1.1080	-0.8400	-1.3591	-0.6742	-1.1018	-0.6664
8	남원군		진안군	부안군	춘성군	통영군	남양주군	여천군	정선군	영덕군
	-0.4957		-0.9397	-0.3308	-1.0512	-0.8305	-1.2738	-0.6687	-1.0840	-0.6649
9	안동군		남해군	영광군	승주군	고양군	금릉군	함평군	완도군	영일군
	-0.4746		-0.9388	-0.3308	-1.0270	-0.8209	-1.2527	-0.6681	-0.9899	-0.6482
10	중원군		장수군	순창군	익산군	원성군	청원군	진안군	홍천군	금릉군
	-0.4716		-0.8343	-0.3304	-1.0100	-0.8021	-1.2270	-0.6621	-0.9742	-0.6370

나. 1993年度

종합개발수준을 보면 용인군의 경우 종합지수가 1.2415로 나타나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개발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며, 양산군 1.2245, 이천군 0.8987, 울산군 0.7104, 음성군 0.6955, 평택군 0.6899, 김포군 0.6830, 피산군 0.5732, 달성군 0.5005, 진천군 0.4765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합개발수준 상위10위권내에 포함되는 지역들의 공간지리상 분포패턴을 <표 4>에서 살펴보면 수도권역과 부산광역시권역 그리고 대구광역시권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수도권역의 경우 김포, 용인, 이천, 평택군 등이 분

포하고 있으며, 수도권 산업입지 억제정책에 따라 수도권 근교지역으로서 새롭게 산업지대로 부각되고 있는 충북의 진천, 음성, 괴산 등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구광역시권역으로서 달성군과 부산광역시권역으로서 양산, 울

<표 4> 부문별 개발수준 상위 10위권내 지역

순 위	종 합	소 득	농 업 기 반	광공업	서비스 시 설	의 료	교 육	주 거 환 경	사회기반 시 설	행 · 재정
1	용인군 1.2415	용인군 5.4648	김제군 1.2414	화성군 2.9336	인제군 1.8619	음성군 3.1251	괴산군 4.1431	양산군 3.3831	북제주군 2.0760	웅진군 3.1704
2	양산군 1.2245	양산군 3.1584	평택군 1.1099	서산군 2.9171	양산군 1.6971	용인군 3.0687	논산군 2.5046	남양주군 2.1788	남제주군 2.0284	울릉군 2.8393
3	이천군 0.8987	여주군 2.3943	익산군 0.9867	울산군 2.9136	울릉군 1.6256	상주군 2.2354	정선군 1.4563	광양군 2.1730	용인군 1.7826	함양군 2.4643
4	울산군 0.7104	광주군 2.3377	옥구군 0.9815	용인군 2.4777	화천군 1.4697	나주군 2.2109	이천군 1.3142	이천군 2.0838	파주군 1.2928	용인군 1.1906
5	음성군 0.6955	화성군 2.2811	부안군 0.8831	원주군 2.3210	상주군 1.4297	장흥군 2.1524	거제군 1.1982	영일군 1.9693	평택군 1.0905	양산군 1.0579
6	평택군 0.6899	울산군 2.1820	고령군 0.8597	평택군 2.2489	무주군 1.4024	영광군 1.9881	홍성군 1.0902	용인군 1.8374	남양주군 1.0226	고령군 0.7085
7	김포군 0.6830	김포군 2.1254	의성군 0.8360	이천군 1.9017	양구군 1.3681	강진군 1.9409	철원군 1.0626	울산군 1.7968	정선군 1.0009	광주군 0.6522
8	괴산군 0.5732	천원군 2.0405	철원군 0.8065	양산군 1.8830	하동군 1.1786	이천군 1.4355	거창군 1.0700	평택군 1.5442	양산군 0.9129	화성군 0.5899
9	달성군 0.5005	포천군 1.9132	음성군 0.7971	광주군 1.8737	진안군 1.0821	창원군 1.3498	영월군 1.0207	칠곡군 1.5331	양주군 0.9006	군위군 0.5851
10	진천군 0.4765	달성군 1.5453	영암군 0.7957	달성군 1.8026	남해군 0.9618	해남군 1.3355	여주군 0.9703	달성군 1.4921	고성군 0.8805	단양군 0.5800

산군 등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문별 개발수준을 보면 소득부문의 경우 용인, 양산, 여주, 광주, 화성 등의 순으로 나타나 주로 수도권과 부산권 주변지역이 비교적 높은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농업기반부문은 김제, 평택, 익산, 옥구, 부안 등으로 주로 호남평야지역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광공업부문은 화성, 서산, 울산, 용인, 원주 등으로 나타나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신산업지대로서 화성과 서산 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서비스시설부문은 전형적인 내륙농업지역 혹은 관광지역 등에서 소비지향적인 측면으로 발달하는 것이 보편적인 양상인 바, 공간지리상 내륙지역에 속하는 인제, 양산, 울릉, 화천 등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의료부문은 음성, 용인, 상주, 나주, 장흥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부문은 괴산, 논산, 정선, 이천, 거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거환경부문은 양산, 남양주, 광양, 이천, 영일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대도시 인근지역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부문은 북제주, 남제주, 용인, 파주, 평택 등으로 관광역점지역과 대도시권 주변지역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가장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남 통영군으로서 종합개발지수가 -0.9336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매우 침체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여천군 -0.6973, 웅진군 -0.6544, 신안군 -0.6301, 남원군 -0.5949, 금릉군 -0.5759, 공주군 -0.5632, 북제주 -0.5589, 승주군 -0.5525, 안동군 -0.5326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공간분포패턴을 보면 도서해안지역과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문별 개발수준을 보면 소득의 경우 신안, 정읍, 고흥, 여천, 장흥 등으로 주로 호남권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기반부문은 북제주, 울릉, 남제주, 광주, 통영 등 임해도서지역이라는 지형상의 특성에 따라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광공업부문도 장흥, 구례, 진도, 태안, 영양 등의 산간내륙지역과 도서임해지역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시설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의료부문은 통영, 금릉, 남원, 제천, 원주 등의 순으로 나타나 내륙오지지역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부문도 내륙오지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거환경부문도 진안, 남원, 신안, 함평, 안동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부문의 경우에 있어서도 웅진, 신안, 제천, 완도 등의 순으로 나타나 내륙오지 및 임해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 재정부문의 경우는 삼척, 정읍, 익산, 양구, 고창 등의 순으로 나타나 산간내륙지역에서 낮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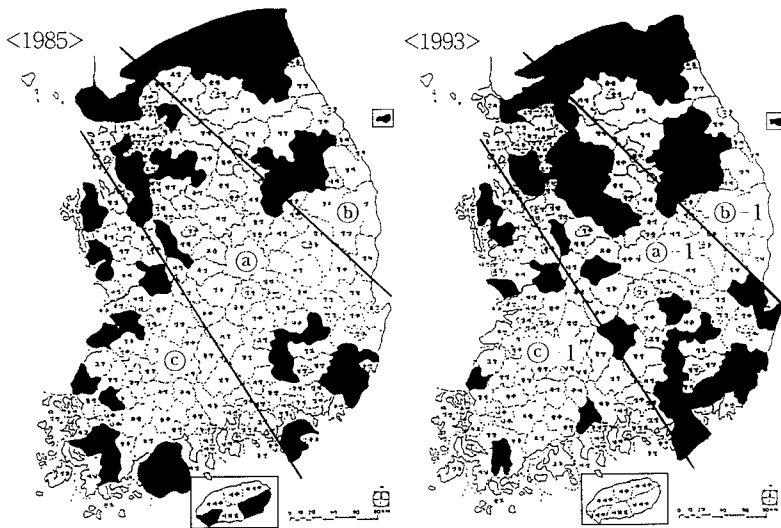
〈표 5〉 부문별 개발수준 하위 10위권내 지역

순 위	종 합	소 득	농 업 기 반	광공업	서비스 시 설	의 료	교 육	주 거 환 경	사회기반 시 설	행· 재정
1	통영군 -0.9336	신안군 -1.2847	북제주 -2.1744	장흥군 -0.8820	신안군 -1.2381	통영군 -1.2102	안동군 -1.9729	진안군 -1.1292	웅진군 -4.1702	삼척군 -1.2699
2	여천군 -0.6973	정읍군 -1.0442	울릉군 -1.8087	구례군 -0.8705	통영군 -1.2076	금릉군 -1.1848	춘성군 -1.7641	남원군 -1.2484	신안군 -1.4556	정읍군 -1.0268
3	웅진군 -0.6544	고흥군 -1.0159	남제주 -1.8051	진도군 -0.7972	여천군 -1.1481	남원군 -1.0964	승주군 -1.7636	신안군 -1.0622	제원군 -1.3716	익산군 -0.9788
4	신안군 -0.6301	여천군 -1.0017	광주군 -1.1938	태안군 -0.7559	금릉군 -1.0832	제원군 -1.0602	옥구군 -1.6507	함평군 -1.0446	완도군 -1.3144	양구군 -0.9340
5	남원군 -0.5949	장흥군 남원군 -0.9876	통영군 -1.1467	영양군 -0.7412	공주군 -1.0404	원주군 -1.0253	의령군 -1.1600	안동군 -1.0313	공주군 -1.2255	고창군 -0.8969
6	금릉군 -0.5759		웅진군 -1.0524	영광군 -0.7391	춘성군 -1.0333	보령군 -1.0108	영천군 -1.5786	임실군 -0.9962	장수군 -1.2116	김제군 -0.8230
7	공주군 -0.5632	영풍군 진안군 -0.9734	완도군 -1.0268	울릉군 -0.7290	영천군 -1.0061	진양군 -1.0053	금릉군 -1.5575	정읍군 -0.9844	금릉군 -1.1687	완주군 -0.7948
8	북제주 -0.5589		울진군 -0.9382	화천군 -0.7284	보령군 -0.9928	문경군 -0.9742	진양군 -1.4854	나주군 -0.9625	당진군 -1.0055	부안군 -0.7897
9	승주군 -0.5525	진도군 안동군 상주군 문경군 -0.9593	남양주 -0.8771	고흥군 -0.7144	청원군 -0.9805	옥구군 -0.9669	남원군 -1.4658	장수군 -0.9244	통영군 -0.9525	정선군 -0.7590
10	안동군 -0.5326		삼척군 -0.8557	신안군 -0.7083	안동군 -0.9414	영풍군 -0.9559	김제군 -1.4170	보령군 -0.9220	고흥군 -0.8110	남해군 -0.7270

Ⅳ. 地域均衡開發을 위한 政策的 示唆點

상기에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종합 개발수준의 공간분포 변화패턴을 도식화²⁾해 본 결과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대도시권과의 거리에 비례하여 지역개발수준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개발수준이 상위권에 속하는 그룹이 충북북부지역으로 까지 확산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뚜렷이 보이고 있으며, 부산시권역을 중심으로 개발수준 상위권내 지역군의 증가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㉔ 참고). 또한 강원내륙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도 개발수준상 위권내 지역군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 주) ㉔ : 1985년도에 비교적 경부축선상에 밀집되어 있던 종합발전수준 상위권 지역군(㉔)의 공간분포패턴이 1993년도에 와서는 더욱 집중되어 나타남(㉔-1)
 ㉕ : 강원내륙권의 경우 1985년도에 비해 1993년도에는 다소 많은 지역이 종합발전수준에서 상위권 지역군으로 확산되어 나타남(㉕→㉕-1으로 확산되었음)
 ㉖ : 1985년도에 비교적 적은수로 이루어져 있지만 종합발전수준에서 상위권 지역군으로 나타났던 지역군(㉖)이 1993년도에는 약화되어 나타남(㉖-1)

<그림 1> 지역별 종합개발수준의 공간분포변화패턴

2) 종합개발지수가 0.1이상의 상위권그룹에 속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하여 도면화 함으로써 지역간 성장패턴의 공간지리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음.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① 참고). 그러나 서부해안 권역선상에서 다소 개발수준이 양호했던 지역군들은 현저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면서 서남부권의 낙후침체현상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② 참고).

즉, 전체적인 국토공간차원에서 볼 때, 1985년도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개발수준 상위권의 지역들은 수도권과 부산권을 중심으로 한 경부축상에서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1993년도에 와서는 이러한 현상이 완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보다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동안 실시되어 온 우리나라의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분산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郡(농촌)지역의 과소화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의한 농촌지역의 과소화 경향이 전국토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러한 농촌지역의 유출인구가 특히 대도시권역으로 유입되어 지역간 불균형정도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데에 국토공간정책상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도시근교형 농촌지역의 공간지리적 팽창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농촌인구의 도시권으로의 유입이 지방 중소도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간 불균형성장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창출한다면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 중소

도시는 이러한 유출인구를 지역내로 유인할 흡인력을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공간개발정책은 대도시권으로의 인구유입을 일정선상에서 제어하기 위한 제반 분산정책이 지속적으로 실효성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농촌지역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져 농촌인구의 지방 정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도권지역과 영남지역을 연결하는 경부축선상의 집적현상을 완화하면서, 1985~1993년간 저개발수준상태에서 별 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 호남권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실효성있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강원내륙, 중부내륙권에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는 낙후지역군을 특정 지역군으로 설정하여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역경제 부흥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임해도서지역권의 낙후지역군들에 대해서도 도서개발촉진정책 등이 실효성있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V. 結 論

1960년대이후 우리나라는 절대적 빈곤하에서 경제개발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전략은 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논리하에 분산된 투자보다는 집중된 투자전략으로서의 성장거점개발전략이 추진되어져 왔다. 이에 따라 우리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으며, 도시권지역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정책은 한편으로 국토공간 구조상 지역간 불균형성장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분산 정책을 강구해 왔으며,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도 이러한 지역개발방향의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조금 성급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국토공간구조상의 불균형성장문제가 그다지 개선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든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하에서 지역별 개발수준 및 잠재력분석을 시도하였는 바, 기존의 성장거점지역군을 중심으로 한 경부라인 주변지역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현실적으로 국토공간구조의 불균형문제는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바로 지금까지의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제반 분산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제반 지역균형개발정책이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열린충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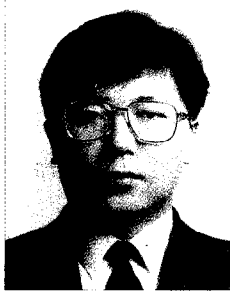
참 고 문 헌

- 국토개발연구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격차 분석, 1985.
- _____,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추진실적평가(Ⅶ), 1990.
- _____,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시안, 1991.
- 김기재, "지역개발수준의 측정", 지방행정연구, 제8권제1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3.
- 김형국, "도시생활환경진단과 그 기준에 관한 고찰", 지방행정연구, 제3권제3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8.
- 송두범, "충남지역 소도읍 개발수준측정 및 개발방향", 열린충남, 제1권제2호, 충남발전연구원, 1995.
- 안재학, 실전지역분석기법, 명보문화사, 1995.
- 이정환·김정연 외, 농촌정주생활권의 특성비교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7.
- 중앙일보, 전국 74개시 비교평가 자료집: 삶의 질 입체분석, 중앙일보사, 1995.
- 최영출, "지역발전도 측정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8권제2호, 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1.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도읍 특성별 개발모형에 관한 연구, 1989.
- _____, 오지낙후지역의 개발모형설정 및 추진방안, 1991.
- 한표한 외, 도시지표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5.
- 황명찬, 지역개발론, 법문사, 1995.

충남 농어촌지역사회 유형화에 관한 연구

송 두 범
(宋斗範)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개발부 연구원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III. 충남 농어촌지역사회 유형화
- IV. 결 론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1960년 이후 전체적인 한국사회의 변동과정에서 농어촌지역사회도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도시의 성장 및 발전과는 대조적으로 농촌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과소화·공동화 과정을 겪어

왔으며, 이는 결국 농어촌지역사회의 해체를 초래해 삶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농어촌지역사회는 떠나지 못해 남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머지 지역이고 기회만 주어 진다면 떠나버리고 싶은 지역이 되어 버린지 오래이다. 농어촌지역사회의 정주권 상실은 농어촌의 황폐화 뿐 아니라 도시의 과밀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촌 - 도시문제의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다.

물론 1950년대 말부터 다양한 형태의 농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예산부족이나 정책의 일관성 등으로 인해 정책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었고 농어촌지역사회 해체경향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의 경험에서 보듯이 농어촌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정이 전제되지 않는 사회발전은 기대하기 힘들다.

농어촌지역사회가 정주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농촌 - 도시 이분법적인 접근 즉 도시지역과 그 배후농촌지역을 별개의 지역으로 보아온 관행에서 벗어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역할과 기능의 상호 보완적 연계개발을 통하여 도시 - 농촌의 공동변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농어촌의 지역특성과 잠재력에 기초한 개발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로서 농어촌의 발전은 어떤 하나의 획일화된 모형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각각의 지역, 예를 들면 도시근교농촌, 일반평야농촌 등 농촌이 가진 특성을 전제로 개성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그 지역의 특성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지역주체들에 의한 지역성을 가진 그 지역에 알맞은 농촌발전이 구상되고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¹⁾. 대도시 근교 농촌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산간부 농촌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이 다를 것이고, 국토공간상에서 기대되는 역할 또한 다를 것이다. 도시와의 접근도, 지역의 자연 지리적 특성, 영농형태, 공업화의 진행 정도 등에 따라 지역의 문제점이 달리 파악되고 그에 따라 정책도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²⁾.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농촌개발정책은 지역의 물리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어 왔을 뿐 아니라, 관련정책 사업의 범위와 추진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각기 시행됨으로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부처간, 실무局·課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일선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시켜 왔다³⁾.

따라서 전국 대부분의 농어촌지역사회는 지역사회가 가진 고유의 특성과 잠재력이 무시된 상태

에서 획일적인 개발기법이 적용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농어촌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유형화가 이루어진 다음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나아가 농어촌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시작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충청남도의 면 단위 농어촌지역사회를 유형화 하여 그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농어촌지역사회개발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첫째, 충청남도 면 단위 농어촌지역사회의 유형구분을 통해 공간적 특성을 규명하고, 둘째, 분석결과를 통해 농어촌지역사회 개발정책 및 관련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내용범위는 지역 유형화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유형화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시간범위는 1990년과 1995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공간범위는 충청남도 147개 면 중 145개 면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농어촌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인구,

1) 최양부 외, 산업사회의 농촌발전전략 : 새로운 농촌지역 종합개발방식의 선택, 연구총서 19,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7, p.220.

2) 박시원 외,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어촌마을 정비방안, 연구보고 R319,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p.2.

3) 이정환 외,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의 장기방향, 연구보고 269,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2, p.2.

농어업 및 서비스업에 초점을 맞추어 17개의 지표를 선정하여 이들 지표의 내용을 집약화한 종합지표를 추출할 수 있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중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기법을 사용하였다. 주성분분석을 통해 추출된 주성분점수를 기초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농어촌지역사회 유형화는 Ward의 계층적 기법을 이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배경

모든 과학적인 질문에서 구분(classification)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구분이 초보적인 단계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간적인 패턴이나 그 과정에 대한 기술이나 설명이 불가능하다.

지역구분은 지역간에 성격의 차이와 그의 공간적인 상호 관련성을 바탕으로 특정지역이 분화되는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궁극적으로는 등질 지역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구분을 하기 전에 목적을 확고히 해야 하며 또한 한가지 목적에 의해 구분된 결과는 다른 목적에는 무의미하다. 이는 구분목적에 따라 선택되는 지표가 변하기 때문이다. 즉 대상이 된 지역을 계통적으로 서술하는 경우에 특징적인 부분지역으로 먼저 구분하여 이들 상호간의 상이성, 유사성

및 관련성을 규명하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보다 종합적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구분과정에서 취득될 수 있는 정보가 변화되면 분류체계와 방법, 결과가 다르게 될 수밖에 없다. 지표를 한개 이상을 사용할 때 구분의 적용 순서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일 수 밖에 없으며 모든 지표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⁴⁾.

다시 말해 농촌지역의 특색 전체를 일괄적으로 표현하는 지표를 선정하기는 극히 어렵고 검토해야 할 농촌현상의 종류가 지역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므로 농촌지역연구에 있어서 타당한 공통적인 지표는 있을 수 없다. 다만 지역유형을 분류하는 목적과 가장 관계가 깊다고 생각하는 요소와 인자를 여러 가지로 예상하고 그에 따라서 지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⁵⁾.

그러나 농촌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농촌의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에 따른 농촌지역특성의 규명과 농어촌지역사회의 유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농어촌지역사회의 유형구분은 농어촌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체계적인 유형구분은 유용한 농어촌지역사회 개발정책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K. Deavers는 농어촌지역사회의 유형화는 농어촌지역사회 특성에 적합한 농어촌지역사회개발정

4) 김기혁, 한국농업지대의 변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 : 서울대학교대학원, 1991, pp.13-17.

5) 최명규 외, "농촌지역유형별 시설수준 및 분포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7권 제4집, 서울: 대한건축학회, 1991, p.24.

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하였으며, Hillhorst는 다양한 농어촌지역사회의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농어촌지역사회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사회경제적, 자연환경적 여러 요인들을 농어촌지역사회 유형구분의 지표로 삼아 이를 통해 각 농어촌지역사회를 유형별로 구분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해당 농어촌지역사회의 특성과 잠재적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농어촌지역사회의 변화 방향의 예측과 농어촌지역사회 개발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⁶⁾.

외국의 경우도 농어촌지역사회의 범역과 유형구분을 통해 합리적인 국토 및 농촌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즉 국토공간구조 및 국토이용상의 농촌계획이 갖는 공간적 범역을 명확하게 확정한 후 이러한 농촌지역내 공간적 조건(지형지세, 토지이용의 패턴, 중심도시와의 접근성, 인구밀도 및 구조적 특성, 취락의 분포유형, 도로 교통 등)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농어촌지역사회의 유형구분을 하고 있다⁷⁾.

영국의 경우는 농촌, 중간농촌, 중간비농촌, 비농촌, 도시지역, 프랑스는 일반농업지역, 농업보존지역, 경관보전지역, 삼림지역, 시가화 예상지역, 도시지역, 서독은 조밀지역(도시지역), 농촌지역, 후진지역, 경계지역 등으로 유형화 하고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우리 나라의 농어촌지역사회에 대한 유형화는 분석대상이 된 시기, 지역구분에 이용한 지표 등을 볼 때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접근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어떤 지역에 대한 유형구분으로서 이는 한 시점에서 그 지역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냐에 대한 규명을 핵심과제로 하는 접근방식이며, 둘째는 변화유형의 분류로서 이는 변화과정과 현상태, 변화전망의 상호관계를 핵심과제로 하며 이러한 분류기준도 다양하다.

1960년대 이전에는 주로 일정시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변화과정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으나, 농업통계가 체계적으로 발해된 1960년대 이후부터는 변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변화내용은 대부분 도시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와 연계하여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1960년대 이전은 주로 농업지대 구분중심으로 행해졌는데 농업외적인 요소인 지형, 기후 등의 자연적 지표와 농작물, 농업경영 등의 농업내적인 요소를 이용한 연구로 대분하여 이루어졌다.

九間建一(1950)은 생산구조, 기술조직, 경영집약도, 기후 및 토지요소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고원지대, 산악지대, 전작지대, 도작지대, 도서지대 등 5개 지대로 나누고 이를 다시 20개 지역, 11개 지구, 1개 지방으로 세분하였다.

6) 엄수원, 한국농촌지역의 유형화와 공간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 : 단국대학교 대학원, 1997, p.41.

7) 정철모, 한국농촌의 합리적 정주체계 설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주 : 전북대학교 대학원, 1994, p.242.

1960년대 이후 具在書(1967)는 자연조건과 답비율을 이용하여 산간전작지대, 준산간 전작지대, 준평야전작지대, 평야전작지대, 산간혼작지대, 준산간혼작지대, 준평야혼작지대, 평야혼작지대, 산간답작지대, 준산간답작지대, 준평야답작지대, 평야답작지대 등 12개로 구분하였다.

서찬기·이중우(1978)는 1970년 농업센서스를 이용하여 전국 1,511개 면 급지역 대상으로 10개 유형 22개 지대로 유형화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지역구분은 도시화와 연계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특히 계량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왔다.

정지웅(1984)은 행정구역과 인구의 크기에 따라 자연부락형 농어촌지역사회, 소도읍형 농어촌지역사회, 도시근교형 농어촌지역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김기혁(1985)은 1980년 전국 18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작물의 특화도를 이용한 군집분석을 통해 도시근교 농업지대, 평야혼합 농업지대, 산간다각화 농업지대, 내륙원교 농업지대, 산간전작 농업지대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유우익(1985)은 접근도를 기준으로 대도시근교 농촌지역, 산간 농촌지역, 군사지역, 농촌지역, 해안 농촌지역, 일반 농촌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최양부 외(1985)는 전국 50개 시와 139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정주생활권이라는 관점에서 지역적 성격(평야, 산간, 해안도서, 도시근교), 경제발전 정도(지역주민소득, 산업구조, 고용구조 등), 인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성장지역, 발전

지역, 정체지역, 낙후지역으로 유형화 한 다음 대도시근교 농촌형, 일반농촌형, 특수농촌형으로 구분하였다.

농업진흥공사(1986)는 경지율, 작목결합체계, 접근도, 작물특화도를 이용하여 평야촌, 준산간지촌, 산지촌, 도시근교촌, 해안도서촌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정환 외(1987)은 전국 139개 군을 대상으로 12개 항목, 59개 지표를 이용하여 수도권대도시근교형, 목축과수어촌형, 동남부공업화진행형, 접적지 및 태백산간형, 영남내륙형, 서남부평야형 등 7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최명규 외(1991)는 전남의 38개 읍면을 대상으로 16개 지표를 사용하여 평야형농촌형, 중간농촌형, 산촌형농촌군, 소도읍형농촌군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최명규(1992)는 “농촌지역시설의 적정규모 및 배치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에서 인구, 취락의 입지조건, 접근성, 시설 및 환경 등 4개항목, 16개 지표를 설정하여 소도읍근교형, 중간형, 과소지역형, 지역중심형농촌지역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하다.

농어촌연구소(1993)는 전국 정주권개발 대상면 794개 면을 4항목 35개 지표를 이용하여 수도권근교촌, 내륙교통중심촌, 제조업중심촌, 해안평야촌, 해안산지촌 등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철모(1994)는 전라북도 군부 지역내 5,131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소재지까지의 거리, 호당 경지면적, 농가수, 비농가비율, 인구수, 14세미만 인구수 등 5개 변수를 바탕으로 주성분분석기법을 적용하

〈표 1〉 농어촌지역 유형화에 관한 선행 연구

연구자	분석단위 및 지표	분석방법	유형수	유형화내용
정지웅 (1984)	· 행정구역, 인구의 크기		3개	· 자연부락형 충촌지역사회, 소도읍형 농촌지역사회, 도시근교 농촌지역사회
김기혁 (1985)	· 시군별 작물의 특화도	군집분석	5개	· 도시근교농업지대, 평야혼합농업지대, 산간다각화농업지대, 내륙원교 농업지대, 산간전작농업지대
유우익 (1985)	· 접근도		5개	· 대도시근교농촌지역, 산간농촌지역, 군사지역 농촌지역, 해안농촌지역, 일반농촌지역
최양부 외 (1985)	· 전국50개시, 139개 군 · 인구규모, 인구증감율, 경지정리율, 지역입지속성	군집분석	3개	· 대도시근교농촌형, 일반농촌형, 특수농촌형
농업진흥공사 (1986)	· 경지율, 작목결합체계, 접근도, 성장속도, 작목 특화도		5개	· 평야촌, 준산간지촌, 산지촌, 도시근교촌, 해안도서촌
이정환 외 (1987)	· 전국 139개 군 · 12개 항목, 53개 지표	주성분분석 군집분석	8개	· 수도권 대도시근교형, 목축·과수 어촌형, 서남해안어촌형, 동남부 공업화진행형, 접적지 및 태백산간형, 영남내륙 및 소백산간형, 서남부 평야형, 발전잠재형
최명규 외 (1991)	· 전남 38개 읍면 · 4개 항목, 16개 지표	요인분석 군집분석	4개	· 평야형농촌형, 중간농촌형군, 산촌형농촌군, 소도읍형농촌군
최명규 (1992)	· 호남지역 34개군 · 4개 항목, 16개 지표	요인분석 군집분석	4개	· 소도읍근교형, 중간형, 과소지역형, 지역중심형
농어촌연구소 (1993)	· 794개 정주권개발대상면 · 4개항목, 35개 지표	주성분분석	7개	· 수도권 근교촌, 내륙교통중심촌, 제조업중심촌, 내륙농업중심촌, 해안평야촌, 해안관광촌, 해안산지촌
농어촌연구소 (1993)	· 64개 행정리 · 경제 32개, 농업 20개, 생활환경 12개 지표	주성분분석	12개	· 경제유형, 농업유형, 생활유형 각각 4개로 등급화
정철모 (1994)	· 전라북도 13개군, 5,131 개 행정리 · 5개지표	주성분분석 인자분석법	9개	· 9개유형(T1: 경지면적이 큰 행정리 ~ T9: 인구규모가 크고, 소재지에서 거리가 먼 행정리)

연구자	분석단위 및 지표	분석방법	유형수	유형화 내용
윤근섭 (1994)	· 전라북도 5개시, 13개군 · 4개항목, 14개 지표	요인분석	4개	· 중과소지역, 준과소지역, 준도시지역, 도시지역
윤경섭 (1995)	· 경기도, 제주도 제외한 전국 시군 · 경지율, 임야율, 농가비, 제조업 및 서비스업 LQ, 관광자원		10개	· 대도시주변 농어촌지역, 시군통합형 농어촌지역, 일반농어촌지역(평야농업형, 준산간해안제조업형, 준산간서비스업형, 준산간농업형, 산간농업형, 산간서비스업형, 해안서비스업형, 해안농업형)
엄수원 (1996)	· 전국 136개군 · 14개항목, 67개 지표	주성분분석 군집분석	6개	· 1985년 : 광산농촌형, 서남부평야어촌형, 발전잠재형, 대도시근교형, 내륙서비스형 · 1993년 : 과수목축형, 성장진행형, 도시근교성장형, 도시근교개발잠재형, 서남부어촌형, 과소침체화형
류종현 외 (1997)	· 강원도 89개 면 · 16개 지표	요인분석 군집분석	5개	· 도시근교형, 관광휴양형, 산악산촌형, 해안어촌형, 일반기타형

자 료 : 박시현·김정연·이상문,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어촌 마을 정비방안, 서울 :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p.18에서 재작성⁸⁾.

여 9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윤근섭(1994)은 전라북도 5개 시, 13개 군을 대

상으로 4개 항목, 14개 지표를 이용하여 중과소지

역, 준과소지역, 준도시지역, 도시지역 등 4개 지역

8) 정지웅, 한국의 농촌 : 그 구조와 개발,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4.

김기혁, "작물특화도에 의한 한국의 농업지대구분", 지리학 연구, 제10집, 1985.

유우익, 농촌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개발전략,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

최양부 외, 정주생활권 설정 및 유형화, 연구보고 109,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

농업진흥공사, 농어촌지역의 유형별 종합개발계획모형 연구, 1986.

이정환 외, 농촌정주생활권의 특성비교 연구,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7.

최명규, 농촌지역시설의 적정규모 및 배치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1992.

정철모, 한국농촌의 합리적 정주체계 설정에 관한 연구 : 전북 군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전주 : 전북대학교 대학원, 1994.

윤근섭 외, "농촌지역사회의 인구변화와 대응 : 과소지역의 구조특성과 변화를 단서로", UR이후 한국농촌사회의 변화와 대응, 서울 : 한국농촌사회학회, 1994.

윤경섭, "농어촌종합개발과 농진공의 역할", 지방화 시대의 농어촌종합개발 전략, 서울 : 농어촌진흥공사, 1995.

엄수원, 한국농촌지역의 유형화와 공간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 : 단국대학교 대학원, 1997.

류종현 외, 미래지향적인 농어촌개발모형 연구, 춘천 : 강원개발연구원, 1997.

으로 유형화하였다

윤경섭(1995)은 경지율, 농가비, 제조업 및 서비스업 LQ, 관광자원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대도시 주변 농어촌지역, 시군통합형 농어촌지역, 일반농어촌지역 등 3개 지역으로 유형화 한 다음 일반농어촌지역은 다시 8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엄수원(1997)은 1985년과 1993년 전국 136개 군을 대상으로 67개의 지표를 사용하여 유형화 한

결과 1985년은 5개, 1993년은 6개로 구분하였다.

류종현 외(1997)는 1994년 말 현재 강원도 15개 시군의 89개 면을 대상으로 16개 지표를 활용하여 도시근교형, 관광휴양형, 산악산촌형, 해안어촌형, 일반기타형 등 5개로 유형화 하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1965년부터 농산촌이라는 개념으로 총칭하고 있으며 일본의 농촌지역유형별 기준지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경제지대별 기준지표(일본)

경제지대명	기 준 지 표	기 준
도 시 근 교	제2차산업취업인구율	20%이상
	광공업인구지표=제2차산업 취업인구/제1차산업인구	50%이상
	농가율	30%미만
평 지 농 촌	경지율	30%이상
	임야율	50%미만
	전업농가율	40%이상
농 산 촌	경지율	10~30%
	임야율	50~80%
	전업농가율	40%이상
	임업겸업농가율	5~10%
산 촌	경지율	10%미만
	임야율	80%이상
	임업겸업농가율	10%이상

자 료: 농업진흥공사, 농촌정비, 1987. 6. p.11: pp.35-40.

1977년 각의에서 결의된 제3차 전국종합개발계획은 도시주변농촌지역, 농촌지역, 산림지역, 어촌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경우 겸업적 취락지역, 전업적 취락지역 등으로 분류하

고 있다.

또한 1991년 일본농림통계협회에서는 농업지역을 도시적 지역, 평야농업지역, 중간농업지역, 산간농업지역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3〉 일본의 농업지역유형별 기준지표

구 분	성 격	기 준 지 표
도시적 지역	가주지에 접하는 DID면적 비율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 가주지에 접하는 DID면적비율 5%이상, 인구밀도 500인 이상, DID인구 2만 이상지역 · 가주지에 접하는 택지 등의 비율 60%이상, 인구밀도 500인 이상 · 임야율 80% 이상 지역은 제외
평야농업지역	경지율, 평탄지 비율 등이 큰 지역	· 경지율 20%이상으로 임야율 50%미만 지역중 경사 1/20이상 논과 경사 8도 이상 밭의 비율합계가 90% 이상인 지역은 제외 · 경지율 20%이상, 임야율 50%이상, 경사 1/20이상 논과 경사8도 이상 밭의 합계면적 비율이 10%미만인 지역
중간농업지역	평지농업지역과 산간농업 지역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지역	· 경지율 20%미만으로 도시적 지역과 산간농업지역 이외의 지역 · 경지율 20% 이상, 도시적 지역과 평지농업지역 이외의 지역
산간농업지역	임야율이 현저히 높은 지역	· 임야율 80%이상으로 경지율 10%미만 지역

주 : DID(인구집중지구)는 인구밀도 4000인/ha이상의 국제조사지구에 인접하여 인구 5000인 이상인 지역임

경사지 1필지의 경우 경작면의 경사, 단지의 경우 지형상의 주경사임.

자료 : 일본농림통계협회, 도해 임업백서, 1991, p.127; 정철모, 전계논문, p.28에서 재인용.

III. 충남 농어촌지역사회 유형화

1. 충남 농어촌지역사회의 성격변화

가. 197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87)에서는 농촌지역의 공간특성을 나타내는 인구, 가구, 토지이용, 산업별 부가가치, 생활환경 및 서비스시설, 1인당 조세부담, 대도시와의 거리 등 32개 지표로 139개 군을

요인분석 및 Ward법에 의한 군집분석 결과 접근도가 불리한 일반농촌, 접근도가 유리한 일반농촌, 어업 및 2종 겸업농촌, 서비스중심형 농촌, 초지 및 과수농촌, 특수도서형 농촌, 전업 및 1종겸업농촌, 대도시주변 청장년층중심 농촌 등 8개 지역으로 유형화하였다.

충남지역의 13개 군은 접근도가 불리한 일반농촌과 접근도가 유리한 일반농촌군에 속하고 있으

나 청양은 산간지 농촌적 성격, 공주는 대도시와 접근도가 특히 유리하고 축산 과수가 발달한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나. 1980년
1980년의 경우도 1970년에서와 동일한 32개 지표를 사용하여 유형화한 결과 접근도가 불리한 일

〈표 4〉 충남농촌지역의 유형(1970년)

유 형	군 명	특 징
접근도가 불리한 일반농촌	청양	산간지농촌적 성격
	부여, 서천, 보령, 금산	평야농업적 성격을 띠고 겸업이나 공업이 전무한 순수농촌 지역으로 대도시에 대한 접근도가 불리한 지역성
접근도가 유리한 일반농촌	연기, 논산, 예산, 서산, 당진, 아산, 홍성	가장 탁월하게 발달한 평야지대에 위치한 평야농촌
	공주	대도시와의 접근도가 특히 유리한 지역으로 축산 과수농촌이 발달한 지역적 성격

자료 : 이정환·김정연·이정기, 농촌정주생활권의 특성비교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7, p.39.

반농촌, 접근도가 유리한 노령화 농촌, 서비스중심 농촌, 초지과수형농촌, 어업 및 겸업농촌 등 7개
형농촌, 평야농촌, 대도시근교형농촌, 공업화진행

농촌, 초지과수형농촌, 어업 및 겸업농촌 등 7개
지역으로 유형화 하였다.

〈표 5〉 충남농촌지역의 유형(1980년)

유 형	군 명	특 징
접근도가 불리한 일반농촌	청양, 금산	산간지의 성격, 서비스시설이 불량하고 겸업기회가 전무,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
	보령, 서산	평야농촌의 성격, 서비스시설이 부족하고 축산업도 발달하지 못한 경제기반이 취약한 지역
접근도가 유리한 노령화 농촌	연기, 공주	특이한 경제적 기반이 없고 평야농촌적 성격도 약해 인구 감소와 노령화현상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
평 야 농 촌	당진, 아산, 예산, 홍성, 서천, 부여, 논산	경지율과 인구밀도가 높은 평야농촌의 성격, 순수한 평야 답작지대의 성격, 비교적 서비스시설은 양호하나 공업은 전무

자 료 : 이정환·김정연·이정기, 상계서, 1987, p.58.

충남의 13개 군은 이중 접근도가 불리한 일반농촌, 접근도가 유리한 노령화 농촌, 평야 농촌군에 속해 있다.

다. 1985년

전국 139개군을 대상으로 53개 지표를 사용하여 인자분석 및 군집분석한 결과 수도권대도시근교형, 목축·과수·어촌형, 서남해 어촌형, 동남부공업화 진행형, 접적지 및 태백산간형, 영남내륙형, 서남부평야형, 발전잠재형 등 8개 유형으로 분류

하였다.

충남의 13개 군은 서남부평야형과 발전잠재형군에 속해 있다. 서남부 평야형의 경우 중심도시의 배후지에 대한 포섭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 인구와 산업이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므로 배후지의 인구감소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발전잠재형 농촌지역의 경우 대전대도시권의 영향으로 지가의 상승률이 높고 도시적 고용기회가 증대되고 있으나 아직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제반 산업 및 생활기반이 미흡한 상태에 있다.

〈표 6〉 충남 농촌지역의 유형화(1985년)

유 형	군 명	특 징
서남부평야형	당진, 예산, 아산, 홍성, 부여, 서천, 금산	경지율과 소득수준은 양호, 공업화가 미약하고 농업기반시설이 비교적 취약한 지역
	서산, 보령, 논산	경지정리율이나 수리안전답율이 높아 농업기반이 매우 양호한 특성을 지닌 지역
발 전 잠 재 형	청양, 연기, 공주	지역의 종합발전수준이 낮고 농업기반과 공업화가 취약한 지역

자료 : 이정환·김정연·이정기, 상계서, 1987, p.88.

라. 1993년

엄수원(1997)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와 유사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1993년을 기준으로 전국 136개군을 대상으로 67개 지표를 이용하여 주성분분석을 행한 결과 과수목축형, 성장진행형, 도시근교성장형, 도시근교개발잠재형, 서남부어촌형, 과소침체화형 등 6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 충청남도 15개 군은 도시근교

성장형, 도시근교개발잠재형, 서남부어촌형, 과소침체화형에 속해 있다.

마. 종합

1970~93년의 충청남도 농어촌지역사회의 공간적 성격변화를 살펴보면, 1970년까지는 대부분의 군지역이 도시화와 공업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순수한 일반 농촌적 성격을 띠고 있었으나,

〈표 7〉 충남 농촌지역의 유형화(1993년)

유 형	군 명	특 징
도시근교성장형	연기, 논산, 천안	발전수준이 높고, 농업적특성이 강함, 교육·의료부문등의 생활환경서비스수준이 높음, 도시권에의 접근성이 우수, 도시근교에 분포
도시근교개발잠재형	서산, 보령, 논산	발전수준이 비교적 높고, 지가변동수준이 가장 높음, 교육·의료부분 등의 생활환경이 비교적 높고, 도시권으로의 접근성이 높음, 대도시근교에 분포
서남부어촌형	공주, 보령, 태안	발전수준이 낮고, 어업부문 경제활동활발, 영세·겸업농가 비중이 높고, 지가변동수준 최저, 서비스수준 낙후, 도시권으로의 접근성 최저, 서남부임해지대에 주로 분포
과소침체화형	부여, 서천, 청양, 예산, 서산, 당진, 아산	전체적 낙후성, 인구과소화 지역,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분포

자료 : 염수원, 전개논문, p.182.

1980년대에 와서 대전주변이 도시화의 영향권에 포함된 대도시근교형 농촌으로 부각되고, 어촌지역의 경우 인접지역에 흡수되어 어업중심의 지역 성격을 상실해 가고 있다. 또한 접근도가 불리한 일반농촌형이 분화하여 순수한 평야답작 중심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으로 분리되어 나타나고 있다. 1985년에는 서남해안어촌형은 접근도가 크게 불리하여 근대적 산업의 입지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큰 변화없이 정체상태에 있으며, 평야형은 순수한 전통농업지역으로 지역발전이나 공간분화의 속도가 늦다. 1993년에는 서남부어촌형은 과소 침체지역화 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 뚜렷하고, 도시근교성장형과 도시근교개발잠재형이 대도시주변지역에서 공간적으로 확산되어 나타난다.

2. 분석틀의 설정

가. 연구대상지역의 선정

1995년말 현재 충청남도 147개 읍 면 가운데 계룡출장소와 연기군 소정면(95년 면승격)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1990년과의 자료비교가 가능한 145개 면을 대상으로 하였다.

나. 분석지표의 설정

농어촌 유형구분을 위한 지표는 연구자나 기관마다 상이하지만 지표는 측정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간접적 계량화가 가능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직관적 조작에 불과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정주생활권의 특성

〈표 8〉 연구대상 지역

시 군 명	지역수	대 상 지 역
천 안 시	10	풍세, 광덕, 목천, 북, 성남, 수신, 병천, 동, 직산, 입장
공 주 시	10	이인, 탄천, 계룡, 반포, 장기, 의당, 정안, 우성, 사곡, 신평
보 령 시	10	주포, 주교, 오천, 천북, 청소, 청라, 남포, 주산, 미산, 성주
아 산 시	10	송악, 배방, 탕정, 음봉, 둔포, 영인, 인주, 선장, 도고, 신창
서 산 시	9	인지, 부석, 팔봉, 지곡, 성연, 음암, 운산, 해미, 고북
논 산 시	11	성동, 광석, 노성, 상월, 부적, 연산, 벌곡, 양촌, 가야곡, 은진, 채운
금 산 군	9	금성, 제원, 부리, 군북, 남일, 남이, 진산, 복수, 추부
연 기 군	6	동, 서, 남, 금남, 전의, 전동
부 여 군	15	규암, 은산, 외산, 내산, 구룡, 홍산, 옥산, 남, 충화, 양화, 임천, 장암, 세도, 석성, 초촌
서 천 군	11	마서, 화양, 기산, 한산, 마산, 시초, 문산, 판교, 종천, 비인, 서
청 양 군	9	운곡, 대치, 정산, 목, 청남, 장평, 남양, 화성, 비봉
홍 성 군	9	홍북, 금마, 홍동, 장곡, 은하, 결성, 서부, 갈산, 구항
예 산 군	10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응봉, 덕산, 봉산, 고덕, 신암, 오가
태 안 군	6	고남, 남, 근흥, 소원, 원북, 이원
당 진 군	10	고대, 석문, 대호지, 정미, 면천, 순성, 우강, 신평, 송악, 송산
계	145	

〈표 9〉 농어촌지역사회 유형화 지표

부 문	지 표
인 구	인구밀도, 인구증가율, 전출인구/전입인구, 가구당 인구, 성비, 유소년인구, 청장년인구, 노년층인구, 가구당 인구, 국민학생인구비율, 중학생인구비율, 고등학생인구비율, 어업종사자비율
가 구	농가율, 비농가율, 전업농가율, 1종겸업농가율, 2종겸업농가율, 가구밀도, 자연부락의 평균호수
토지이용	경지면적, 호당경지면적, 논율, 밭율, 과수원면적, 목장용지, 임야율, 대지면적, 초지
광 공 업	광공업종사자수, 종업원 1인당 광업생산액, 가구당 광업부가가치

부 문	지 표
서비스수준	기능지수,接客업소수, 환경업소 수, 시장 수, 금융기관 수, 의료지 수(의사수, 병상수, 의약품판매업소수)
농림어업	재배업부가가치, 목축업부가가치, 농업서비스업부가가치, 임업부가가치, 어업부가가치, 기계화정도, 경지정리율, 수리안전답률, 정부관리양곡가공공장당 경지면적, 농가호당 추곡수매실적, ha당 임목축적량, 농가호당 도축두수, 어선보유현황, 수산물어획고, 국공유림점유율
생활환경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주택보급률, 자가용보급률, 전화보급률, 가구당 주차면수, APT보급률, 수세식화장실 보급률, 입식부엌보급률
소득 및 지방재정	평균소득, 재정자립도, 투자액, 지방세부담액
역내결합도 및 접근도	지역내결합도, 10만도시까지 거리, 100만도시까지 거리, 군청까지의 거리
지가 및 토지거래실적	대지지가변동률, 전답지가변동률, 임야지가변동률, 전지역토지거래면적, 답지역토지거래면적, 대지지역토지거래면적, 임야지역토지거래면적, 공장용지지역토지거래면적, 기타 지역토지거래면적

자료 : 이정환 김정연 이정기, 상계서, 1987, p7에서 재작성.

비교 연구(1987)”에서 선정한 지표를 기준으로 살펴본 농어촌지역사회 유형화지표는 아래 <표 9>와 같다. 그러나 이 지표들은 군을 분석단위로 했기 때문에 면 단위 수준에는 생산하지 않거나 구득이 불가능한 지표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지표중에서 충청남도 면 지역 유형화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17개 지표를 추출하여 선정하였다.

다. 분석방법

농어촌지역사회를 특성에 따라 유형화 하기 위한 지표와 방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145개 면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위에서 선정된 17개 지표에 대한 각 면간의 유사성의 정도를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통계학적으로 측정하여 최종적으로 농어촌지역사회를 유형화 하였다.

요인추출모델로는 주성분분석방식을 이용하여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서로 유사한 변수끼리 묶어주는 방법인 요인분석에서는 요인간의 구분을 뚜렷히 하기 위해 직각회전을 실시하였으며 군집분석에서는 Ward법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첫째, 분석대상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를 선정하여 이

〈표 10〉 농어촌지역사회 유형화 분석지표

변 수 명	단 위	산 출 내 역	자 료 출 처
X1. 인구밀도	인/km ²	1995년인구/총면적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X2. 인구증감률	%	1990-1995년 인구증감률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X3. 농가인구율	%	농가인구/총인구	농업총조사
X4. 농가율	%	농가구/총가구	농업총조사
X5. 전업농가율	%	전업가구/농가구	농업총조사
X6. 1종겸업농가율	%	1종겸업가구/농가구	농업총조사
X7. 2종겸업농가율	%	2종겸업가구/농가구	농업총조사
X8. 경지율	%	경지면적/총면적	농업총조사
X9. 가구당경지면적	ha	경지면적/총가구수	농업총조사
X10. 논면적률	%	논면적/총면적	농업총조사
X11. 밭면적률	%	밭면적/총면적	농업총조사
X12. 수리안전답률	%	수리안전답면적/논면적	농업총조사
X13. 임야율	%	임야면적/총면적	시군통계연보
X14. 천인당 제조업체수	개소	제조업체수/총인구×1000	사업체총조사
X15. 천인당 숙박업소수	개소	숙박업소수/총인구×1000	사업체총조사
X16. 천인당 음식점업소수	개소	음식점업소수/총인구×1000	사업체총조사
X17. 시군청까지 거리	km	시군청까지의 거리	시군통계연보
X18. 어가율	%	어가구/총가구	어업총조사 보고

자료를 입력하여 주성분분석을 행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종합지표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들 종합지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바리막스법을 사용하였고 각 단위지역의 특정주성분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성분득점을 계속하였다.

둘째, 각 주성분득점을 입력변수로 하여 군집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에 의해 잠정적으로 지역유형구분을 시도하였다. 군집분석에 있어서는 Ward의 계층적 기법을 이용하였고, DENTROGRAM을 작성한 뒤 대상지역을 유형화 하였다.

3. 분석결과

연구대상의 분석단위인 145개 면에 대해 17개 변수를 사용하여 주성분분석을 한 결과 17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를 기초로 변수와 요인간의 구조를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직각회전(Varimax rotation)한 결과 고유치(Eigen value)가 1이상으로 의미 있는 요인은 5개로 나타났다.

이들 5개 요인의 누적변동 설명량은 70.0%, 각 변수의 공유치(communality)는 0.45이상으로 비교적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요인들의 설명량(Pct of Var)을 보면 요인1이 전체변량의 22.6%를 설명하고 있으며, 요인2는 19.6%, 요인3은 13.9%, 요인4는 7.5%, 요인5는 6.4%를 각각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6개 요인의 누적설명량(Cum Pct)은 70.0%로 지역분포 특성을 규명하는데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인부하 값이 ± 0.5 이상인 변수를 중심으로 요인의 특성을 정의하고 정의한 요인점수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요인1의 해석

요인1은 최대의 설명량인 22.6%로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정의 요인부하값을 가진 11개 변수중 시군청까지 거리, 농가인구율, 농가율이 0.5이상의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인구증감률, 인구밀도는 -0.70이상의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요인1은 원격과소농업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요인2의 해석

요인2는 19.6%의 설명량을 가지며 10개 변수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중 경지율과 논면적률이 ± 0.70 이상의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임야율은 -0.8이상의 높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요인2는 평야미작농업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요인3의 해석

요인3은 13.6%의 설명량을 가지며 9개 변수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중 1종점엽농가율, 어가율이 6.0%이상의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전엽농가율은 -0.85%의 높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요인3은 어업 및 점엽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요인4의 해석

요인4는 7.5%의 설명량을 나타내며 11개의 변수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중 천인당 음식점엽소수와 2종점엽농가율이 0.5이상의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농가율은 -0.69의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요인4는 서비스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마. 요인5의 해석

요인5는 6.4%의 설명량을 가지며 9개 변수가 정의 부하량을 가지는 있다. 이 중 천인당숙박업소수, 어가율이 0.5이상의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천인당제조업체수와 수리안전답률은 -0.60이상의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요인5는 해안관광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1〉 변수별 요인부하량

구 분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communality
인구증감률	-.79177	-.0385	.15735	.05646	-.05428	.65928
인구밀도	-.77476	.38780	.10194	.20710	-.10159	.81425
시군청까지 거리	.60913	.04918	.22772	.11357	.11740	.45199
농가인구율	.59490	-.22554	-.24828	-.22672	-.1998	.55776
임야율	.38142	-.87366	-.05169	.11492	.00070	.92465
경지율	-.39219	.85969	.03308	-.16028	-.01816	.92000
논면적률	.30771	.71027	-.18549	.05794	-.15804	.66191
가구당 경지면적	.20343	.48109	-.06999	-.39450	.30870	.52866
1종겸업농가율	-.02695	.02465	.87897	-.10964	.11186	.79845
전업농가율	.18830	.15825	-.85712	-.35441	.05772	.92410
어가율	.10807	.02080	.63121	.13756	.53309	.71365
천인당음식점업소수	.10344	-.03737	-.02343	.83679	.13118	.73007
농가율	.50850	.05457	-.11421	-.69870	.19372	.80031
2종겸업농가율	-.23903	-.2444	.37494	.59982	-.18654	.65205
천인당숙박업소수	.09977	-.04924	.13904	.42061	.67410	.66303
천인당제조업체수	.14704	-.05601	.02293	.21774	-.66390	.51346
수리안전답률	-.39582	.17774	-.14175	.10833	-.60262	.58324
Eigen value	3.84491	3.32884	2.36281	1.28053	1.07976	
Pct of Var	22.6	19.6	13.9	7.5	6.4	
Cum Pct	22.6	42.2	56.1	63.6	70.0	

4. 농어촌지역사회 유형화

충청남도 농어촌지역사회의 유형화는 앞의 요인 분석결과 추출된 145개 면의 5개 요인점수를 변수

로 하여 Ward법에 의한 군집분석을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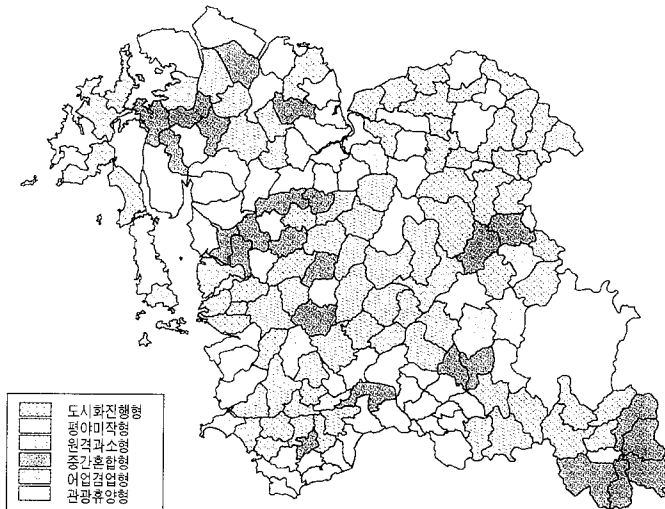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농어촌지역사회의 유형을 6개 군집으로 분류하여 유형화 하고자 한다.

6개 유형은 <표 12>와 같이 도시화진행형, 평야미작형, 원격과소형, 중간혼합형, 어업겸업형, 관광휴양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표 12> Ward법에 의한 충남 농어촌지역사회 유형

유형	그룹 번호	지역명	지역수 (개)	구성비 (%)
도시화 진행형	1	천안 입장, 천안 직산, 아산 탕정, 아산 신창, 아산 배방, 보령 주교, 보령 성주,	7	25.5
	2	천안 풍세, 천안 수신, 아산 영인, 아산 둔포, 아산 인주, 연기 금남, 연기 동, 연기 남, 부여 홍산, 홍성 금마, 논산 연산, 보령 청소, 홍성 장곡	13	
	3	금산 복수, 금산 추부, 천안 병천, 연기 전의, 천안 광덕, 논산 벌곡, 천안 성남, 아산 음봉, 보령 주포, 연기 전동, 공주 정안, 서천 판교, 공주 장기, 천안 북, 아산 송악, 금산 진산, 천안 목천	17	
평야미작형	4	논산 성동, 논산 채운, 논산 광석, 논산 은진, 예산 오가, 당진 우강, 아산 선장, 서천 화양, 논산 부적, 부여 구룡, 부여 남, 부여 초촌,	6	19.3
	5	서산 고북, 예산 신암, 보령 남포, 부여 석성, 홍성 갈산, 당진 송산, 서천 마서, 부여 규암,	14	
	6	부여 세도, 예산 고덕, 당진 송악, 부여 양화, 부여 임천, 서천 기산, 서천 한산, 서산 부석	8	
원격과소형	7	공주 탄천, 서천 마산, 예산 봉산, 청양 장평, 예산 광시, 부여 충화, 당진 대호지	7	31
	8	공주 사곡, 보령 미산, 공주 신평, 서천 문산, 청양 화성, 천안 동, 보령 주산, 서산 운산, 당진 정미, 청양 목, 부여 옥산,	11	
	9	당진 면천, 공주 이인, 부여 은산, 보령 청라, 논산 양촌, 청양 정산, 논산 가야곡,	7	
	10	부여 내산, 예산 신암, 예산 대흥, 청양 운곡, 예산 대술, 청양 대치	6	

유 형	그룹 번호	지 역 명	지역수 (개)	구성비 (%)
중간혼합형	11	청양 남양, 청양 비봉, 공주 의당, 홍성 홍동, 서산 성연, 홍성 은하, 부여 장암, 홍성 결성, 논산 상월, 당진 고대, 논산 노성, 서천 시초	12	21.4
	12	서산 인지, 홍성 홍북, 예산 음봉, 서산 음암, 당진 순성, 연기 서, 홍성 구항, 금산 제원, 금산 남일, 금산 부리, 금산 군북, 금산 남이, 서산 팔봉	13	
어업겸업형	13	서천 중천, 서천 비인, 공주 우성, 금산 금성, 청양 청남	5	8.3
	14	보령 천북, 서산 지곡, 태안 근흥, 태안 원북,	4	
	15	보령 오천, 태안 고남, 태안 이원	3	
관광휴양형	16	태안 남, 태안 소원	2	8.3
	17	공주 반포, 서천 서, 예산 덕산	3	
	18	공주 계룡, 홍성 서부, 부여 외산	3	
	19	아산 도고, 서산 해미, 당진 석순, 당진 신평	4	



〈그림 1〉 Ward법에 의한 충남 농어촌지역사회 유형도

IV. 결 론

지금까지 충청남도 145개 면을 대상으로 17개 지표를 이용하여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충청남도 농어촌지역사회를 지역특성別に 따라 6개로 유형화 하였다.

첫째, 분석결과 도시화 진행형에는 145개 면중 37개의 면이 포함된다. 이 유형에 속하는 면들은 대전광역시, 천안시, 보령시 등 대(중)도시근교에 위치하여 인구밀도가 높고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율이 완만하며, 제조업과 2종겸업비율, 음식점업비율이 높은 반면 전업농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다.

둘째, 평야미작형에는 145개 면 중 25개 면이 포함된다. 이 유형에 속하는 면들은 금강하류지역 즉 논산시 서부, 부여군 남서부, 서천군 동남부와 가로림만 간척농지지구인 서산시 남부, 예당평야를 이루는 당진군 동부, 예산군 북부지역에 위치한 면들로 경지율과 논면적이 높고, 인구밀도도 상대적으로 높다.

셋째, 원격과소형에는 31개 면이 포함된다. 이 유형에 속하는 면들은 차령산맥을 중심으로한 공주시 북서부, 청양군 주변, 보령시 남부, 부여군 서부지역에 위치한 면들로 인구감소율과 전업농비율이 높은 반면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넷째, 중간혼합형에는 25개 면이 포함된다. 이 유형에 속하는 면들은 소백산맥이 통과하는 금산군 남동부와 연기군 중부, 홍성군 주변, 서산시 주변, 청양군과 당진군 일부지역에 위치한 면들로 인구밀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경지율과 논면적률이 높다.

다섯째, 어업겸업형에는 12개 면이 포함된다. 이

유형에 속하는 면들은 태안반도 주변지역인 태안군 일대와 보령시 일부, 서천군 해안지역에 위치한 면으로 어업가구율이 높고 겸업이 흔해진 면들이다. 반면 이 유형에는 내륙의 금산군 금성면, 공주시 우성면, 청양군 청남면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 면은 1종겸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다.

여섯째, 관광휴양형에는 12개 면이 포함된다. 이 유형에 속하는 면들은 크게 내륙의 관광휴양자원과 해안의 관광휴양자원 주변지역에 위치한다. 내륙의 경우 계룡산, 덕산, 도고온천, 해미읍성 등이 입지한 면, 해안의 경우 해수욕장, 어항 등이 입지한 면들이 이 유형에 속하는데 어업가구 비율이 높고 음식점업소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청남도 농어촌지역사회의 유형화는 연구자의 지표설정 기준 및 분석방법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사회경제적 지표를 활용하여 농어촌지역사회의 유형을 평면공간에 표현함으로써 농어촌지역사회의 공간구조체계 파악 및 변화방향 예측에 기여할 수 있으며, 농어촌지역사회 계획수립 및 정책결정에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가지의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지표선정의 문제로 지역사회유형화 지표선정이 주관적일 수 밖에 없었던 점, 둘째, 분석대상 범위의 문제로 면지역에 한정하여 유형화 함으로써 동과 읍의 유형화를 시도하지 못했던 점, 셋째, 분석방법론적 문제로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지역사회를 유형화 하였으나 분산분석이나 다중범위검증법 등에 의한 각 유형의 유의성 검증, 판별분석에 의한 지역사회 유형구분의 타당성 검증이 후속되지 않았던 점이 본 연구의 한계이자 다음 연구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열린충남**

참 고 문 헌

- 김기혁, “작물특화도에 의한 한국의 농업지대 구분”, 지리학연구, 제10집, 1985.
- _____, 한국농업지대의 변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 : 서울대학교대학원, 1991.
- 박시현 외,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의 장기방향, 연구보고 269,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2.
- _____,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어촌마을 정비방안, 연구보고 R 319,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 농업진흥공사, 농어촌지역의 유형별 종합개발계획 모형연구, 1986.
- 류종현 외, 미래지향적인 농어촌개발모형 연구, 춘천 : 강원개발연구원, 1997.
- 엄수원, 한국농촌지역의 유형화와 공간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 : 단국대학교 대학원, 1997.
- 유우익, 농촌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개발전략,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
- 윤경섭, “농어촌종합개발과 농진공의 역할”, 지방화시대의 농어촌종합개발전략, 서울 : 농업진흥공사, 1995.
- 윤근섭 외, “농촌지역사회의 인구변화와 대응 : 과소지역의 구조특성과 변화를 단서로”, UR 이후 한국농촌사회의 변화와 대응, 서울 : 한국농촌사회학회, 1994.
- 이정환 외, 농촌정주생활권의 특성비교 연구,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7.
- 이정환 · 김정연 · 이정기, 농촌정주생활권의 특성비교 연구,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7.
- 정지웅, 한국의 농촌 : 그 구조와 개발,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4.
- 정철모, 한국농촌의 합리적 정주체계 설정에 관한 연구 : 전북 군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전주 : 전북대학교 대학원, 1994.
- 최명규 외, “농촌지역유형별 시설수준 및 분포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7권 제4집, 서울 : 대한건축학회, 1991.
- _____, 농촌지역시설의 적정규모 및 배치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 : 1992.
- 최양부 외, 산업사회의 농촌발전전략 : 새로운 농촌지역 종합개발방식의 선택, 연구총서 19,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7.
- _____, 정주생활권 설정 및 유형화, 연구보고 109,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

충남의 문화재 사업과 그 성과



유 상 곤
(柳商坤)

충청남도
문화체육국장

I. 97년은 문화유산의 해

연말의 정치일정이나 어려운 경제 등으로 나라안이 온통 시끄러운 가운데 정부에서 정한 “문화유산의 해”도 저물어 가고 있다. 세인의 관심이 정치와 경제문제에 쏠려 있었기 때문인지, 과연 올해의 문화정책이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해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세상의 관심이 어디로 쏠려 있는지 간에 문화는 인간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관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방문화정책의 책임자로서 이런 때일수록 주민들에게 문화적 자양(滋養)을 제공하고 그들의 향수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묵묵히 노력하였다.

II. 충남 문화재 사업의 성과

1. 도민들의 참여의식 진작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여러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 97년을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을 해주고 대국민 정책도 펼쳐 온 까닭이기도 하지만 연초만 해도 국민적 관심이 우리 전통 문화유산에 집중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몇 년동안 전통문화에 대한 책자가 베스트셀러가 되는가 하면 문화재를 찾아 떠나는 관광상품이 인기를 끌기도 했다. 이런 경향에 힘입어 우리 것을 “알고 찾고 가꾸자”는 정부의 구호는 충분히 국민 정서에 어필되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문화재 사랑운동이 전개되었고 언론에서는 문화재에 관한 특집 기사로 우리 문화유산과 세계

문화유산을 비교함으로써 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새롭게 조명하기도 했다.

이런 사회전반의 흐름에 고무된 우리도에서도 찬란한 백제문화를 간직한 문화도로서의 자긍심을 살려 여러 의욕적인 사업을 전개한 결과 문화재 보존 전승에 적지않은 결실을 거두었는바 문화재 애호에 대한 도민의 자율적 참여풍토를 진작한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수확이었다.

2. 백제문화권 정비사업

지난 70년대부터 추진된 사업인 백제문화권 정비사업은 우리 도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대사업이다. 79년부터 시작하여 2001년까지, 무려 23여년에 걸쳐 총 637억원이 투자되는데 작년까지 435억원을 투자하여 모두 47건의 사업중 25건이 완료된 상태다. 찬란한 백제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융성 하였던 무령왕대의 문화가 고스란히 간직된 공주와 고대 동방 해양문화의 중심에 있던 백제가

역사에서 사라져간 마지막 비운을 지켜본 부여는 말 그대로 백제의 숨결 그 자체이다. 우리는 이 숨결을 되살리는 작업을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했던 것이다.

공주의 공산성과 부여의 부소산성 등 백제산성을 복원정비하고 송산리 고분군, 부여 궁남지 등 중요 사적을 정비하는 일이 전문가의 고증에 의해 철저하고 완벽하게 진행되어 이제 백제문화는 점차 원형을 회복하여 그 신비와 우수함을 우리에게 드러내 놓고 있다. 가장 벅찼던 것은 몇 해전 부여나성을 발굴조사하던 중 발견되어 세계를 놀라게 한 백제금동대향로였다. 세계 공예예술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 걸작 하나만으로도 백제문화의 우수성은 확실하게 입증될 수 있었다.

3. 국가 지방문화재 정비사업

국가문화재와 지방문화재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마다 국비지원을 합쳐 100억원이상이 투자되고 있다.

97년에는 특히 문화유산의 해로써 대폭적으로 사업을 늘려 국가문화재에 45억원, 지방문화재에 44억원, 기타 도 자체사업으로써 79억원을 투자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사업으로 80여억원을 들여 문화유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예는 쉽지 않은 경우이다. 박동진 판소리전수관 건립 등 무형문화재의 전승 보존을 위한 사업에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도 외형적 보수·정비에 치중되는 국비지원 사업을 보완하기 위함이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주민들의 협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엄연히 개인 소유의 문화재인데도 관의 지원만 갈망하는 태도는 조상의 문화를 아끼는 문화민족의 태도는 아닌 것 같다.

4. 忠孝烈 시설물 정비사업

우리도에서 특색있게 전개하는 사업으로는 충·효·열 시설물 사업이 있다. 도내에는 모두 445개의 충·효·열 시설물이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열녀문, 충효비문, 효자각 등 조상들의 위대한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이들 문화재는 그동안 비지정문화재가 많아 대부분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역이나 역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물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전해짐으로써 지역민들의 귀감이 되는 이들 시설물은 후세의 교육자료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도에서는 몇 년 전부터 점차적으로 이를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97년에는 총 4억원을 들여 25개소를 정비하였다.

5. 무형문화재 전승보존

유형의 문화재 못지 않게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에는 부여 은산 별신제 등 국가지정 6종, 공주 계룡백일주 등 도지정 19종으로 모두 25종의 무형문화재가 있으며 이를 전승하고 있는 기·예능 보유자들은 30명에 달한다. 현실적으로 이 문화재들은 유형문화재에 비해 전승·보존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시책 또한 어떻게 하면 이런 정신문화를 온전히 전승하는가에 치중하게 되는데, 기·예능 보유자들에 대한 지원은 가장 직접적인 대안이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들에게는 월 70만원, 도지정의 경우에는 월 30만원의 전승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국가와 도지정간의 격차도 문제지만 생계비에 못 미치는 지원금도 대폭 인상이 검토될 문제이다. 그들이 오로지 우리 전통의 맥을 잇기 위해 일생을 바치고 있는 진정한 장인들임은 물론이려니와 생계를 이유로 이의 전승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할 때 우리 것은 점차 사라져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예능 보유자들의 사기양양을 위한 시책과 자료보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6. 문화재 안내판 정비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화유적지를 답사하면서

언제나 아쉬운 점이 좀더 이해하기 쉬운 안내문안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지적도 있었고 실무자들도 느끼고 있는 점이다.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어 명기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문화재라는 특수성 탓으로 안내문안에 전문용어가 사용되고 간혹 외국어 표기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에서는 올해도 62개소의 안내판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안내판의 일원화된 규격도 과감히 탈피하여 그 지역 그 문화재의 특색에 어울리고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는 중이다.

7.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은 그동안 문화재 관계자들의 하나같은 여망이었다. 그러나 작업이 워낙 어렵고 예산도 상당히 소요되므로 쉽게 착수를 못하였었다. 다행히 정부에서 문화유산의 해 특별사업으로 사업비 일

부가 지원되어 우리도에서는 부여지역을 우선 추진하게 되었으며 98년도에 천안, 공주, 서산시의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을 계획이다. 얼마전 당진지역에서는 군 자체사업으로 이를 추진하였는데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각종 개발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멸실위기에 몰린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이보다 중요한 사업은 없다는 인식아래 문화재 분포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부여지역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지표조사가 이미 끝난 상태로 지도가 책자로 인쇄되어 나오면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에 더 없이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8. 문화유적 책자 발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한가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문화유적 책자 발간을 들 수 있다. 계룡산지, 금강지, 사찰지, 백제의 역사, 장승과 솟대를 비롯하여 충남의 문화유적을 총망라,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한

서적이 연차적으로 꾸준히 발간되고 있다. 얼마전에는 충남문화재 대관과 도서지를 발간하였다. 전문학자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원고를 집필하고 방대한 자료연구와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발간되는 이 책자는 앞으로도 영원히 충남의 문화유적을 연구하고 관리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학술서들이다.

사실 문화재 자체를 보수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1차적이라면 이들에 대한 학술자료를 정리하여 남기는 일은 궁극적인 가치가 된다. 도에서는 전자에 소홀치 않으면서 아울러 후자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9. 기타 사업

“문화유산의 해”와 관련한 사업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문화재 우편엽서를 제작 배포하여 도민들이 충남문화재를 이해하고 선양하는데 기여하였고 공주민속극박물관 협조하에 아시아 1인극제를 개최하여 충남 공주를 아시아 1인극의 본

고장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전통음악의 보존전승을 위해 연정국악원을 개관하였으며 박동진 판소리전수관을 건립하고 있다. 석장리 구석기 유적 전시관을 건립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귀중한 구석기 문화재를 한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게 되었으며, 불교문화재를 총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산 교육장으로써 정보박물관을 마곡사와 수덕사에 건립하고 있다. 백제문화와 당나라의 문화를 비교할 소중한 기회인 중국 낙양박물관 소장 백제문화재와 당나라 문화재를 함께 전시하고자 현재도 중국측과 교섭하고 있다. 계룡산의 산신제를 재현하기 위한 고증작업도 진행중이며 관내 각 박물관, 미술관,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매우 다양하고 유익한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하고 있다.

“문화유산의 해”마무리 하면서 이러한 노력들은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모든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그 열매는 더욱 커지리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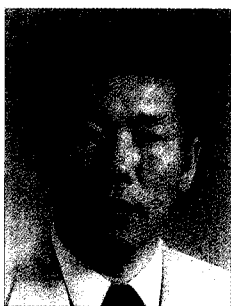
III. 나가는 글

충남의 문화재는 모두 742점에 달한다. 서울, 경북 등 일부 시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수준이다. 사업비 투자도 어느 도에 뒤지지 않는다. 도민들의 관심도 지대하고 문화적 자긍심 역시 높다. 이런 기본적 여건은 앞으로 우리도가 문화적 역량을 더 크게 기를 수 있는 잠재력이며 근원적 자양이다. 우리도에 서는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시책 추진에 열과 성을 다 하고자 한다. 백제장인의 후예답게 다가오는 21세기 새로운 문화중심을 이곳 충남에 두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각오이다. 경제부흥이나 사회발전도 문화의 토대가 튼튼할 때 가능하다.

서해안시대, 환황해권시대의 주역을 부르짖는 이때 우리는 문화적 뒷받침으로 이를 성취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전통문화가 세계문화의 핵이 되게 하는

문화적 기수로서의 역할을 자임한다. 아울러 문화재를 보존하고 전통문화를 창달하는 우리의 임무에 자부심을 갖는다. 우리 것은 조상으로 받은 소중한 유산인 동시에 다시 후손에게 물려줄 귀중한 당대의 자산임을 잊지 않으면서 **열린충남**

플라톤의 「이데아」와 21세기 정책방향



최 민 호
(崔珉鎬)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
제도담당관
(前 충청남도 지역경제국장)

충청남도청

1. 플라톤

플라톤은 기원전 427년에 태어나 기원전 347년 제자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조용히 잠들기까지 80년의 생애를 통해 그 후의 2500년간의 인류의 무지와 철학적 각성을 깨우쳐 준 역사상 최고의 철학자이다.

에머슨은 「플라톤이 철학이고 철학은 플라톤이다」라고 말한다. 그의 「공화국」이라는 명저에 대해서는 「도서관을 태워 버려라. 이 책 안에는 도서관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찬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감명과 예지가 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 그 자신의 학교 「아카데미아」를 설립한 그리스 철학의 최고봉인 그는 아름답고 정력적이고 병사로서도 뛰어난 기량을 가진 문자 그대로 다방면의 천재였다고 한다. 플라톤

이라고 불리어진 것도 그가 어깨가 넓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가 특히 플라톤의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그의 「이데아론」이 주는 시사 때문이다.

21세기를 앞두고 우리는 사회 각 방면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정립에 국가적 진운을 걸고 모색에 모색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상투적인 구호 - 세계화, 정보화 또 지방화라는 추상적인 목표-만을 세우고 있을 뿐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구체적으로는 어떤 정책을 세워야 하는지, 변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 개념조차 서질 않는 경우가 많다.

소위 변화와 개혁이라는 명제를 명쾌하게 납득할 수 있는 철학의 빈곤에 스스로 고민에 빠지곤 하는 것이다. 플라톤은 이러한 방황하는 대중에 이데아이

론을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의 눈앞을 환하게 밝혀 주고 있다.

그의 이데아론이 우리의 21세기의 정책방향에 어떠한 빛을 던져 주고 있는 것인지 우선 플라톤을 이해해 보기로 하자.

II. 플라톤의 「철인정치」

학창시절 우리는 공자는 「왕도정치」, 플라톤은 「철인정치」라고 수없이 외우고 써왔다. 왕도정치는 덕이요, 철인정치는 철학이다.

그의 철인정치가 「이데아론」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음을 몰랐던 것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정책수행을 위한 역량개발에 있어 큰 깨달음 하나를 놓치고 만 것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플라톤은 그의 철인정치를 다음과 같이 풀어 나간다.

「사람에 따라 국가도 다르다. 국가는 그 안에 사는 인간성으로 구성된다. 국가의 현상은 시민현상의 반영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더 훌륭해지지 않는 한, 더 좋은 국가는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플라톤은 간단한 문제 - 예컨

대 製鞭에서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제화공들만이 목적달성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면서 정치에 있어서는 투표를 조종할 줄만 알면 누구든지 도시나 국가를 다스릴 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탄식한다. 따라서 그는 인간의 품성과 교육의 완전한 기회균등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유토피아(공화국 : Republica) 건설을 제안한다.

우선, 10세 이상의 어린이들은 모두 시골로 보내어 어린이들을 격리시켜 아버지의 버릇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재능이나 천재의 빛은 어디서 번쩍일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오염된 어른으로부터 이들을 격리시켜 지위나 인종을 불문하고 공정하게 이 빛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태어나서 10세까지는 주로 체육을 시켜 평생을 지탱할 건강을 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에게 온화하면서도 동시에 용감한 성질을 갖게 하기에는 경기와 체육만으로는 부족하다. 영혼은 조화와 리듬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은 음악이다. 음악은 감정과 정서와 성격을 세련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의 유지와 회복에도 이바지한다. 그러나 시민은 음악에만 침잠하면 감정적이고 유약해 질 수 있다. 용기와 정신의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믿음은 내세의 삶에 희망을 주며 자기자신의 죽음을 직시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감내할 용기를 준다. 그는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는 건강, 정서, 용기라는 심성 외에 지식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은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자발적인 자유에 의해 수학, 역사, 과학 등의 기본과목을 습득하게 하여야 한다.

어린이가 20세가 되면 그동안의 공통과목의 성과나 노고와 고통과 투쟁에 대한 지극히도 엄격하고 공정한 시험을 치르게 하여 무자비한 평가를 당하게 된다. 이 시험은 공평무사하고 연고주의나 배경에 의해 결코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보다 더욱 민주적으로 실시되는 가장 쓰라린 이 시

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대단히 많게 된다. 플라톤은 이를 「대량제거」라는 혹독한 어휘를 사용한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그 사회의 상인이나 점원, 공장, 노동자, 농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최초의 이 시험에 합격한 자들은 다시 10년동안 육체, 정신, 성격에 걸쳐 중고급의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이리하여 30세가 되면 그들은 최초의 시험보다 훨씬 어려운 제2의 시험을 받게 된다.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한자를 金, 銀, 銅 중의 銅이라 한다면, 이 시험에서 실패한 자는 말하자면 銀과 같은 사람들로, 사회의 중산층을 형성하게 된다. 국가의 보조원, 즉 공무원이나 군장교가 바로 이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 탈락을 거부하고 자기의 직업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그리하여 지도자를 탐낸다면 어떻게 될까? 플라톤은 그들을 눈물로 호소하여서라도 설득해야 하고, 그 설득에는 다음과 같은 「금속의 신화」

를 들려주어야 한다고 한다.

즉, 金인 사람은 신이 금으로 만들었지만, 그의 아들은 금이라는 보장이 없다. 또 銀이나 銅인 사람은 자기는 은/동이지만 그의 지식은 금일 수도 은일 수도 있으니 사람은 누구든지 자식을 통해 종족을 유지하는 것으로 금의 아들도 동이면 동으로 대접하고, 동의 아들도 그가 금이라면 누구든지 금으로 대접해야 한다는 정의와 도덕으로 스스로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속된 선발의 물결에 살아 남은 행운의 잔류자는 그 후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철학을 배운다. 최상의 인간으로 金인 그들은 명석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데아론」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들은 향후 5년간을 이 이데아를 교육받는데 보내게 된다.

III. 이데아(Idea)

「이데아」란 무엇인가?

「이데아」라는 것은 일반개념으로 얘기한다면 실재성이 없는 말하자면 기본법칙이요, 일반성

이요, 규칙성이요, 사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데아가 무엇인가를 서술로 설명하면 오히려 더욱더 어려운 심연에 빠져들 것이다.

플라톤은 비유를 들어 이를 명쾌하게 설명해 준다.

어느 동굴에 괴수가 살고 있다고 하자. 이 괴수는 동굴밖으로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괴수의 진모습을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어느날 동굴속에 서부터 빛이 새어나와 그 괴수의 그림자가 동굴밖에 비치었다. 사람들은 그 그림자를 보고 “괴수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또는 저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즉 현상을 보고 사람들은 그 실체를 추측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상은 시간에 따라 또 각도에 따라 그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는 괴수의 모습은 제각기 그 모습이 다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金인 사람들과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여러 현상을 종합하여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배움으로써 동굴

안에 사는 괴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

동굴안의 실재의 괴수 - 현상만을 좇아 사물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파악되기 어려운 보이지 않는 개념으로의 존재 - 변하지 않는 영속적인 본질 - 이것이 바로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강을 건너기 위한 다리가 세워져 있다. 이 다리는 시멘트와 철근과 벽돌과 모래 등으로 만들어져 있다. 사람과 자동차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이 다리는 튼튼하다. 왜 튼튼할까? 무엇이 저 다리를 튼튼하게 지탱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그것은 “시멘트와 철근과 벽돌 같이 튼튼한 재료가 이 다리를 버텨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한다면 그것은 현상만을 이해한 해답이 된다. 「이데아」를 이해하는 金인 사람은 이렇게 답변할 것이다. 그것은 “시멘트와 철근과 벽돌 등이 배합되어 나타나는 장력때문이다”라고 즉, 다리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시멘트 같은 재료가 아니라 재

료에 의해 생성된 공학적 법칙, 수학적 원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본질이나, 법칙 또는 영속적인 원리, 그것이 바로 「이데아」인 것이다.

「이데아」가 없으면 세계는 난관이 처음 눈을 떴을 때 본 세계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곧 무질서하고 무의미한 개별적 감각의 덩어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사물을 분류하고 일반화하는 경우에만, 사물의 존재법칙과 사물의 활동목표가 발견되는 경우에만 사물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데아를 이해하고 파악한다면 문제를 보다 근원적이고 전체적으로 접근해 갈 수가 있을 것이며, 그 해결책 또한 완전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년간 이데아라는 고급 철학을 배운 「金」들은 그후 어떻게 되는가? 35세가 된 그들은 이제 철인이 되어 사회의 지도자로서 인류를 다스리고 군림하게 되는가? 애석하게도 그들에게는 아직도 교육이 끝나지 않았다. 그들이 배운 것은 이론에 불과한 것이다. 이제 철학박사들은 「철

학의 언덕」으로부터 인간과 사물의 「동굴」로 떨어뜨리지게 된다. 그들은 현실세계의 이기적이고 완고하고 비합리적인 나라에 뛰어 들어 「세상」을 겪어야 한다. 거칠고 거친 현실속에서 그들은 양식을 벌기 위해 일하고 싸우고 흘려야만 한다.

얼마동안? 15년간 - 그리하여 거꾸러지고 아니면 안주하여 탈락된 자를 제외하고 마지막까지 상처투성이가 살아남은 金 - 그들은 50세가 되어 있다. 냉정하고 자신에 넘치며 삶의 무자비한 알력으로 학자적 허영심은 사라지고 이제는 전통과 경험, 교양과 투쟁이 합쳐서 이루어진 지혜로 무장된 그들, 그들만이 철인이라 불리우며, 비로소 국가의 통치자가 된다.

IV. 정책과 「이데아」

긴 플라톤 철학의 산책로를 끝내고 이제는 「극장 밖」의 현실로 나와 보자.

21세기를 내다보며 우리는 국가와 민족의 진운을 열고 선진국으로 당당하게 진입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귀가 따갑게 외

치며 찾아다니고 있다. 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행정의 방향 또한 빠트릴 수 없는 우리의 관심사이다. 어디서 우리는 빛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정책이라 하는 것을 주민욕구의 충족이라 하든, 행정수요의 대응이라 하든, 문제의 해결이라 하든, 또는 미래의 비전의 제시라 하는 정책입안자의 시선은 우선 정책대상의 본질과약, 즉 「이데아」에 그 초점을 맞추는 노력을 선행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현상의 껍질을 몇 껍질이든 벗겨내어 껍질속에 자리잡고 있는 핵심(core)을 적출하고 이를 분석하여 적절한 해결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공무원들은 비록 금의 자질은 못가졌을 지언정 그 시대의 금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 정책추진상의 가장 큰 문제는 늘 현상처방에 급급하였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미봉책이라든가, 임시응변식이라든가 근시안적 발상이라든가 朝令暮改식 법제도라는 말은 우

리가 익혀들어 온 우리들에 대한 모욕이었다. 그렇다면 21세기의 정책방향의 이데아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을 나는 「시대」라고 보고 시대에 얹힌 話頭를 하나 던지고자 한다.

즉, 역사적으로 각 국가는 끊임없이 스스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은 해왔을 것이다. 자발적으로 패망의 길로 나서고자 의도했던 나라가 있었을까?

그런데도 나름대로 잘되기를 바랐던 그 길이 어디서 잘못되어서 찬란했던 문화를 자랑하던 나라가 지금은 후진국의 밑바닥 언저리에서 과거의 영화만을 되새김질 하고 있는가 하면, 보잘 것 없는 야만국이 지금은 선진국이 되어 세계를 리드해 가고 있는 것일까?

역사의 이러한 반전을 간단히 그 시대의 국민정신으로 귀결시키는 논리에는 나는 찬동할 수 없다. 국민정신을 이끌어내는 動因을 찾고자 하기 때문이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나는 현재의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격차는 다음 몇가지의 역사적 경로

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

① 12C에서 16C까지 즉, 서구에서 중세의 터널을 빠져나온 후, 각국이 당시의 사회적 이념, 과학기술, 사상, 예술 및 각각의 織城을 어느 정도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우하였는가? ② 당시 해외로의 진출에 어느 정도로 자유로웠고 또한 국가적 지원이 있었는가? ③ 대내적 대외적 환경에 있어 상호경쟁의 요소가 어느 정도로 강했는가?

첫번째 문제는 자유로운 직업의 선택과 이를 통한 성취의 범위를 의미한다. 창의를 숭상하고 다양한 기술과 학문, 그리고 사상과 이념의 발전은 이리하여 가능하게 된다. 유럽에서의 기독교의 캘비니즘, 일본에서의 유학중 양명학의 발달, 미국에서의 청교도에 입각한 개척정신의 발현과 현대 과학문명 등은 이러한 사조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기술의 발전이 가능해진 것이다.

두번째 문제는 개방성과 진취

성을 의미한다. 해외진출을 통해 무역의 증진, 이로 인한 부의 축적을 이루게 되고 또한 해외 경영을 통한 식민지 획득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바다를 제패하는 자가 세계를 제패한다는 서양의 속담은 곧 무역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고 자국의 해군력을 강화시키는 까닭 또한 무역을 보호하며 교역상의 교두보 확보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그들은 강력한 경제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세번째 경쟁성,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대내적으로는 봉건제의 존재요, 대외적으로는 전쟁이었다. 군웅할거의 생존경쟁과 전쟁을 통해 적자만이 살아남는 치열성을 배운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결국 군사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 군사력이 결국 제국주의를 태동하지 않았던가.

이러한 세가지 조건 중 모두를 다 보유한 나라는 현대의 선진국이 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유럽의 선진국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럽국가 중에서도 그 후 이러

한 조건을 상실한 나라는 다시금 낙후된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동유럽의 공산국가에서 우리는 그 전형을 본다. 첫번째의 이념의 확일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그들은 발전을 멈추고 만 것이다. 일본 같은 나라는 당초 첫번째와 두번째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었다. 그들이 이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은 명치유신 이후이다. 그 후 그들은 비약적 발전을 보게 된다. 대체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의 개발도상국은 단일이념체제, 종교적 폐쇄성, 土農工商 등 신분과 직업에 대한 차별 등으로 인해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지 못하고 말았다.

고대 인도문명의 발상지이자 찬란했던 굽타문화와 불교를 배태(胚胎)해 낸 대국 인도가 어찌하여 아직도 후진국의 수렁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가? 인류 最古의 문명지였던 이집트, 바빌론,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현대 기초과학의 원조국인 중동의 아랍국가들은 무엇의 질곡에 빠져 저토록 낙후되고 말았는가? 종교적 확일성과 맹목

성, 카스트제도 같은 신분제도, 남녀의 차별이 저들의 발전을 붙잡고 있지 않은가?

유교의 단일 이념체제에서 강력한 신분제도와 직업의 귀천,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서도 해외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만을 고수하였던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는 아니었다.

기원전 700년경에 발원하여 불과 53년만에 지중해의 패자로 등장하는 고대 로마제국의 융성에 대하여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 이유를 라틴민족만이 아닌 다양한 인종을 통합하면서, 한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의 협조와 협동에 의해 국가를 건설하고, 종교에 관한 포용성과 패자까지 동화시키는 로마인의 생활방식에서 찾는다. 한마디로 이를 개방성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V. 21세기의 정책방향

「시대」를 화두로 하였던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하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우리의 정책은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가? 앞에서 전개한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면, 역시 우리사회는 위의 세 가지 여건, 이를 축약해서 말한다면, 첫째 다양성과 둘째 개방성과 셋째 분권성을 더욱더 신장시켜야 한다고 나는 굳게 믿는다.

첫째 다양성이란 생물학에서 말하는 「리비히의 법칙」과도 같은 것이다.

즉, 한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 또는 각각의 직업은 그 사회를 유지하는 영양소와 같은 것이다. 비록 아무리 비싸고 좋은 비타민이 있어도 그것만 충분하고 하찮게 보이는 탄수화물같은 것이 부족하다면 인체는 그로 인해 병을 얻어 건강을 잃듯이 영양소는 골고루 어느 한쪽에 편중됨이 없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독일의 리비히는 이를 물통에 받아질 수 있는 물의 양은, 통을 만들고 있는 여러 조각이 판자 중 가장 낮은 판자의 높이에 결정되고 있음을 예로 들고 있다 (최소량의 법칙).

국가사회도 유기체인 이상 각

인의 능력은 그 모두가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직업에 우열이 있거나 차별이 있는 사회는 그 분야에 있어 취약점이 생기게 되고 그 취약점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들게 되며 그만큼 경쟁력은 약해지고 말 것이다. 인간의 능력은 인간의 자로는 켤 수 없는 무한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어느 부문의 능력개발이 앞으로 미지사회의 선도분야가 될런지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을 초래시킨 컴퓨터의 존재를 100년 전의 어느 석학인들 예측할 수 있었겠는가?

따라서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눈뜨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다양성을 지원하고 추구하며, 그 기회를 균등히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무한경쟁시대를 살아야 하는 앞으로에 있어서 각 부문의 다양한 발현,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좌우된다 하여도 과언이라 할 수는 없으리라.

따라서 각인의 개성을 존중해 주고 각자의 재능을 최대한 살

려주어야 하는 정책목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사회의 전통적인 행정직 우위의 인사운용으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소외감이나 불이익은 따라서 과감히 철폐되어야 하고 하위직의 언론을 막거나 상의하달식의 지시일변도의 업무태도는 반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창의와 개성은 최대한 발휘되게 하여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학력에 의한 편견이나 사법고시에 집착하여 인생을 거기에 거는 식의 가치편중된 직업관은 제도적으로 이를 교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믿는다. 소위 의사, 변호사 등의 「사」字 돌림의 직업에 대한 재평가가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특권」과 「폭리」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우리 직장 구성원의 특기조사를 하여 각자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빛을 못보고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는 특기와 정보력을 최대한 조직의 에너지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신은 누구에게도 평생을 바쳐

노력하면 그 분야에서 大家가 될 수 있는 재능을 한가지씩은 주셨다는 신념을 나는 믿는다. 가치관과 환경에 의해 자기 재능을 못살리고, 하고 싶지 않은 일에 평생을 힘들어 하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목도하였던가? 자식을 키울 때에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업선택에 강요를 하지 말아야 할 소임도 여기에 있다. 어쨌든 자기 직업이나 지위에 예절이 아닌 차원에서 끌려하거나 비굴해하거나 반대로 거만하거나 과시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개인의 입장에서 자존심을 갖는 것, 이것이 다양성의 첫번째 출발이다.

둘째로 개방성이다.

나는 개방성이야말로 그 인간 또는 그 사회의 폭이라 생각한다. 다시말해 흔히 얘기하는 「스케일」이라 하는 것은 여기서 측량해 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더욱더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모르던 존재와의 공존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모르는 것과 문을 닫아 걸면서

무슨 확장이라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한 사회가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느냐는 따라서 얼마나 개방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나는 믿고 있다.

선진국을 지향하고, 21세기의 세계의 주역국가가 되려면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아닌자들에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그 이상으로 더 받아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시 얘기하자. 개방이란 내가 모른던 것에 대한 수용이라는 것이다. 개방을 해외교류의 증진이라는 식의 측면에서 우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 「현상적」이고 지엽적이다. 마음의 개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개방성의 가장 큰 적은 배타주의 의식이며 우리에게 있어 그것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지연과 학연과 혈연일 것이다.

즉, 연고주의인 것이다. 학벌과 지연, 혈연이라는 지독히도 배타적이자 비개방적 사고방식의 철폐는 규제완화보다 더욱 시급한 우리의 정책과제이다. 지방자치시대라고 하지만 그 지

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면 타 지역 아니 외국인이라도 우리는 쓸 수 있는 오픈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내 지역, 내 고향만을 애지중지해서 우리 지역사람만이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 중의 오산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려 한다면 타 지역 사람을 과감히 써야 할 것이다.

읽은 책만 읽은 사람에게 무슨 지식의 확장이 있겠는가?

내 지역에서만 살아온 사람만 으로서는 그 지역의 비약적인 발전전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나는 감히 생각한다. 애향심만으로 고향을 발전시키기에는 우리사회는 너무 커졌고 세계는 너무 복잡해진 것이다. 공직사회의 인사교류는 과감히 개방하여야 하며 연고지배치 인사에 연연해서는 결코 아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공직선거법상의 長의 3개월의 입후보 거주요건도 시대에 따라 재고하는 것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市郡, 우리道 직원이 아니면 승진하기 어

려운 인사관행도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믿는다.

참고로 선진 외국에 議員이 아닌 長의 입후보 거주요건을 법정화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와 제도가 가장 흡사하다는 일본을 포함하여 나는 그 예를 알지 못한다. 또 일본의 지방공무원 인사원칙에 연고지 배치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

비단 인사분야 뿐이겠는가?

개방성이라 할 때 그것을 우리가 해외에 많이 나가 그들과 동화해야 한다는 식의 생각도 깨야 한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에게 널리 마음을 허용해 주고 우리의 울타리로 넣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욱 손쉬운 개방이다.

세째로 분권의 추진이라 했다.

분권과 반대되는 개념은 일단 집권이다.

분권과 집권, 이것은 그 자체로 선악 또는 우열의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집권과 집중이 훨씬 더 효율적 이요, 강력할 수 있다. 국가건설의 초기단계나 위기상황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는

상황논리일 수 밖에 없다.

앞에서 유럽에 있어 봉건사회의 분권화를 통해 균형적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고 나서 절대 왕조 시대를 거쳐 통합화가 이루어진 다음 계층의 분화를 통해 각계의 화려한 발전이 이룩된 것은 선진화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길고도 너무나 긴, 집권 집중의 역사를 가졌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 발전으로도, 퇴보로도 작용해 왔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처해있는, 또한 앞으로의 시대상황을 조망할 때 이제는 분권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는 돌이키지 않고 돌을 놓고 싶다. 지금의 분권화는 다른 말로 바꾸면 다양화요, 경쟁화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와 분권화는 거스를 수 없는 국가전략이라는 방향인식을 확고히 가져야 하듯이 조직내부에서도 분권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도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로 일말의 의문을 갖는다면, 여기서 깨끗이 털어 버리자. 해야 옳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정력을 집중함이 옳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허부로의 권한의 위임의 중요성을 구두선으로 끝내서는 미래가 없다. 국정의 모든 잘못을 대통령에게 돌리거나, 장관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 반대로 공은 상관이 책임은 부하가 라는 전부 아니면 제로(all or nothing)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분권화에 가장 저해되는 요인이다. 그동안 권한의 허부 위임을 그렇게 외쳤왔건만 잘 안되는 이유는 바로 결국 문제가 생기면 최고 책임자에게 그 책임이 돌려졌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권한과 함께 책임을 지는 한계를 우리는 분명히 하여야 한다.

분권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경쟁이고 경쟁을 거쳐 발전은 도모된다. 그러나 경쟁이 강조되는 사회는 드라이하고 살벌해 진다. 인간미도 없어지고 사는 것 자체가 피곤해 질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인 룰(rule)이라는 것이고, 페어플레이라는 것일 것이다. 정한 룰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더티

(dirty)한 플레이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원칙이 서지 않으면 분권과 경쟁은 이전투구식의 혼란만을 초래할 것이다. 법과 질서, 그리고 공권력은 어떤 희생이 치러지더라도 확실히 지켜져야 한다.

공권력의 집행자들인 우리는 이점에서 느슨해지거나 관대해져서는 아니된다. 융통성이라는 미명아래 규정의 적용이 일관성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분권을 추진함에 있어 그러나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정체를 분간하지 못하는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분열이라는 것이다. 이기주의도 결국 이곳에서 만난다. 분권주의에 맞들리면 누구나 자기앞에 곱감을 더 놓으라고 하지 않을까.

플라톤과 스승인 소크라테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함정으로 인해 「민주정치는 민주주의의 과잉에 의해 망한다」라고 하여 경계하였던 분권성의 독소.

참고로 말한다면, 플라톤은 민주정치가 망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전제정치라 하였다. 분열과 이기주의에 식상한

대중은 다시 그것을 원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토록 열심히 「철인정치」를 구상하여 주장한 것이겠지 만……

그렇다면 무엇으로 분권을 추진하고, 분열을 막을 것인가? 그 답변에 아마 자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나는 사회가 다양화 되고 개방화 된다면 어느 누구도 자기집단의 이익만을 관철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여기서 그들간에 「합의」라는 것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도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합의에 도달한다면 그것은 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正義라는 이름의 일반논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다양화와 개방화는 더욱 필요한 우리시대의 방향이리라.

Ⅵ. 논의의 정리

21세기의 정책방향을 논하기로 하고서는 결국 국민의식의 문제로 논점을 귀결시킨 감이 들게 되어 버렸다.

앞서 말했듯이 한나라의 발전

을 그 시대의 국민정신에 귀착시키는 방식을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국민정신이나 의식에는 그것을 그렇게 형성시킨 어떤 시스템, 즉 어떤 환경이나 체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내 생각인데,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나는 제도요, 정책과제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정설과 같이 얘기되는 「운영이 중요하지 제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도 지지하지 않는다.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확실히 그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이 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 제도의 정책수립에 있어 우리가 지향해야 하고 바꾸어나가야 할 방향, 그 출발점을 논해보자는 것이 이 글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다양화, 개방화, 분권화라고 나는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 국가의 영고성쇠가 반드시 위에서 얘기한 세가지 조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단정한다면 그것은 독단에 불과할 것이다. 어찌 한 국가의 흥망이 그렇게 세가지 정도

에 의해 단순하게 결정되었는
가? 따라서 국가의 정책방향이
라는 것도 간단명료한 해답이라
는 것은 없으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
의의 첫 출발에서 소개하였듯이
이 사회에 있어 현상이 아닌 본
질적인 무엇, 즉 이데아라는 것
에 의한 방향설정 또한 없으리
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런
맥락에서 앞서 제시한 세가지
조건이라는 것도 이것이 「충분」
한 것이라는 주장은 할 수 없지
만, 「필요」한 것이라는 것에 나
는 양보하고 싶지 않다.

또 21세기 시대의 발전방향에
맞는 정책의 형성과 추진, 그것
에 책임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행정공무원이라는
것에 나는 더욱이 양보할 수 없
다. 물론 다원화 사회에서는 각
분야의 의견이 중요하고 정치기
능이 라는 것도 있는 것이지만,
전문화 시대에 있어 정책전문가
는 프로행정가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21세기의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내일은 오늘보다
는 나아질 것이라는 비전을 위

해 “자! 우리 벗어 버리자” 에
고이즘의 갑옷을 벗고, 일제시
대때 교복에서 목을 조르던 그
뻣뻣했던 자기권위의 후크를 풀
자. 내것을 감추고 있는 단추도
열자. 그리고 가슴 가득히 바깥
의 대기를 들며 마셔보자. 생각
만 해도 신선하고 트인 기분이
들지 않는가? 감기가 걱정이 되
서 못 풀겠거든 골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써라. 그리고 다
시는 세상밖을 나오지 마라. 감
기는 전염되는 것이니까!

열린충남

연구원사업

충남 이미지 통합(CIP)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 10월 7일(火) 오전 10시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심대평 도지사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이미지 통합 중간보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청남도 이미지 심볼마크 및 마스코트(거북이, 소, 용, 계룡산 등) 후보(안)에 대한 심의와 도민의 의견조사 결과를 토의했다.

태안정신발굴 연구 자문위원회 회 개최

❖ 10월 10일(金) 오후 7시 유성 명문가 회의실에서 다가오는 21세기를 풍요롭게 이끌고 갈 새로운 태안정신을 정립하기 위한 「태안정신 발굴 연구용역 자문 위원회」를 개최했다.

중부권 내륙 컨테이너기지 연 구 중간보고회 개최

❖ 10월 17일(金) 오후 2시 연기군청 회의실에서 연구진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권 내륙 컨테이너기지 주변 개

발구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변에 인구 수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배후 지원도시와 유통단지 조성 구상안에 대한 연구수행 내역을 보고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전략 세미나 개최

❖ 10월 28일(火) 오후 2시 대전대학교 지산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충남발전연구원과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소장 유희일) 공동주관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의 조달과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 사 회 : 조현래(대전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 고영호(대전대학교 교수, 세방화 시대의 지방재정과 지역발전), 김병기(건양대학교 교수,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자금조달 방안에 관한 연구), 박창언(한국은행대전지점 조사과장, 지방재정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종합토론 : 박정택(대전대학교

교수), 최병학(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동원(삼성증권 대전지점장), 장홍진(대전광역시 예산담당관)

연구원 한마음 수련회 개최

❖ 10월 31일(金) 임직원의 인화협동과 건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한 연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청양군에 소재한 칠갑산에서 「연구원 한마음 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요 행사는 칠갑산 정상에서 장곡사까지의 등반과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에서 화합행사를 실시했다.

백제문화 포럼 개최

❖ 11월 5일(水) 오전 11시 서산문화회관에서 本院 주관으로 “백제문화권 개발과 21세기 충남의 미래”란 주제로 「백제문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 민족문화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백제문화가 아직까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고장에 남아있는 백제유적의 현황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방향을 제시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 사 회 : 유원재(공주교육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주제발표 : 신형식(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백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남석(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겸 박물관장, 백제유적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강승(충남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겸 박물관장, 백제문화권 개발의 현황과 과제), 여정태(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백제문화권 개발사업과 관광 충남).

• 종합토론 : 양기석(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서오선(국립청주박물관장), 윤용혁(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차석빈(순천향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김용교(충청남도 일반정책심의관), 김현구(서산문화원장)

농촌지역사회 농업인력 확보
방안 학술발표회 개최

❖ 11월 15일(土) 오후 2시 대한 생명빌딩 회의실에서 충남발전연구원과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회장 남용호) 공동주관으로 “농촌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농업인력 확보방안”에 관한 주제로 「농

촌지역사회 개발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농촌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농촌인력 부족현상의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 사 회 : 이창수(충남전문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 김용철(중부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 농업인력 공급을 위한 도시 퇴직자 유치방안), 심재성(배재대학교 원예조경학부 교수, 농가인력의 구조적 특성과 금후의 과제)

• 종합토론 : 정하성(평택대학교 교수), 권용대(충남대학교 교수), 김한곤(충남전문대학교 교수), 박서호(한남대학교 교수), 황택주(중부대학교 교수), 배성의(공주대학교 교수), 박진호·송두범(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양태진(농촌지도자)

21세기 아산권 지역정보화와
첨단산업화 전략 세미나 개최

❖ 11월 18일(火) 오후 2시 아산 시청 대강당에서 충남발전연구원·호서대학교지역개발연구소·아산시 기업체협의회 공동주관으로 “21세기 아산권 지역정보화

와 첨단산업화 전략”에 관한 주제로 「지역정보화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아산권의 지역정보화 실태와 발전 전략 모색, 아산권 첨단산업화 활성화 방안, 아산권 지식산업 입지의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 사 회 : 강석기(호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채경석(호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성휘(호서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주제발표 : 남상화(호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아산권 지역정보화 실태와 발전적 전략의 모색), 황희용(호서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아산권 첨단산업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동체제의 활성화 방안) 박진서(아산시 기획감사실장, 아산권 지식산업 입지의 활성화 방안)

• 주제토론 : 조남인(선문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문대철(호서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한규인(충청남도 정보화정책심의관), 손민구(대전매일신문사 차장), 김홍진(순천향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 홍(호서대학교 산업안전공학부 교수), 김학

민(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형집(아산시기업체협의회 회장), 이목훈(호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순배(아산시의회 의원), 정영훈(미디어밸리 책임연구원), 이기원(대전일보사 부장)

이원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 11월 28일(金) 오후 2시 태안군 이원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연구진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원간척지구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태안지역의 발전가능성 모색과 산업단지 조성 입지여건에 대한 보고를 했다.

97년도 제2차 정기 이사회 개최

❖ 11월 28(金) 오전 11시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심대평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97년도 제2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관개정 2건, 97년도 사업실적보고, 98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의했다.

태안정신발굴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 12월 9일(火) 오후 2시 태안군청 회의실에서 21세기 태안정신을 정립하기 위한 「태안정신발굴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인본도시 구상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 12월 15일(月) 오전 10시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연구진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를 향한 인본도시 구상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개최되었다.

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12월 5일(金) 오후 4시 연구원 회의실에서 국가적으로 대두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문제를 충청남도 차원의 위기극복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 회 : 이강선(충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부장)

• 전문가 : 박종찬(고려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정명기(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종상(충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부장), 한

무호·이인배·박진호(충남발전연구원), 박한규(충청남도 지역경제국장), 김용교(충청남도 일반정책심의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 12월 23일(火) 오후 2시 충청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산·학·연·관 경제관련 전문가 및 단체, 지역주민 등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 회 : 변평섭(칼럼연구소 소장)

• 주제발표 : 정명기(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현 경제위기의 원인과 향후 경제전망), 이강선(충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부장, 긴축시대의 충청남도 재정운영대책), 배진한(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제성장률 저하와 충청남도의 실업대책), 박종찬(고려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새로운 경제를 속의 충청남도 중소기업 지원대책), 권용대(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IMF 금융지원이 우리 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

• 종합토론 : 김병기(건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조원권(우송산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이재현(대전일보사 논설실장), 정태봉(유진통신 주식회사 대표), 이명수(충청남도 정책실장)

97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디자인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97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을 추진했다.

• 천안시 성환읍 (주)송림산업 CIP 제작

• 천안시 수신면 백송도자기 홍보용 카타로그 제작

• 천안시 입장면 입장밀알 영농협동조합 포도식초 포장디자인

• 서산시 고북면 (주)금강종합식품 CIP 제작

공주 계룡백일주 용기 이탈리아 국립 동양박물관 기증

❖ 本院 산업디자인부가 주관이 되어 도예가 이상돈 선생이 개발한 공주 계룡백일주 용기가 이탈리아 측의 요청으로 이탈리아 국립동양박물관에 기증되었

다. 이 제품은 국립 동양박물관에서 유일하게 소장하는 현대도자기이다.

현안연구사업

❖ 도정평가위원 설문서 작성 및 분석 연구(97. 10. 15~97. 11. 5)

• 도정시책 추진 및 주요 개발현장에 대한 여론을 도정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여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도정평가위원 설문서 작성 및 분석에 관한 연구」를 실시

❖ 97 산업디자인 홀닥터제 지도운영(97. 5. 1~97. 11. 5)

•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디자인을 진단·지도하고 이의 상품화개발을 도모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산업디자인 홀닥터제 운영」을 실시

❖ 충청남도 儀典편람 감수

(97. 12. 4~97. 12. 9)

• 충청남도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고 차별화된 儀典을 수행하기 위한 「충청남도 의전편람 감수」를 실시

❖ 도정과 관련한 각종 디자인연구 「지방세정 체험기 표지」 디

자인(9. 11~9. 23)

• 「공공 시설물 안내 표지판」 디자인(9. 13~10. 1)

• 「도정홍보 VCR 표지 및 스티커」 디자인(9. 11~9. 29)

•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집 표찰」 디자인(10. 1~10. 10)

• 「내가 도지사라면 제안공모 포스터」 디자인(10. 16~10. 29)

• 「중부농축수산물 물류센터 홍보물」 디자인(11. 14~11. 17)

• 「기초행정 실무집 표지」 디자인(11. 14~11. 20)

3·4분기 수탁연구사업

❖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 구상연구용역(96. 6. 5~97. 12. 31)

• 4대권 개발경영계획을 기초로 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면서 세계화·지방화·정보화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차원의 지역발전구도를 설정하고, “중부권의 핵심리더”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축” “환황해권의 거점지역”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한 「21세기 중장기 비전(vision)」을 제시

❖ 충남 이미지 통합(CIP) 추진사업 연구용역(97. 3. 13~97. 12. 31)

• 세계화·지방화·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충청남도민의 시각적 구심력과 귀속감을 높일 수 있는 이미지 창출과 다가오는 21세기를 지향하는 충청남도의 비전과 도민 문화의식의 고양을 유도하기 위한 「충청남도 지역이미지 창출」에 관한 연구

❖ 21세기를 향한 인본도시 구상 (97. 3. 25~98. 3. 29)

• 현대사회여건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지금까지의 개발방식 또는 정책환경에서 탈피하여 미래지향적인 지방도시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개념의 틀과 방법론인 인간중심적 개발방식(human centered development)으로의 전환을 위한 「21세기를 향한 인본도시 구상 및 개발전략」을 수립

❖ 중부내륙 컨테이너기지(CID) 주변 개발구도 (97. 6. 3~97. 12. 29)

• 중부권 내륙 컨테이너기지 주변에 인구 수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배후 지원도시와 유통단지를 조성하여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중부권 내륙

컨테이너기지 주변 개발구도」를 수립

❖ 이원간척지구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97. 7. 1~98. 1. 31)

• 태안군 이원간척지구 일부를 향후 생태적 산업단지로 조성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태안군 재정자립도 향상, 태안지역의 발전가능성 모색 등을 위한 산업단지 입지여건,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하여 향후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이원간척지구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에 관한 연구

❖ 만세보령 자치시정의 발전전략 연구용역(97. 8. 4~98. 3. 31)

• 만세보령의 성장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전략적으로 特化시킴으로써 자치시정의 경쟁력을 창출·확보하기 위한 「21세기를 지향하는 만세보령 자치시정의 발전전략」을 수립

❖ 태안정신 발굴 연구용역 (97. 9. 1~97. 12. 29)

• 태안군민의 마음속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태안정신을 발굴하여 현대를 사는 태안군민의 정신적인 지주로 삼고, 다가오는

21세기를 풍요롭게 이끌고 갈 새로운 정신을 정립하기 위한 「태안정신 발굴」에 관한 연구

❖ 공주지역 산성조사 연구용역 (97. 10. 22~98. 8. 16)

• 공주지역에 남아있는 산성조사를 통해 백제산성의 原形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백제시대의 축성기술 및 축성방법을 확인하는 동시에 백제의 도성방비 체제를 밝히기 위한 「공주지역산성조사」에 관한 연구

❖ 보령 까나리 액젓 포장재 개발 (97. 10. 24~97. 12. 22)

• 도내 중소기업의 참신하고 다양한 포장디자인 개발의 일환으로 보령시의 우수 특산품인 「까나리 액젓 포장재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 한산 세모시 상표등록 상징마크 제작(97. 11. 24~97. 12. 3)

• 서천군의 우수 특산품인 한산 세모시의 원산지 부각과 판매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목적으로 「한산 세모시의 상징마크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 계룡 신도시 이미지 광고물 제작(97. 12. 4~97. 12. 24)

• 계룡 신도시의 이미지 및 조성용지 공급 관련 광고 디자인을 개발하여 신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금암 염사 신시가지 조성 사업지구의 용지공급을 높이기 위한 「계룡 신도시 이미지 및 조성용지 공급 광고물 제작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 조선시대 무과시험제도 고증 연구(97. 11. 24~98. 4. 22)

• 98년도 성웅 이순신 순국 400주년(탄신 453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조선시대 무과 과거시험제를 학술적이고 체계적인 고증에 의해 재현하기 위한 「조선시대 무과 시험제도 고증」에 관한 연구

원 장 동 정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 11월 27일(木) 오후 3시 충청남도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97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충남발전연구원의 운영현황, 97년도 주요사업 실적, 98년도 주요사업

계획안, 연구원 장기발전계획안 등을 보고했다.

문화재위원회 참석

• 12월 19일(金) 오후 3시 문화체육부주관으로 개최된 「문화재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시도연구원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 12월 26·27일 양일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개최된 「시도연구원협의회 97년도 하반기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도연구원장 및 실무위원 20여명 참석하여 97년도 연구원협의회 업무보고, 시도연구원誌 제2호 발간, 뉴스레터 발간, 시도연구원 총람 발간,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안전을 심의했다.

연구원 활동

이강선 연구기획부장은

• 10월 9·10일 양일간 한국경제신문사 · 한국경제연구원 · 중국경제일보사 · 중국사회과학원 공

동 주최로 한국경제신문사 강당에서 개최된 「環黃海 經營會議」에 패널리스트로 참석했다.

• 10월 28·29일 양일간 국토개발연구원 주관으로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방향정립과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국가정책과 지방정책간 상호 협력보완을 위한 「연구원 협력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정연 지역개발부장은

• 10월 28일(火) 「강경되살리기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강경 되살리기는 옛날 강경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강경 젓갈시장, 옥녀봉, 강경산업단지 등에 대한 개발구상을 검토했다.

최병학 책임연구원은

• 10월 16~31일 개최된 「충청남도 시군정 97년도 연구논문 발표대회」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 10월 28일(火) 오후 2시 대전대학교 지산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충남발전연구원과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소장 유희일) 공동주관으로 지방화 시대

를 맞이하여 지방재정의 조달과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전략」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 10월~12월 충청남도 주관으로 중양-도-시군간 사무배분 업무 지방행정분야의 연구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박진호 연구원은

• 11월 29일(土) 오전 10시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 주관으로 대구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개최된 「비영리조직과 지역사회 개발」 국제학술발표대회에 참석했다.

송두범 연구원은

•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21세기 충남도시발전 구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염창선(충청남도 도시계획계), 채호규(충청남도 정책실) 등과 함께 일본 東京都(세타가야區疫所, 다마市疫所), 가나카와縣(縣廳, 후지사와市疫所, 에노시마) 등의 주요 도시를 방문했다. 이번 현지조사는 일본의 인간중심적이

고 친환경적인 도시계획 기법과 선진적인 도시계획 기준 및 제도, 도시경관 등의 폭넓은 조사 결과를 연구내용에 반영하여 충남도의 도시개발행정 개선에 효과적으로 응용하는 데 있었다.

이인배 연구원은

• 11월 7(金) 오후 2시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충청남도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 참석했다.

• 11월 12(水) 오후 2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관광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정보화 시대의 관광산업 세미나」에 참석했다.

열린충남 수록현황(창간호-10호)

구 분	성 명	제 목	소 속	성명
95 창간호 제1권1호 (95.10.20)	임양빈	지방화 시대의 충남지역 발전전략	건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특집
	윤성채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보방안 모색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박종찬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강화	고려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윤용혁	백제문화권 개발과 충남 발전	공주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
	임도빈	충남 지방자치의 방향과 과제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논단
	김철규	충남의 환경개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대전산업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김항규	지방화 시대와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이왕기	문화전쟁시대의 지역문화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현재혁	서해안 시대와 환경보전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정책
	유상수	개발과 보전의 조화	충청남도 정책실 제2정책심의관	"
95 겨울호 제1권2호 (95.12.30)	정동찬	충남의 문화특성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실장	"
	최종후	여름의 끝	목원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교수	칼럼
	박영기	충남의 국제화 전략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특집
	권용대	WTO체제에 대응한 지역농업의 발전방향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
	최병익	농어촌 소득원 개발전략	공주대학교 지역사회개발과 교수	"
	김병량	사회간접자본 확보방안	단국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
	김의준	민자유치 전략의 개선방향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권중돈	지역복지정책의 추진전략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송두범	소도읍의 개발수준 측정 및 개발방향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개발부 연구원	논단
	박경배	지치시대 공직자의 경쟁력	충청남도 기획관	칼럼
96 봄 호 제2권1호 (96.3.30)	라도승	금강의 역사문화의 중요성	금강권연구소 소장	특집
	심문보	금강권역의 개발전략	충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부연구원	"
	김용철	금강의 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부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	"
	강 호	금강의 개발과 용수량 확보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김시중	금강주변의 교통 및 관광 개발	중경산업대학 관광경영학과 교수	"
	임봉수	금강 1,000리 수질관리 대책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김일태	지방자치 행정의 발전방향	서울시립대학 도시행정학과 교수	논단
	최민호	경영행정의 기초관점	충청남도 지역경제국장	칼럼

구 분	성 명	제 목	소 속	성명
96 여름호 제2권2호 (96.6.29)	이효선	서해안권 개발과 서북부경제의 영향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특집
	여정태	서해안권 관광개발 전략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
	노 일	서해안 해양자원 개발전략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학과 교수	"
	김기현	서해안권 개발과 해양오염	충남대학교 해양학과 교수	"
	최일섭	사회복지관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 활용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논단
	이강선	충남신용보증조합 설립 타당성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부장	"
	이명수	국책사업 중앙정부의 조정기능 회복되어야	충청남도 정책실장	칼럼
96 가을호 제2권3호 (96.9.30)	이덕복	충남 북부권 개발의 방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강사	특집
	이춘세	충남 북부권 첨단산업 육성방안	순천향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이호태	충남 북부권 개발과 환경보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
	최종후	통계정보시스템 이용을 활성화 하자	목원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교수	"
	김원홍	지방정부의 여성복지정책 추진방향	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	논단
	최병학	지방정부간 정책경쟁과 충남도의 전략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김대길	호남고속철도는 왜 천안에서 분기해야?	충청남도 정책실 제1정책심의관	칼럼
96 겨울호 제2권4호 (96.12.31)	박서호	충남백제권 개발의 전략	한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	특집
	이남석	백제문화재 개발과 향후 과제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
	정강환	백제문화재 관광상품화 전략	배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
	정하성	지방청소년 육성시책 검토와 발전방향	청소년지도연구회장·평택대 교수	논단
	이창호	지원봉사활동과 지방자치 발전	중앙일보사 전문위원	"
	송두범	대전충남지역 제조업 특화업종 선정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개발부연구원	"
	여흥기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학예연구사	칼럼
97 봄 호 제3권1호 (97.3.31)	이종상	충남농업의 어제와 오늘	충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부장	특집
	조재환	21세기 한국농업의 발전전략과 미래모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최병익	개방화 시대 충남농업의 대응전략	공주대학교 축산학과 교수	"
	정태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농협중앙회 양곡유통과장	"
	김재필	대전·충남지역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	순천향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논단
	이인배	서산기지 민항취항과 지역사회 파급효과	충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부 연구원	"
	남궁영	충남농정의 전개방향	충청남도 농정유통과장	칼럼

구 분	성 명	제 목	소 속	성명
97 여름호 제3권2호 (97.6.29)	여정태	충남관광의 변화전망과 개발전략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특집
	이인배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부 연구원	"
	김정연	어촌 관광개발의 과제와 전략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개발부장	"
	양광호	충남 관광정보 전달체계 확립방안	웅진전문대학 관광과 교수	"
	한범수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산업 추진현황	한국관광연구원 연구위원	"
	이태희	충남의 관광산업 개발전략	명지대학교 교통관광대학원 교수	"
	심재성	충남의 화훼산업 육성전략	배재대학교 원예조경학부 교수	논단
	최병학	충청남도 인본경영행정의 논리체계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최동환	충남관광의 미래는 밝다	충청남도 관광과장	칼럼
97 가을호 제3권3호 (96.9.30)	심문보	충청남도 환경정책의 방향과 대응전략	충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부 연구원	특집
	조삼래	충남의 자연생태계 보전방향	공주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
	이영신	수질오염 저감대책	한서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최정수	지역환경정책과 환경정보시스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	"
	조규남	서해안 발전을 위한 해양개발의 과제	홍익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논단
	박진호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모형 설정	충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부 연구원	"
	박경배	충남환경보전 다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	충청남도 보건환경국장	칼럼
97 겨울호 제3권4호 (97.12.31)	서정석	백제문화 연구와 개발의 현주소	충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부 연구원	특집
	이강승	백제문화권 개발의 현황과 과제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
	신형식	백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
	이남석	백제유적의 연구현황과 과제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
	여정태	백제문화권 개발과 관광충남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
	엄수원	지역개발수준의 변화패턴과 지역균형개발방향	한국토지연구원 책임연구원	논단
	송두범	충남 농어촌지역사회 유형화에 관한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개발부 연구원	"
	유상곤	충남의 문화재 사업과 그 성과	충청남도 문화체육국장	칼럼
	최민호	플라톤의 이데아와 21세기 정책방향	前 충청남도 지역경제국장	"

일 반 사 항

1.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70매(A4용지 11포인트 10매) 내외
2. 원고형식
가. 첫째 페이지에 논문제목, 저자 국한문 성명, 소속기관, 현직위, 소속기관 및 자택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원고료송금 계좌번호 등을 기재
나. 둘째 페이지부터 논문의 내용을 1, 1, 가, 1), 가), (1) 의 기호체계에 의해 기재
3. 출 령 물 : 아래아한글 3.0 또는 한글오피스 96을 이용하여 작성한 논문 1부와 디스켓 1개
4. 원고심사 :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그 과정에서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5. 원 고 료 :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 지급

본 문 주

1. 본문안의 인용은 다음 예시에 따르고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은 미주로 처리
예시) (정지웅, 1995, p.30) 또는 정지웅(1990, p.30)
2. 내용주(content notes)는 일련번호를 명기하고 각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

참 고 문 헌

저자, 논문명(또는 서명), 출판사(항), 연도, 페이지 순으로 기재하되 논문은 “ ”안에 기입하고 서명은 고딕으로(외국의 서명은 이탤릭) 표시

예시) ○ 국내논문 : 임양빈, “지방화시대의 충남지역 발전전략”, 열린충남 제1권 제1호, 충남발전연구원, 1995, pp.14-35.

○ 단 행 본 : 오연천, 한국지방재정론, 서울 : 박영사, 1995.

○ 외국논문 : Batina, R.G., “Public Goods and Dynamic Efficienc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41, 1990, pp.389-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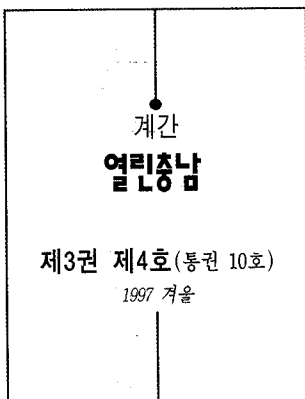
○ 외국단행본 : Frenkel, J.A., and Razin, A., *Fiscal Policy and the World Economy*, Cambridge : MIT Press, 1987.



「열린충남」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린충남」은
충남발전에 관한 연구논문,
정책제언 등
새로운 내용 및 정보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보 내 실 곳

(우) 301-060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48-1
충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부
Tel. 042-222-2162~3
Fax. 042-222-2164



■ 발 행 인 / 안승주

■ 편집위원 / 이강선/김정연/이종상/임선빈/김상락/박진호

■ 등록번호 / 대전 바-1018

■ 등 록 일 / 1995년 11월 30일

■ 발 행 처 / 충남발전연구원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48-1 (우)301-060

(전화) 042-222-2161~3

(팩스) 042-222-2164~5

■ 디자인·인쇄 / 나리문화사

(전화) 042-253-8380

■ 인 쇄 / 1997년 12월 24일

발 행 / 1997년 12월 30일

열린충남 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는 아닙니다.



301-060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48-1
TEL.(042)222-2161~3 FAX.(042)222-2164~5